

부산사료총서 32

국 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5)

국 역
김종학
김흥수

감 수
김동철
현명철

해 제
전성현



부산광역시
BUSAN METROPOLITAN CITY

번역

김종학(서울대학교 교수)

김흥수(홍익대학교 교수)

감수

김동철(부산대학교 명예교수)

현명철(전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해제

전성현(동아대학교 교수)

국역 조선사무서(5)

발행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051-888-5058)
기획·편집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시사편찬실)
발행일 2025년 6월 30일
편집·인쇄 (주)디자인제로(051-804-5888)

발간등록번호 52-6260000-000622-10
ISBN 979-11-85308-74-6
979-11-85308-36-4 (세트)

원문공개 부산광역시(www.busan.go.kr) > 부산소개 > 부산의 역사 > 향토사도서관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www.bssisa.com)

표지에 사용된 지도
조선 해도 부산항 일부(출처 : 국립중앙박물관)

부산사료총서 32

국 역
朝鮮事務書
조선사무서
(5)

국 역
김종학
김흥수

감 수
김동철
현명철

해 제
전성현

· 발간사

부산시(시사편찬실)는 시사편찬 사업 일환으로 부산의 역사 관련 다양한 책자를 발간해 오고 있습니다. 1989년 부산시사편찬위원회 활동을 재개하면서 지금까지 총 20여 종, 150여 권이 넘는 부산역사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부산은 구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간직하였기 때문에 부산의 역사를 한 권의 책자에 담아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는 부산의 역사성을 알리기 위해 여러 가지 시리즈의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 근대 부산 관련 사료를 국역하는 부산사료총서입니다.

부산사료총서는 1963년 제1권 『동래부사례』를 시작으로 관서지와 공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사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을 완료한 것은 『내부일기』, 『다대진공문일록』, 『영남진지』, 『내영정적』, 『내영지』, 『추호유고』, 『왜인구청등록』, 『전객사별등록』, 『통신사등록』 등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조선시대 왜관·통신사 관련 사료를 국역하여 조선시대 대일교섭의 창구 부산의 위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번역하고 있는 사료는 『조선사무서』입니다. 『조선사무서』는 개항기 전후 부산의 왜관 관원 등이 작성한 한일 간의 외교 문서를 ‘재부산일본영사관’이 정리한 문서입니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에 의거하여 부산에 일본 총영사관이 설립되자, 조일외교 문헌을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1867년부터 1874년까지 외교 문서를 수집하여 연월별로 정리한 뒤 29권 문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사무서』의 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개항 전 부산항에서 전개된 한일 교류 양상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항 전 동래부의 대일정책의 변화 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끝으로 『국역조선사무서(5)』가 발간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번역자와 감수자, 그리고 해제 집필자 선생님과 시사편찬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 개항 전후한 시기 부산항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부산광역시(시사편찬위원회)

· 목 차

▪ 발간사 · 04

▪ 해 제 · 16

제 14 권

메이지_{明治} 5년(1872) 9월

- 01 하나부사_{花房} 대승_{大丞}으로부터, 오사카_{大坂}에 출장 나간 조세료_{租稅寮} 고토 다쓰미_{厚東樹臣}의 서한을 첨부하여 조선에 보내는 후대품 소목_{蘇木} 및 칠기_{漆器} 류의 통관_{通關}에 관해 외무성에 보내온 서한 34
 첨부 고토 다쓰미의 서한
- 02 하나부사 대승 등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 오사카에서 출범하는 일자를 외무성에 보고한 글 36
- 03 출납료_{出納寮}에, 동銅을 인수한 증서 37
- 04 9월 7일 타이슈_{對州}에 주재한 히로쓰 히로노부_{廣津弘信}가 후카미 로쿠로_{深見六郎}의 서한을 첨부하여 조선의 사정을 진술한 서신 37
 첨부 후카미 로쿠로가 조선에서 보내온 서한
- 05 하나부사 대승 등이 바칸_{馬関}에서, 효고_{兵庫}에서 출범한 후의 보고서 45
- 06 야나기와라_{柳原}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바칸 출범의 경과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신 46
- 07 9월 10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47
 첨부 조선에 온 류큐인의 인명_{人名}과 그에 관계된 관원 인명록

08	외무경이 조선에 보내는 휴대품, 소목蘇木, 기타 물품의 목록[別記]을 첨부해서 오사카항 통관에 관해 이노우에井上 대장대보大藏大輔에게 보낸 조회서	52
	첨부 소목蘇木 및 기타 물품 목록	
09	이노우에 대장대보가, 조선 표류민 처분 및 통사通詞 고용에 관한 가가와 香川 사가현佐賀縣 참사參事の 우카가이쇼同書を 첨부하여 보낸 조회서	54
	첨부 가가와 참사가 이즈하라巖原 출장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인 표류민의 처분에 관해 대장성에 올린 우카가이쇼 표류민 두 차례二巡에 지급한 미·전錢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 등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사가현 본청本廳에 제출한 한인 표류민 관계 문서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한인 표류민에 대한 연시年始 및 기타 오절구五節句 등의 주효酒肴 급여와 관련하여 그 본청에 제출한 문서 한인 표류민에 대한 연시 및 오절구 급여 정식 조서調書 가와와 참사가 한어韓語 통사通詞 고용과 관련하여 대장성에 올린 우카가이쇼	
10	외무경이 한인 표류민 비용 및 통사通詞 고용과 관련하여 이노우에 대장대보에게 보낸 회한回翰	68
11	후카미 로쿠로 외 4인 배명사령안拜命辭令案	68
12	9월 18일 야나기와라 대승이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서신	69
13	같은 날. 야나기와라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70
14	9월 19일 미야모토宮本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낸 서신	71
15	같은 날. 야나기와라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71
	첨부 류큐 사신 참조參朝 절차 상표上表 사본【2통】 칙어勅語 책봉 사본 배명 사본 헌품 목록	
16	대장성으로부터 조선국에 대한 수출품과 관련하여 오사카 세관에 내린 지령이 완료됐음을 회신하는 글	82

17	외무경이 조선국의 대기근 구호를 상신한 글	82
	첨부 외무경이 재한在韓 하나부사 대승에게 내린 명령서 신문지 발취	
18	나가사키현에 외무성 다케우치 세조竹內精三의 조선국에 파견에 따른 선편船便의 주선을 의뢰하는 글	84
19	다케우치 세조에게 공신公信을 갖고 도한渡韓한 뒤에 만약 하나부사 대승 이 이미 귀조歸朝했으면 재관在館 관원에게 열어보게 하라는 내용의 사령 안辭令案	85
20	9월 25일 야나기와라, 와타나베渡邊 두 사람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내 온 서한	85
21	정원正院으로부터 다케우치 세조에게 보낸 사령서를 회부回付하는 글	87
	첨부 다케우치 세조 견한遣韓 사령서	
22	9월 27일 타이슈 주재 하나부사 대승이 보내온 서신	88
23	도요오카현豊岡縣으로부터 현내縣內 간자키무라神崎村 사쿠베作兵衛 등이 조선국에 표착漂着한 전말의 신고서	89
	첨부 사쿠베 구치가키口書	
24	정원正院으로부터 조선국 구호와 관련하여 대장성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온 글	93
	첨부 대장성 의견서	

- 01 외무경이 조선국의 주급周急에 관한 대장성 의견서의 취지에 따라 하나부사 대승을 지휘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상신서 96
- 02 사관史官이 조선회도朝鮮繪圖의 반각返却을 위해 보내온 서한 97
- 03 10월 4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97
- 04 야나기와라 대승이 관금官金을 물품 대금으로 유용하려고 했으나 연착했다는 내용으로 대장성에 보내는 조회서를 첨부하여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서신 99
- 첨부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 05 해군성으로부터 조선행 가스가함春日艦의 소식을 묻는 서한 101
- 06 같은 건. 해군성에 보낸 회한回翰 101
- 첨부 나가사키 주재 사이토齋藤 권대륙 등이 보내온 서한
- 07 해군성에 가스가함의 소식과 관련하여 보낸 서한 103
- 08 10월 12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2통】 103
- 09 식부료式部寮로부터 조선국 지도地圖의 반납 차질에 관해 보내온 서한 106
- 10 식부료에게 같은 건으로 보낸 회한回翰 106
- 11 사관史官에게 조선에 출장 나간 하나부사 대승이 보내온 서신을 회람回覽한다는 글 107
- 첨부 9월 17일자 재한在韓 하나부사 대승의 서한
- 12 오사카 주재 사이토 사카에齊藤榮가 조선에 건너갈 숙동熟銅과 관련하여 타이슈 주재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보낸 서한 109
- 첨부 무로즈미야 도모에몬室積屋友右衛門이 보낸 동銅 운송 비용의 견적서
마에다 나오키前田直勝가 동銅의 선적 및 출범의 순서를 사이토 사카에에게 보고한 글
- 13 식부료가 조선 지도의 재조사[再調]에 관해 보내온 글 112
- 14 10월 19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113

15	식부료가 보낸 조선지도 접수증	114
16	11월 5일 타이슈 주재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보낸 서신	115
17	11월 8일 모리야마 시게루가 초량관에서 온 서신을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117
첨부	10월 28일 오쿠 기세이(奥義制)로부터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온 서한 및 탐색서 11월 7일 오쿠 기세이로부터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온 서한 공사무역(公私貿易) 현유품(現有品) 대가(代價)의 적립서(積立書) 내지(內地) 부채액(負債額)과 번謄 회계에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조서(調書) 한어학소(韓語學所) 규정	
18	11월 12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보낸 서신【2통】	151
첨부	초량관 한인 응접서(應接書) 발취 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가 관사(館司) 등이 동래로 가던 중 관계한 사건에 대해 답한 글	
19	11월 20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보낸 서신	163
20	외무경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 8등부터 15등까지 일당과 경비를 지급 할 것을 상신하는 글	165
21	외무경이 조선과의 무역에서 생긴 소宗 씨 부채의 공사(公私) 구별 및 처분 을 상신하는 글	170

- 01 외무경이 심교^{尋交} 절차와 목적을 진술하고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상신하는 글 174
- 02 정원^{正院}에 조선행 공금 5천 엔을 내려줄 것을 상신하는 글 및 결재^{【2통】} 177
- 0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의할 건건을 품의하는 글 178
- 첨부 관사^{館司}에게 구달^{口達}하는 각覺
- 04 해군성에서 정원의 사령서를 첨부하여 군함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내한^{來韓} 181
- 첨부 정원에서 해군성에 내린 명령서
- 05 하나부사^{花房} 대승 외 4인이 도한을 배명^{拜命}한 사령안^{辭令案} 182
- 06 조선사건 처분에 대해 외무경에게 내린 칙선^{勅宣} 사본 183
- 07 외무경이 조선사건 처분의 건건에 대해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에게 위임하는 글 184
- 08 외무경이 쓰시마^{對州} 한어학소^{韓語學所} 교원의 입비^{入費} 지급을 상신하는 글 185
- 09 대장성에 하나부사^{花房} 대승 외 3인의 월급 3개월분을 앞당겨 수취하는 건을 조회하는 글 185
- 10 대장성에 하나부사^{花房} 대승 및 기타의 조선행 여비 등의 수취에 대해 조회하는 글 186
- 첨부 조선 및 쓰시마^{對州}행 수당 조서^{調書}
- 11 이토^{伊東} 해군 소좌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189
- 12 선장 나카이 하쿠아이^{中井博愛}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190

13	오사카부大坂府에서 조선에 가지고 갈 물품 조달 건에 대해 보낸 서한	190
14	사관史官에 쓰시마[對州] 관할管轄의 교체에 대해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조회하는 글	191
15	해군성에서 가스가함春日艦의 출범을 통지하는 내한來翰	191
16	이와하시 데쓰스케岩橋轡에게 동銅 수취의 건을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촉구하는 글	192
17	사관史官에서 쓰시마[對州] 관할의 교체에 대해 나가사키長崎·사가佐賀 양현兩縣에의 사령안辭令案을 첨부해서 보낸 서한	193
18	해군성에서 강화도의 측량도를 미국 군함으로부터 차용借用할 것에 대해 보낸 서한	194
19	도타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미국 군함으로부터 빌린 조선 수도 근해 측량도를 건네기 위해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한	194
20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조선 관계 사무는 쓰시마[對州] 재근在勤 외무성 관원 에 협의할 것을 통달하는 글	195
21	사관史官에서 『관원전서官員全書』를 회부回付하는 내한來翰	195
22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가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을 하나부사 花房 대승과 동행하여 도한하는 것에 대해 보낸 서한	196
23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의 동행 도한渡韓에 대해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에게 보낸 서한	197
24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로부터 하나부사花房 대승의 나가사키 체류 및 나가사키에 들르는지를 문의하는 내한來翰	197
25	육군성에서 가스가함春日艦이 도한渡韓하는 항로의 순서를 문의하기 위해 보낸 서한	198
26	가스가함春日艦은 바로 쓰시마[對州]로 가고 유코마루有功丸는 나가사키에 들른다고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에게 보낸 서한	199

27	피아 표민의 송환과 기타 건건에 대해 최재수崔在守가 내밀히 얘기한 것을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가 듣고 적은 기록	199
28	덴포잔天保山 앞바다에서 조선행 짐을 선적함에 따라 단속을 위해 등외 等外 관리 차용借用을 와타나베渡邊 권지사權知事에게 하나부사花房 대승 등이 의뢰하는 글	202
29	사가현佐賀縣 이즈하라嚴原 출장소에서 한국 표민의 송환은 스미히사마루 住壽丸로 정했다고 보낸 서한	203
30	후카미 관사와 하나부사의 회견 내용 ¹	203
31	해군성에서 조선해 측량도를 돌려보낸다는 내한來翰	206
32	조선 관계 서적 목록	207
33	소宗 씨 대관소代官所 인영印影	208
34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4인의 배명拜命 사령서와 수령서【5통】 ..	210
35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의 귀국을 명하는 사령안辭令案을 첨부 해서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에게 통달하는 글	212
36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3인을 등용했다고 알 리는 글	213
37	9월 1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신	213
38	대관소代官所 취급 조목	215
39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을 친척과 정町 에서 맡아 근신시키도록 하라고 통달하는 글	216
40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 감찰을 명하는 사령서	216
41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에게 이대관二代官을 맡을 것을 명하는 사령서와 수령서【2통】	217

¹ 목록에는 누락 되어 있으나 본문을 토대로 추가했다.

42	조선에 왕래하는 선박의 감합인勘合印과 편선便船 왕래 증명서를 건네는 절차서	217
43	선주와 편선便船의 조선 왕래 수칙	219
44	관사館司·일대관一代官·감찰監察의 내밀內密 수칙	221
45	9월 25일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등이 쓰시마對州 외무성 출장소에 보낸 서신	222
46	9월 25일 야나기하라柳原 대승 등이 하나부사花房 대승에게 보낸 서신	223
47	외무경이 조선국의 주급周急을 하나부사花房 대승에게 명하는 글 ..	225
48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서 쓰시마對州 관할의 교체를 외무성 출사出使에게 알리는 글	225
49	쓰시마對州 구 관원 후루카와 겐타古川源太 등이 대관방代官方 명칭 폐지 를 신고하는 글	226
50	비선飛船의 순회順廻 절차를 정한 규칙	227
51	초량관草梁館 근무 의정議定	229
52	9월 2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의 내신來信	232
53	9월 29일 이즈하라巖原 외무성 출사出使가 초량관草梁館 관사館司 등에게 보낸 서신【2통】	233
54	9월 29일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 등이 이즈하라巖原 외무성 출장소에 보낸 서신	235
	첨부 배통사 최재수 등의 대화서	
55	아라가와 긴스케荒川金助를 한어학소韓語學所 교원으로 명하는 사령서	238

▪ 찾아보기 ▪ 239

- 조선사무서 제14권 • 4
- 조선사무서 제15권 • 93
- 조선사무서 제16권 • 198

국역조선사무서 V

조선사무서는 1867년 메이지유신 직전·후부터 개항을 앞둔 1874년까지 조선과 관계된 외교 문서를 개항 이후 부산에 설치된 ‘재부산일본총영사관’이 정리한 문건이다. 시기적으로는 바쿠후[幕府] 말, 메이지[明治] 초부터 조선과 외교관계를 새롭게 맺고자 했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에 빠져있던 1874년까지이다. 문서의 구성은 조선과 교제할 수 있는 조선 내 유일한 통로인 초량왜관을 둘러싸고 그때까지 조일 관계의 일본 측 파트너였던 쓰시마[對馬島], 메이지유신 이후 조일 관계를 직접 관장하고자 한 일본 외무성 및 정부, 그리고 조일 관계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한 조선 측 관료들이 작성하거나 상호 간 주고받은 외교 문서로 연월별 29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번역한 것이 국역조선사무서이다. 이 책은 1872년 9월부터 11월까지 외교 문서인 조선사무서 14권에서 16권까지를 번역 정리한 국역조선사무서 V이다.

1. 국역조선사무서 I~IV의 간략한 내용

- 1) ‘메이지유신’에서 ‘폐번치현’까지, 조선 교제를 둘러싼 ‘구교’와 ‘신교’의 갈등 (I~III권)

국역조선사무서 I~Ⅲ권은 조선사무서 1~10권의 외교문서를 1~4권, 5~7권, 8~10권으로 각각 묶어 번역한 것이다. 시기는 일본에서 ‘메이지유신’이 일어난 1867년부터 조선에서는 ‘신미양요’, 일본에서는 ‘페번치현’이 일어났던 1871년까지이며, 내용은 조선과의 교제 방법을 둘러싸고 ‘구교’와 ‘신교’가 갈등하던 상황이 중심이다. 그 대체적인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역조선사무서 I은 메이지유신에 의한 왕정복고를 조선에 알리는 과정에서 생산된 문서, 조선의 서계 접수 거부를 둘러싼 조일 간 갈등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리고 이에 대한 외무성 사절의 파견과 일본 정부의 대응책을 담고 있는 문서 등이 중심이다. 이들 문서를 통해 서구 열강에 의한 동아시아의 개항과 새로운 외교통상조약 체결이라는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조일 간 외교무역체제를 둘러싸고 ‘구교舊交’와 ‘신교新交’가 부딪히는 경계 시점의 세 가지 흐름이 교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쓰시마를 매개로 한 조선과의 구교를 혁파하고 외국과의 조약 체결처럼 직접 주관하고자 하는 바쿠후 및 메이지 정부(외무성)의 뚜렷한 흐름이 있었다. 반면, 조선과 ‘구교’ 단절의 위기를 기회 삼아 ‘신교’를 앞장서 전개함으로써 일본 정부로부터 원조를 받아 자립하고자 하는 쓰시마의 원조 요구 운동이라는 지속적인 흐름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주체적 관점에서 쓰시마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는 조선의 모습이 있었다.

국역조선사무서 II는 일본 외무성 관원의 조선 파견과 그 와중에 전개된 신미양요 직전 일본의 대응을 보여주는 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과 교제에 쓰시마를 여전히 전면에 내세웠지만 외무성도 소속 관원을 조선에 파견하며 점차 직접 교제에 나섰다. 외무성은 1870년 초 관원의 1차 조선 파견을 통해 조선 정부로부터 서계 봉출이 안 되는 원인과 그 입장을 조사한 조선내탐서를 작성했다. 여기서 구레의 조선 교제가 쓰시마의 ‘사교’이기에 폐지하고 정부의 직접 교제와 무역을 위한 약조 체결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외무성 파견 관원은 군대와 함께 황사를 파견하고 만약 거부할 경우,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황사파견론’을 제기했다. 외무성은 일본 정부에 곧바로 황사 파견을 요청하는 한편, 이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 탐색으로 관원의 2차 파견을 진행했다.

국역조선사무서 Ⅲ은 신미양요와 폐번치현 시기의 문서로 우선, 일본이 신미양요를 기회로 어떻게 조선과의 신교 체제를 정립하고자 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조선과 교제가 서계 문제로 답보 상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미국 함대의 조선 출항과 그에 따라 전개된 신미양요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했다. 그런데 일본이 미국 함대에 일본 측 관료를 파견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정보를 토대로 신미양요를 이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조선 측은 단호하게 미국에 대응했기 때문에 일본이 그 사이에서 이를 이용할 수는 없었다.

때마침 일본은 폐번치현의 개혁을 진행했고 관직도 대폭 개혁했다. 외교 사무는 외무성으로 일원화되었다. 폐번치현, 외교 사무의 일원화, 그리고 이즈하라 번지사의 면직 등으로 조선과 구교의 형식은 불가능해졌다. 일본은 폐번치현의 제도개혁과 이즈하라 번지사의 면직과 관련된 내용을 곧바로 알릴 필요가 있었다. 귀국해 있던 외무성 파견 관원과 이즈하라 번의 소 시게마사 가계의 인사가 함께 도한해 일단 폐번치현과 번지사 퇴직 등에 의해 구례의 방식으로 교제가 불가능함을 알리는 사절의 파견으로 결론 났다.

2) 직접 교섭을 위한 동래부 ‘난입’과 조일 관계의 교착(IV권)

국역조선사무서 IV는 조선사무서 제11~13권까지로 직전까지 조선 교제를 둘러싼 갈등이 동래부 ‘난입’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는 시기의 외교문서이다. 그 중심적인 내용은 우선, 폐번치현 등 제도 개혁에 대한 통고와 함께 조선 측의 무대응 또는 지체가 지속되었다. 일본 외무성은 일시 귀국했던 외무성 파견 관원 2명을 다시 조선으로 파견했다. 이들은 쓰시마를 거쳐 초량왜관에 도착해 이전에 파견되어 초량왜관에 머물고 있던 외무성 관원과 함께 직접 조선과 교제하고자 시도했다. 이번에는 폐번치현 등 제도 개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핑계로 직접

교섭을 진행해 그 내용을 통고하는 한편, 서계 전달 방법을 담판하기 위해 준비했다. 하지만 여전히 조선 측은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제도 개혁에 따른 초량왜관의 처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교제의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동래부 난입이라는 강경한 수단이 동원되어 결국 조선 파견 외무관원의 퇴한 조치가 진행되었다. 외무성은 제도 개혁에 따라 조선과 직접 교제를 위한 수순으로 초량왜관의 처분을 계획했다. 초량왜관을 외무성에 부속시키는 한편, 쓰시마 측 인원의 철수를 계획했다. 또한 외무성 파견 관원은 제도 계획 등을 통고하는 한편, 서계의 초안과 구진서 등이 봉출되자 직접 동래부와 대면을 추진했다. 즉, 동래부 난입을 시도했다.

일본인 출입을 막는 경계를 넘어 지역민과의 소요를 일으키며 동래부까지 진출한 일본의 차사와 관사는 동래부사와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말았다. 오히려 신랄한 비판의 동래부사 구진서까지 받은 일본 측 관원은 왜관에 돌아와 논의를 거쳐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관사를 통한 항의의 구진서를 동래부에 제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마저 뜻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

결국, 초량왜관에 파견왔던 외무성 관원은 퇴한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계획에 따라 초량왜관의 정리를 진행했다. 관사를 비롯한 쓰시마 인원의 철수를 추진하고 소 시게마사의 부채 문제를 일부 해결했다. 더불어 쓰시마 소속 통사 등 기존 조선 관계 사무의 정리 및 표류민 송환 등 조선과의 관계에 관한 잔존 사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동래부 난입과 퇴한에 따라 ‘당분간 절교와 같은 모습’으로 조선과의 관계는 담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다만 일본 정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움직였다. 즉, 쓰시마와 조선의 채무 관계 반환 및 청산을 위한 물품과 대금을 해군성의 군함에 싣고 조선으로 건너가고자 했다. 이때부터 군함에 일본 정부의 국기를 달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이 책 국역조선사무서 V에서 일본이 어떻게 조일 관계의 교착을 해결하고자 했는지 확인해 보자.

2. 국역조선사무서 V의 구성과 주요 내용

국역조선사무서 V는 1872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외교문서를 모은 조선사무서 14, 15, 16권을 번역한 것이다. 문서의 순서가 다소 바뀐 부분이 있어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시기 문서의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즉, 조선사무서 16권은 1872년 8~9월의 문서이고 14권은 9월, 15권은 10~11월의 문서이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 외교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8월은 16권, 9월은 16권과 14권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

이 시기 외교문서의 내용은 일본의 제도 개혁에 따른 초량왜관의 외무성 접수와 서계 봉출을 위한 동래부 ‘난입’, 그리고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의 퇴환에 따른 사후 경과와 새로운 조일 관계를 위한 외무성의 공사무역 시도를 둘러싼 조일 관계가 중심이다. 이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세견선 폐지에 따른 쓰시마와 조선과의 채무 관계 반환 및 청산, 그리고 표류 조선인의 송환을 위한 하나부사 외무대승 등 외무성 관원과 해군성 군함의 파견이다. 두 번째 단계는 초량왜관에 파견된 외무성 관원의 조선 접촉 시도이고 이에 대한 조선 측의 반응이다. 세 번째 단계는 접촉이 실패해 외무성 관원이 퇴환한 이후 왜관과 조선 측의 논의 과정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외무대승 하나부사 일행의 조선 파견(외무성 관원 3차 파견)

이미 국역조선사무서 IV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 정부는 애초 외무성 관원의 2차 파견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초량왜관을 정리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외무성은 2차 조선 출사 관원을 퇴환시킨 이후에도 조선 관계 사무를 포기하지 않고 직접 관장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향후 조선과 교제를 위해서는 그대로 두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외무경이 그간의 조선과의 심교 절차와 목적을 진술한 이후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정원正院에 상신한 아래의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났다.

- 一. 그렇지만 위의 화관和館(왜관)은 가키즈嘉吉(1441~1444년) 이래 우리 인민이 왕래하고 거주하여 우리의 국권도 행사되어 온 곳으로 하루아침에 버려버림은 좋지 않으므로 추후 사절을 보내 담판하기까지는 아래의 조항대로 조치하는 것이 지금의 편익에 합당함.
- 一. 초량草梁의 관사館司 및 대관소代官所는 종전대로 그대로 둘 것.
- 一. 쓸모없는 사관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정리하여 귀국시킬 것.
- 一. 상인의 거류는 마음대로 할 것.
- 一. 감함인은 옛 인장을 사용할 것.
- 一. 세전선은 보내지 않을 것.
- 一. 지체된 세전 물품 중에서 소宗 씨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하여 값을 것.
- 一. 쓰시마[對州]에 머무르고 있는 표류민들은 모두 돌려보낼 것.
- 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초량까지 파견하여 온당히 처분할 것.¹

즉, 일본은 외무성 파견 차사와 초량왜관 관사의 불법적인 동래부 난입 사태 이후 조선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자 차사를 퇴한 조치했다. 또한 초량왜관의 정리도 고려했다. 하지만 외무성은 왜관이 가키즈嘉吉(1441~1444년) 이래 일본의 국권이 행사되어 오던 곳인데 이 일로 버려두는 것은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추후 다시 외무성 사절인 ‘각별한 관원’을 보내 조선과 담판하기로 하고 관사 및 대관소는 그대로 두었다. 더불어 조선에 남아있던 초량왜관의 관원들은 모두 외무성 소속으로 전환했다.² 조선 측이 동래부 난입 사건의 책임을 물어 관사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왜관에 남아 있던 관사를 재차 관사로 임명하고 역원도 붙여서

¹ 『조선사무서』 16권 (1) 외무경이 심교(尋交) 절차와 목적을 진술하고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상신하는 글.

² 『조선사무서』 16권 (34)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4인의 배명(拜命) 사령서와 수령서. 『조선사무서』 14권 (11) 후카미 로쿠로 외 4인 배명사령안(拜命辭令案).

왜관에서 근무하도록 했다.³

곧바로 외무성은 관사를 통해 조선 측에 차사의 퇴환은 접수 기한이 정해지지 않아 일단 돌아간 것이라 변명하고 조만간 다른 관헌이 반드시 올 것이라 답하도록 했다. 또한 혹시 조선 측에서 관사 또는 왜관 전체의 철수를 바라더라도 본국의 명이 없이는 일보도 움직이지 말고 더욱 온화하게 해서 절대 동요하지 말 것을 명했다.⁴ 감함인도 옛 인장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고 돌아오는 배의 취허吹嘘도 마찬가지로 처리해 두도록 했다. 조선과의 교섭 여지를 분명히 남겼던 것이다.

또한 외무성은 대관의 한인과 사교 문제에 대해 관사가 그 실태를 검사하고 비밀리에 보고하도록 했다. 반면 대관에게는 기왕의 일은 고려하지 말고 장래 일본 정부를 위해 오로지 유념하도록 했다. 왜관에 거류하던 상인들도 철수시키지 않고 마음대로 거류하도록 했다. 나아가 조일 상인 간의 무역도 지장이 없도록 했다. 그럼에도 정사를 감정하여 왕래 증표를 건네는 걸 엄중히 하도록 했다.⁵ 다만 쓸모없는 쓰시마의 사관과 잡인 등은 모두 정리해 귀국시켰다. 이 또한 조선과의 교섭을 위한 관계 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세견선은 더 이상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 사이 지체된 세견 물품 중 소 시게마사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하여 조선 측에 갚도록 했다.⁶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다시 사절단을 보내 조선 측과 접촉하고자 하는 의도였다. 즉, 구레 쓰시마가 관장하던 조선과 무역 관계를 세견선 혁파를 통해 폐지하고, 그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 아래 일본 정부(외무성)가 직접 공사무역을 시도하고자 한 기도였다.

외무성은 바로 조선에 당시 외무대승이었던 하나부사를 파견하기로 했는데,

³ 『조선사무서』 16권 (3)의 첨부 관사(館司)에게 구달(口達)하는 각(覺).

⁴ 『조선사무서』 16권 (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익할 건을 품의하는 글.

⁵ 『조선사무서』 16권 (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익할 건을 품의하는 글.

⁶ 『조선사무서』 16권 (6) 조선사건 처분에 대해 외무경에게 내린 칙선(勅宣) 사본. 『조선사무서』 16권 (7) 외무경이 처분의 건에 대해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에게 위임하는 글.

그때 하나부사가 ‘도한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의해야 할 건’을 품의한 글 중 사무역 및 밀무역 관련 대목이 이를 잘 보여준다.

一. 사무역이라 부르는 소 씨의 ‘모노폴리(독점)’ 무역은 우리 나가사키 당관唐館 무역과 본래 같은 맥락의 것이므로, 약간 방법을 달리하면 계속 거행할 수 있는 무해無害한 방법도 있을 것임. 그러나 당장은 이 외에, 해적선의 밀무역⁷은 기실 공공연한 통상의 무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오히려 이 부분을 성대히 하도록 도와 점점 세력을 키울 작정이라는 것을 명심토록 해둘 것임.⁸

이른바 그간 조선 측과 진행된 쓰시마의 세견선 무역은 외무성의 입장에서 사무역이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나가사키 당관唐館 무역과 본래 같은 맥락의 것으로, 약간 방법을 달리하면 ‘공식 통로[公通]’로서 계속 거행할 수 있는 ‘무해한 방법’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더불어 해적선의 밀무역도 이제는 공공연한 ‘통상의 무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 통로[私通]’이니 이 부분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⁹

외무성은 쓰시마의 세견선 무역은 단절하면서도 그 채무 변제의 과정을 조선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적 통로’로 여겼다. 또한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민간 간의 무역을 적극 활용하여 통상 무역이라는 ‘사적 통로’를 통해 외교관계의 교착을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기에 외무성이 미리 제시한 것처럼 왜관 관사를 통해 초량왜관의 상인들은 퇴한시키지 않고 그들 마음대로 거류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조선 상인과의 무역도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도록 했던 것

⁷ 조선에 도착한 일본 상선이 짐을 왜관에 다 부리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서 왜관 밖에서 무역하는 이른바 잠상 행위를 말한다(김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日本歴史研究』 55, 2021, 52쪽).

⁸ 『조선사무서』 16권 (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의할 건건을 품의하는 글.

⁹ 『조선사무서』 14권 (20) 9월 25일 야나기와라, 와타나베(渡邊) 두 사람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내은 서한.

이다.¹⁰ 결국 기존의 공적인 외교 관계가 동래부 난입 사건으로 교착에 교착을 더하자, 사적인 채무 변제나 조일 상인 간의 사무역을 통해 교섭의 실마리를 풀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외무성은 또 다른 차원의 교섭을 위한 실마리로 조선인 표류민 송환도 이용하고자 했다. 일본 측의 동래 난입 사건 이후 조선 측은 쌍방 표류민의 쇄환과 관련해 여전히 종전 규정 이외에 일시적으로 신례를 설치하는 것은 구애된다고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본이 초량왜관을 정리하고 관련 인원을 모두 퇴환시킨다면 조선 측도 초량왜관의 관지를 인도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한편 원래의 초량읍에 귀속시킬 예정이었다. 이후 일본 측 표류민은 조선 측이 직접 송환할 수밖에 없었다. 구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서한을 지참한 사절을 쓰시마로 파견하는 것이다. 하지만 쓰시마 도주가 폐번치현에 따라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쓰시마 지방 어디에서든 대나무 조각에 끼워 세워서 버리고 돌아오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일본 측이 초량왜관을 폐쇄하지 않고 오히려 관사를 재임명한 이상 종전의 규정대로 관사를 통해 송환하는 것은 가능했다.¹¹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던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는 세전 물품 변제와 함께 표류민 송환을 구실로 조선과의 교섭 교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무성 관원을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외무성 관원을 직접 파견하여 조선과 직접 교섭하고자 한 3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일본 해군성이 군함의 조선 파견을 명령했다.¹² 뒤이어 외무성은 하나부사 외무대승을 중심으로 조선에 대한 소 시게마사의 공사무역 지체 물품 상환 등 ‘조선사건 처분’을 명령했다.¹³ 이에 따라 하나부사는 군함 가스가와 운송선 유코마루에

¹⁰ 『조선사무서』 16권 (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의할 건건을 품의하는 글 [첨부: 관사(館司)에게 구달(口達)하는 각(覺)].

¹¹ 『조선사무서』 16권 (27) 피아 표민의 송환과 기타 건건에 대해 최재수(崔在守)가 내밀히 얘기한 것을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가 듣고 적은 기록.

¹² 『조선사무서』 16권 (4) 해군성에서 정원의 사령서를 첨부하여 군함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내한(來翰).

¹³ 『조선사무서』 16권 (5) 하나부사(花房) 대승 외 4인이 도한을 배명(拜命)한 사령안(辭令案).

동, 소목, 칠기, 기타 물품과 대금을 적재하는 한편,¹⁴ 군대까지 탑승시켰다.

일본은 군함과 운송선의 파견이 자칫 조선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음을 염려해 군함과 운송선에 탑승한 인원의 상륙을 사전에 단속했다. 즉, 군함과 운송선이 부산포에 정박할 때 장교, 사관, 뱃사람에 이르기까지 절대 상륙시키지 말 것과 혹시 조선인들의 ‘조포粗暴한 소행’이 있더라도 이에 응하지 않고 더욱 온화하게 진퇴할 것을 각각 협의해 두었다.¹⁵ 모든 준비가 갖춰지자, 하나부사 일행은 쓰시마에 머무르고 있던 표류 조선인들까지 태워 1872년 9월 15일 도한했다.

2) 하나부사 일행의 도한과 퇴거 그리고 조선과 교섭 활동

9월 15일 미명에 쓰시마를 출발한 하나부사 일행은 오후에 부산포에 도착했다. 화륜선의 도한에 대해 조선 측의 동요는 없었다. 오히려 한인 소통사와 수영의 군인들이 군함 배전을 위해 허락하기도 했다. 이처럼 두 배의 부산 도착에도 관문은 평소대로 열려 있고 소통사는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사꾼과 품팔이 등은 일절 입관하지 않아 소위 철시 상태였다.¹⁶

그날 밤 하나부사는 초량 관사를 불러 7월 이래 쓰시마 이즈하라에 있는 외무성 관원에게 보낸 글의 내용을 묻고 지금까지의 사정을 청취했다.¹⁷ 그리고 동래부 난입 당시 조선 측과 자의적으로 교섭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대관 등 3명을 쓰시마로 퇴거 명령하고 근신하도록 해당 현에 협조를 요청했다.¹⁸ 또한 쓸모없는 사족

¹⁴ 『조선사무서』 14권 (1) 하나부사(花房) 대승(大丞)으로부터, 출장 나간 조세료(租稅寮) 고토 다쓰미(厚東樹臣)의 서한을 첨부하여 조선에 보내는 휴대품 소목(蘇木) 및 칠기(漆器)류의 통관(通關)에 관해 외무성에 보내온 서한. 『조선사무서』 14권 (3) 출납료(出納寮)에, 동(銅)을 인수한 증서. 『조선사무서』 14권 (8) 외무경이 조선에 보내는 휴대품, 소목(蘇木), 기타 물품의 목록(別記)을 첨부해서 오사카항 통관에 관해 이노우에(井上) 대장대보(大藏大輔)에게 보낸 조회서.

¹⁵ 『조선사무서』 16권 (11) 이토(伊東) 해군 소좌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조선사무서』 16권 (12) 선장 나카이 하쿠아이(中井博愛)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¹⁶ 『조선사무서』 16권 (37) 9월 1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신.

¹⁷ 『조선사무서』 16권 (30) 후카미 관사와 하나부사의 회견 내용.

과 병졸 모두 귀국을 명해 퇴거조치했다. 대신 남아있는 관사를 비롯해 조선과 교섭할 수 있는 인원은 외무성의 관원으로 전환해 일대관, 이대관, 통사 및 서기에 임명했다.¹⁹ 초량왜관을 완전한 외무성 관할로 하고 아래와 같이 규정까지 정했다.

규정

- 一. 매일 아침 10시 관사館司와 모두 출두하여 사무를 취급하고 본일本日の 사건은 될 수 있으면 그날에 마치도록 힘껏 담당할 것.
단, 2시에 퇴근할 것.
- 一. 출납 회계는 모두 검인한 후 시행할 것.
- 一. 창고의 단속 봉인封印은 대관과 감찰의 양인兩印을 찍을 것.
- 一. 배가 출입할 때마다 역원 중 2, 3인이 빈번소濱番所에 출장할 것.
- 一. 일기와 장부를 작성하여 출두한 인명과 매일 취급하는 사무를 빠짐없이 기재할 것.
단, 서기가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도 퇴근 전에 두루 살펴서 각자 빠진 부분을 보충할 것.
- 一. 관내館內 경계의 단속을 위해 관사 이하 감찰·대관 등이 협의하여 수시로 순시할 것.
단, 관저官邸 부근 야경夜警도 마찬가지임.
- 一. 매월 1·6²⁰의 (휴일)과 기타 휴가는 공례公例에 따라 시행할 것.
단, 휴일이라 해도 출항과 입항의 경우, 기타 상인의 출원에 따라 수시로 출장하여 사무를 취급할 것.

¹⁸ 『조선사무서』 16권 (35)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의 귀국을 명하는 사령안(辭令案)을 첨부해서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에게 통달하는 글. 『조선사무서』 16권 (39)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을 친척과 정(町)에서 맡아 근신시키도록 하라고 통달하는 글.

¹⁹ 『조선사무서』 14권 (11) 후카미 로쿠로 외 4인 배명사령안(拜命辭令案). 『조선사무서』 16권 (34)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4인의 배명(拜命) 사령서와 수령서(5통). 『조선사무서』 16권 (36)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3인을 등용했다고 알리는 글. 『조선사무서』 16권 (40)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 감찰을 명하는 사령서. 『조선사무서』 16권 (41)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에게 이대관(二代官)을 맡을 것을 명하는 사령서와 수령서(2통).

더불어 초량왜관의 인원과 분과를 정하고 담당 업무를 규정했다. 먼저, 교린의 중요한 접대와 내외 여러 업무를 총리하는 관사를 1인 두었고, 관사를 도와 대소 사무를 맡고 무역, 출납, 취허吹嘘, 인감 및 한인의 응접, 문서 왕복, 일과 기록 등을 처리하는 일대관과 감찰을 두었다. 더불어 관사, 일대관, 감찰 등의 지도를 받아 무역, 출납, 취허, 인감 및 한인 통역과 기타 모든 서기의 일을 맡는 이대관, 삼대관, 서기를 두었다.

또한 감찰의 지도를 받아 왜관의 단속을 전담하고 사정²¹ 이하 사관과 공사인부, 상인 등까지 노역의 부과를 모두 관장하는 금도禁徒²²를 두었다. 공무소에는 상주 근무하는 금졸禁卒²³ 겸 사정 3명을 두었는데, 이 가운데 1명은 공무소 사무를 취급하고, 1명은 야간 순찰 근무를 하며, 1명은 수문에서 숙직하면서 경위하고 다음 날 아침 청소 인부를 분담시킨 후 조시의 단속을 담당하고, 이를 마치면 공무소에 출두하도록 했다. 이들은 돌아가면서 근무하도록 하여 불공평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 사환 2명을 두어 공무소에 상주 근무케 하고 1명은 급사給仕²⁴, 1명은 심부름꾼으로 활용했다.

그밖에 대공大工 1명과 건축 인부 3명을 두어 영선營繕과 토목에 사역하게 하고 시의를 봐가면서 청소도 하도록 했다. 수부 2인도 두었는데, 비선飛船 중에서 순번을 정해 해변 창고의 단속을 위한 야간 순찰을 하도록 했으며 땅거미가 질 무렵부터 공무소에 상근하는 금졸의 지시를 받도록 했다. 앞의 수부 2명을 제외하고 다시 수부 10명을 두어 사정의 지시를 받아 각각 맡은 장소를 정해 관내의 제초와 청소 등을 하도록 했다. 사정 1인은 매일 관내 청소 장소를 둘러보고 불철저한 자는 반드시 바로잡고 다시 청소하도록 했다. 끝으로 관내에 주거하는 상인 2인

²⁰ 1과 6이 들어가는 날짜로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을 일컬음.

²¹ 지초(じちょう). 잡역에 종사한 하인.

²² 일본의 이른바 메스케(目付)로, 감찰·단속의 일을 맡은 자.

²³ 금졸은 원래 옥졸(獄卒)의 의미이나 여기서는 하급 금도를 일컬음.

²⁴ 관청이나 회사, 가게 따위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부리는 사람.

을 1조로 순서를 정해 야번(夜番)²⁵ 표찰을 차례차례 보내 해변 외 관내의 야간 순찰 근무를 하도록 하고 순찰 방법은 금도와 금줄의 지시에 따르도록 했다.²⁶

이상의 초량왜관 근무를 의정한 후 곧이어 조선과 교섭에 나섰다. 우선 쓰시마로부터 데리고 온 표류민 13명을 조선 측 임관과 협의하여 절차를 생략하고 수취서를 받는 대로 인도를 마쳤다. 곧이어 세건 무역을 담당할 대관소의 일을 규명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의 조사를 끝내고,²⁷ 부채 상환 방법에 대해 조선 측 임관과 협의했다.²⁸ 그 전말은 다음과 같다.

하나부사 일행은 초량왜관의 관사 이하 관리들을 외무성 소속으로 전환하는 한편, 통사 겸 일대관을 통해 조선 측과 협상에 나섰다. 일대관은 구진서를 보내 세건선 미수품을 상환할 것이니 조선 측 별차에게 초량왜관으로 오라고 통보했다. 조선 측은 이번의 별차가 신임으로 모든 일에 어두워 아무리 주장해도 실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을 고려해 배통사 최재수를 보냈다. 최재수는 ‘화륜선으로 왕래하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라’는 예전 관문의 지시도 있으니 ‘물품 출입은 화륜선이 왜관에 있는 동안에는 거론하지 말라’는 뜻을 전했다. 또한 이 일을 잘 아는 훈도 안준경의 복직 명령이 내려져 빠른 시일 내에 복직할 터이니 잠시 기다리라고 했다. 따라서 하나부사 일행은 일단 조선 측의 거동도 시험해 보고자 이후 상황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하고 왜관 단속을 명령하는 한편, 24일 부산포를 출발해 쓰시마의 이즈하라로 퇴거했다.²⁹

그 사이 일본은 상하이 신문지와 그 밖의 중국 측 소식에 기대 조선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조선과 교섭을 재차 추진하고자 했다. 외무경은 곧바로 정원에 상신하여 조정에 미국의 여분이 있으니 이를 조선에 보내어

²⁵ 밤에 화재나 도난 등의 예방을 위해 드는 번.

²⁶ 『조선사무서』 16권 (51) 초량관(草梁館) 근무 의정(議定).

²⁷ 『조선사무서』 16권 (33) 소(宗) 씨 대관소(代官所) 인영(印影). 『조선사무서』 16권 (38) 대관소(代官所) 취급 조목.

²⁸ 『조선사무서』 16권 (37) 9월 1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신.

²⁹ 『조선사무서』 14권 (22) 9월 27일 타이슈 주재 하나부사 대승이 보내온 서신. 『조선사무서』 16권 (52) 9월 2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의 내신(來信).

양으로 이웃 나라의 황폐를 서로 구호하는 뜻을 드러내고, 음으로 양국 교제의 통로를 열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더불어 조선에 파견된 하나부사를 통해 조선 측 관리에게 조회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³⁰

정원의 결의와 대장성의 의견이 있는 뒤³¹ 외무성은 조선에 파견된 하나부사 일행에게 이번 건은 ‘정부로부터의 공식 통로[公通]를 연다는 취지로서, 그 성사 여부 등은 공식적인 것이니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종래 사무역의 상황에 응하여 쓰시마, 나가사키, 기타에서 이 기회를 타서 미곡을 운수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사사로운 통교[私通]를 성대하게 하는 기초가 되어 장래의 방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의해 천착하도록 통지했다.³²

일본 외무성은 10월에 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무성 관원을 다시 조선에 파견하고 이미 파견간 하나부사와 협의해 시행하도록 했다.³³ 이에 대해 초랑관은 다음과 같은 보고로 조선의 기근에 대해 알렸다.

제[기세이(義制)]가 전건(前件)에 관해 신중하게 숙고해보건대, 지금 조시(朝市)·입관(入館)의 상황, 야간 잠상(潛商), 기타 관내(館內) 상인들의 정태(情態)가, 요전에 보내주신 상하이 신문에서 언급한 정도의 기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지방에 따라 수확이 좋지 않음은 필연일 것입니다. 햇곡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또한 우육(牛肉) 등의 값이 등귀했을 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선편(先便)으로 말씀드린 별차(別差)가 재수(在守)에게 말을 전해서 제출한 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식 생산은 천하가 상찬한다고 할 만하며, 비록 모처에서 흉년이 들었더라도 배로 곡식을 실어

30 『조선사무서』 14권 (17) 외무경이 조선국의 대기근 구호를 상신한 글.

31 『조선사무서』 14권 (24) 정원(正院)으로부터 조선국 구호와 관련하여 대장성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온 글. 『조선사무서』 15권 (1) 외무경이 조선국의 주급(周急)에 관한 대장성 의견서의 취지에 따라 하나부사 대승을 지휘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상신서.

32 『조선사무서』 14권 (20) 9월 25일 야나기와라, 와타나베(渡邊) 두 사람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내온 서한. 『조선사무서』 16권 (46) 9월 25일 야나기하라(柳原) 대승 등이 하나부사(花房) 대승에게 보낸 서신.

33 『조선사무서』 15권 (3) 10월 4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보내고 사람으로 들고 나르게 하니, 본디 군겁(軍蹇)이라고³⁴ 할 만한 사단이 없으니, 원래 이것이 이례(已例)이다.³⁵ 또 올해는 팔도가 균형(均衡)해서 흉년이 든 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음미해 보건대, 저들이 흉년을 감추고자 했지만, 오히려 저절로 드러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팔도 안이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도가 평균(平均)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원래 이것이 이례(已例)이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니, 저들의 지방에 흉년이 든 것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³⁶

이를 정리하면, 현재 조시(朝市)·입관(入館)의 상황, 야간 잠상(潛商), 기타 관내(館內) 상인들의 정태(情態)를 살펴보고 조선에서 아사가 있다는 것은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근이라고 하는 것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작황이 좋다고도 했다. 하지만 팔도가 균형해서 흉년이 든 데가 없다는 것은 일부 지방에 흉년이 든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었다.

더불어 그동안의 조선 측과 응접한 내용도 초량왜관에서 보고했다. 먼저, 10월 23일 훈도가 동래부에 도착했기 때문에 별차 최재수를 통해 초량왜관의 외무성 소관과 9월 임소에 부탁한 3순(巡) 표민의 건, 몇 년 동안 지체된 물품을 가지고 온 것을 갖춰 제출한 구진서 등을 훈도에게 자세히 얘기하라고 했다. 더불어 개시 건과 미두를 들여보내고 파는 일 등에 대해서도 조선 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훈도는 10월 28일과 29일, 11월 4일 최재수를 통해 답변했다. 우선, 왜관의 관리들이 모두 일본 조정의 관리가 되고 물품도 조정에서 보낸 것이므로 조속히 받아야 하나, 쓰시마와 수백 년의 구의(舊誼)로 아무래도 받기 어려우니 우선 보류한다고 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쓰시마에서 보내는 때에만 수취한다고 했

34 군겁(軍蹇): 군색(窘塞).

35 이례(已例): 선례(先例).

36 『조선사무서』 15권 (17) 11월 8일 모리아마 시게루가 초량관에서 온 서신을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첨부: 10월 28일 오쿠 기세이(奥義制)로부터 모리아마 시게루에게 온 서한 및 탐색서].

다. 이에 대해 왜관 측이 세건 물품은 소 씨가 보낸 것이라고 하자, 훈도는 다시 물품은 소 씨가 보낸 것이라도 쌍방 응접 관계자 사이에 아무런 경위도 얘기하지 않고 옛 관리들이 귀국한 것이므로 이후 언제라도 옛 관리들이 건너오면 그 사람들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도리라고 했다.

다시 왜관 측은 수백 년 동안 신구 관리가 교대한 경우와 대관소는 대관소의 인장을 증명으로 하여 내외의 출납을 처리하므로 신구의 관리에 구애할 필요가 없다고 해명하고 훈도가 만약 같은 대답을 하면 서면으로 답할 것으로 요청했다. 하지만 훈도는 11월 1일 서면이 아니라 말로 별차 최재수를 통해 전달할 뿐이었다.

더불어 11월 7일에는 부산참사가 별차 최재수로 하여금 왜관 측이 이번에 비선 취허의 대선大船으로 건너왔는데, 앞으로는 종전에 쓰지 않은 송사送使 수목선水木船과 2호선의 취허로 건너올 것을 분부했다. 이는 자연히 협승協乘 등을 하였을 때 그곳에서 문정問情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부주의할지도 모르기 때문이었다.

한편, 개시의 건은 원래 세건선 무역이 있고 사무역도 이를 따르는 것이므로 지금 개시는 어려우며 예시와 별시도 모두 그때마다 조정에 아뢰어야 하므로 거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조시 건은 동래부에 한하여 상인들의 매매는 묵허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쓰시마가 주문한 쌀과 콩의 매매 건은 동래부사의 진노로 정지한 것이니 나중에 부사에게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³⁷ 어쨌든 조선 측은 외무성을 통한 신례의 교제 방식에 대해서는 거부하였지만, 쓰시마를 통한 구례의 방식은 허용하는 분위기였다.

결국 일본 측은 조선 측 훈도가 별차인 최재수로 하여금 일본의 저의를 살피고 거절하는 논리를 만들어 대관소는 없고 역원은 모두 쓰시마로 돌아갔다고 하며 ‘임소任所는 철수하고 재관在館 역원을 만나지 말라’라는 뜻을 보여 왔기 때문에 일단 응접을 지속하자고 촉구하여도 왜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임을 파악했다.

³⁷ 『조선사무서』 15권 (18) 11월 12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가 보낸 서신【2통】[참부: 초량관 한인 응접서(應接書) 발췌].

따라서 지체된 물품도 조선 측이 받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감히 다그치지 않고 서서히 훈도가 내려오면 간담하고자 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다.³⁸ 여전히 조선과의 교제는 교착 상태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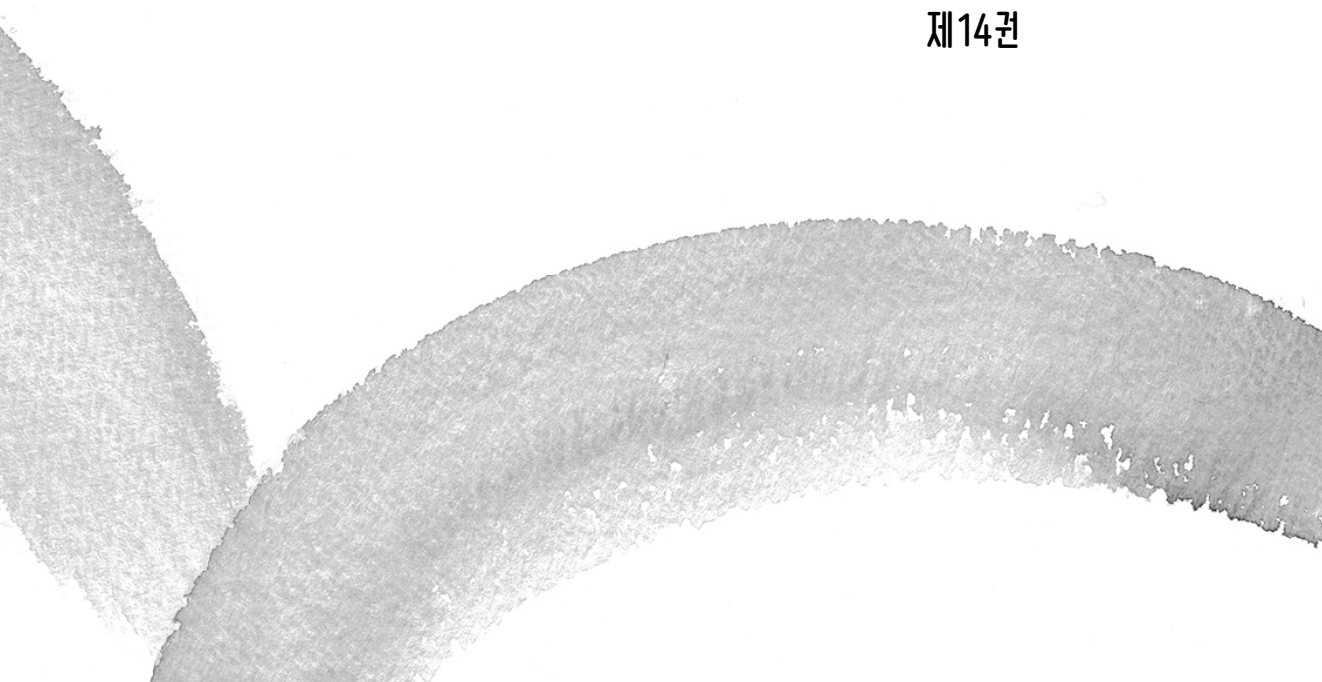
³⁸ 『조선사무서』 15권 (18) 11월 12일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가 보낸 서신【2통】[첨부: 초량관 한인 응접서(應接書) 발췌].



국역

조선
사무서
(5)

제14권



14

『조선사무서』 제14권

메이지明治 5년(1872) 9월

01 하나부사花房 대승大丞으로부터, 오사카大坂에 출장 나간 조세료租稅寮 고토 다쓰미 厚東樹臣의 서한을 첨부하여 조선에 보내는 휴대품 소목蘇木 및 칠기漆器 류의 통관通關에 관해 외무성에 보내온 서한

오사카에 출장한 조세료租稅寮 고토 다쓰미로부터 별지와 같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전에 오사카부에 의뢰한 소목¹ 이하 칠기 등 여러 물품의 목록을 등서하여 대장성에 교섭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 9월 3일

하나부사 대승

대소승大少丞 귀중

¹ 소목(蘇木): 단목(丹木)의 껍질을 벗긴 속 부분으로 한약재로 쓰인다.

첨부 고토 다쓰미의 서한

이번에 조선국에 보내는 동銅과 관련하여 별지와 같이 지령서(達書)가 도착했는데, 다른 여러 물품 수출에 대해선 다시 지령이 없으니 이는 어떻게 취급해야겠습니까? 자세한 사정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또 정부에서 보내는 용품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정부 대장성에서 지령서를 보내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요청합니다.

임신(壬申) 9월 3일

고토 다쓰미

하나부사 외무대승 님

이는 시급한 것이므로 여러 하물(荷物)은 본선(本船)에 옮겨 싣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一. 어용(御用) 동銅	12만 4,900근斤
내(內)	
황동(荒銅)	6만 900근
연동(延銅)	9,000근
정동(丁銅)	5만 5,000근

이상 총액 내(內)

3만 7,500근

단, 황동(荒銅) 중에서만.

이는 8월 28일 우선^{郵船} 유코마루^{有功丸}에 적재함. 요코하마에서 출범할 예정임.

8만 7,400근

이는 9월 초순 외무성 관원이 오사카 출약료^{出約料}에서 인수함. 유코마루에 적재하여 나가사키로 회선^{回船}한 뒤에 출범할 예정임.

02 하나부사 대승 등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 오사카에서 출범하는 일자를 외무성에 보고한 글

가을 냉기가 더해가는데, 제공^{諸公}이 더욱 청적^{淸適}하시니 봉직하는 가운데 매우 큰 기쁨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달 27일 출발한 후 이튿날 28일 시나가와에서 출범^{出帆}하고 그믐날 새벽 효고에 닻을 내려 같은 날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모리야마 소기^{少記}는 지난달 25일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일찍이 오사카부에 의뢰해둔 여러 물품도 준비가 되었으므로, 이번 달 3일 동銅을 모두 같은 선박에 적재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내일 4일 오사카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를 알려드립니다.

임신^{壬申} 9월 3일

오쿠^奥 소록^{少錄}

사이토^{齋藤} 권대록^{權大錄}

모리야마^{森山} 소기^{少記}

하나부사 대승

조선사무과^{朝鮮事務課} 귀중

03 출납료出納寮에, 동銅을 인수한 증서

기記

조선행朝鮮行

- | | |
|-----------------------------|---------------------|
| 一. 연동延銅 8정丁 ² 물건 | 9,000근 ³ |
| 一. 정동丁銅 | 5만 5,000근 |
| 一. 황동荒銅 | 2만 3,400근 |
- 이 중 1만 600근은 고베神戸에서 인수함.

이상 인수했습니다.

임신壬申 9월 3일

하나부사 외무대승

출납료出納寮 귀중

04 9월 7일 타이슈對州에 주재한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가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의 서한을 첨부하여 조선의 사정을 진술한 서신

가을 한기가 일어나는 때 외무경 공을 비롯해 여러 각하께서 더욱 건강하시니
봉직하는 가운데 지극히 기쁜 일입니다. 저는 무탈하게 근무하고 있으니 안심하
시길 바랍니다. 별지의 후카미 로쿠로의 서장書狀 1통을 올리오니 숙람熟覽하시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² 1정(丁)은 60간(間)으로 108m에 해당한다.

³ 1근(斤)은 600g에 해당한다. 일본 정부는 메이지 4년(1871) 신화조례(新貨條例)와 1891년 도량형법(度量衡法)의 공포를 통해 1문(匁)을 3.75g으로 하여 1근=160문=600g으로 확정했다.

때때로 작은 일들은 있었습니다만 8월 중순 이후로는 무언가 기별이⁴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소한 일은 일일이 보고드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관사館司 후카미 로쿠로는 8월 상순에도 아뢴 것처럼, 안팎의 적 가운데 홀로 서서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직 제가 때때로 타이르고 “조만간 도쿄에서 기별이 있을 때까지”라고 하면서 인내하도록 면려勉勵했는데, 결국 어제오늘에 이르러선 특별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니 그가 참으로 딱하고 가련합니다. 이곳에서도 점차 여러 가지 풍문이 돌리고 있습니다. 무역에 관계된 자들이 사사롭고 간사하니 실로 가증스럽습니다. 이른바 사당에 숨은 쥐 새끼와 같아서 제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모욕을 주고 출몰하면서 해를 끼치는 것이 예로부터 타이슈의 풍습[州風]이라고는 해도, 황국皇國의 위광威光에 관계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정私情에 따라 일하는 것이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마에카와 다헤前川太兵衛라는 자가 5,000금金과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의 관록官祿, 일당日當, 준비금支度料 등을 부탁받았는데, 다시 내려오지 않았으므로 오사카 부에도 서장書狀을 보냈는데 조금 늦었고, 그 후 나가사키현에 서장을 보냈는데 이것도 엇갈렸습니다. 마침내 지난달 24일 이즈하라로 복귀했는데, 금찰金札 1,000냥 1봉封은 지참했지만, 4,000금은 동銅과 기타 해기海氣⁵ 류를 구하여 조선에서 대전大錢【이는 한전(韓錢)을 그렇게 불러왔습니다】으로 건네줄 작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물품 매입대금으로 유용流用하는 것도 본성本省(외무성)에 대략 보고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날 송사선送使船도 폐지되었고, 어제오늘 기별이 내려오는 대로 일단 철수하려는 때, 이처럼 급하지 않은 물품을 구하느라 도중에 지체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도쿄에서 전부터 무역 전말의 조사를 위해 도한渡韓을 신청했습니다. 오사카부에서 관원과 차사差使가 곧 철수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크게 연착延着했으니 매사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게다가 히로세에게 전달하는 건과 관련해선,

4 기별: 외무성으로부터 왜관 철수 명령이 내려오는 것을 가리킨다.

5 해기(海氣): 견직물의 일종.

어떤 돈[金子]인지 알지 못했으므로 히로세에게 한번 건네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는 등 조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히로세의 관록과 준비금 등을 한 사람만 주지 않은 채 따로 가져오게 했을 리 없고, 당연히 소지한 용금[用金] 내에서 융통해서 수시로 다른 이와 똑같이 주었을 것이니, 결코 마에카와에게 그것을 히로세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을 리 없습니다. 이는 모두 이 사람의 거짓된 주장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실제 부탁하신 내용에 관해 7월 하순의 서신 등으로 여쭙습니다만 아직 회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돈을 수령할 도리가 없으니 어떻게 조치해야겠습니까?

후카미의 글에서 언급한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와 나카야마 기헤에[中山喜兵衛]라는 자가 관館에 머문다면 앞으로 어떤 간계를 꾸밀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가라 단조[相良丹藏]와 상의하여 내일 구번[舊藩] 구관원[舊官員] 2, 3명에게 지시하여 급히 철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이 사가라, 후카미가 동래[東萊]에 입부[入府]했을 때 조선인[外人]과⁶ 밀담을 나누었는데, 그들로부터 부사의 면회 여부에 관해 내담[內談]이⁷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면회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답을 한 사실이 얼마 전 관중館[館]에 누설돼서 관館에 있는 사족[士族]들이 크게 분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지역에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불안하므로 조속히 철수 조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관소[代官所]에 대리인[代人]을 파견해 두려고 비밀리에 인선[人選]을 했는데, 대리를 할 만한 자들은[心得候者]⁸ 모두 간사한 자들이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에카와 다헤는 본래 조사 목적으로 도한[渡韓]하는 것으로 도쿄에서 결정돼서 내려왔으니, 비록 전술한 것과 관련하여 부탁금[付託金]의 부적절함은 있지만, 해당 물품도 있으므로 일단 잘 설유[說諭]하여 도한[渡韓]을 허락하려고 생각합니다.

⁶ 외인(外人): 여기서는 조선인을 가리킨다.

⁷ 내담(內談): 은밀한 이야기.

⁸ 원문의 “心得候者”는 하급자가 임시로 상급자의 직무를 대리할 때의 명칭이다.

니다. 이는 오래 붙잡아 두기는 어려우므로 일시적인 권의權宜에 따른 것으로 생각 해주시길 바랍니다. 근일 내 기별을 내려주시길 목을 빼고 기다립니다.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 건은 재수在守와⁹ 상의해서 연한年限의 국의國議를 정할 때까지, 예전에 송사선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 것은 8월 상순까지 채용할 도리가 없음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합의의 오의奧意는, [교섭의] 단절을 꺼리는 저들의 심정이 드러난 증거라는 데 있습니다. 또 우라세의 위정僞情은¹⁰ 모리야마로부터 이미 청취하셨을 것으로 생각되니, 모쪼록 결론을 급히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를 이대로 상경시키는 방법도 8월 상순에 말씀드렸습디만, 이렇게까지 간사한 자도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나카야마 기헤에中山喜兵衛, 최재수와 세 사람이 내의內議한 내용에 조금 간사한 형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후카미가 사가라에게 말한 것도 있으니, 이 사람은 면직 처분을 내려주시길 우러러 청합니다.

아라카와 긴스케荒川金助라는 자를 한어학韓語學 교수教授로 채용할 것을 말씀드린 후 차츰 면회하여 시험해 보았는데, 대단히 올곧은 인물로서 통변通辨¹¹도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보다 뛰어나고 한학도 조금 갖추었습니다. 히로세 나오유키를 제외 하면 이 사람이 유일합니다. 비록 옛 타이슈의 외부 사람이지만 적합한 인물로 보입니다. 단, 작년에 과격한 태도로 한인을 두렵게 한 뒤로 은밀하게 활동하여 평이 좋지 않습니다. 이번에 현縣에서 통사通詞를 폐지하기 전에는 대통사大通詞라는 직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현에서 새로 고용한 5명 중 1명으로서, 고용하신다면 반드시 장래 공무御用에 도움이 될 것이니 12, 13等等 출사出仕에 임명해주시길 간청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재수在守의 적수敵手로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후카미 로쿠로는 온순한 성격으로 일이 상당히 복잡할 때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재주라고 할 것은 없지만, 부디 그 노고를 생각해서 외무성에서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⁹ 재수(在守): 당시 왜관에서 소통사(小通事)로 근무하던 최진한(崔震翰)을 가리킨다.

¹⁰ 위정(僞情): 진실되지 못하고 남을 속이는 거짓된 마음.

¹¹ 통변(通辨): 통역(通譯).

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이가 진력하는 자들을 빼놓지 않고 발탁하는 것으로 생각할 것이니, 그들을 면려勉勵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후 왜관의 철수와 관련 해선 어떤 분부를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관사館司 등을 종전대로 놓아두시는 경우 후카미는 이미 동래부에 들어간 뒤로 조선인들과 저항도 있으니 그대로 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착수하는 방법, 그리고 이 사건을 취급하는데 경중輕重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의 편부便否에 관해 아뢰니다.

8월 15일자 모리야마 씨의 서장書狀이 8월 29일에 도착해서 열어보았는데, 그가 소기少記에 임명되었고, 저도 같은 분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서장書狀이 도착하는 대로 그 자격으로 근무하라는 문면文面の 가키츠케書付는¹² 배견拜見하지 못했습니다만, 그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니 어리석은 저로선 너무나도 황송하여 진퇴進退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서장에는 그도 다시 내려가라는 내명內命이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이 분명치 않지만 있었으니, 금일 결국 그가 도착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한 뒤에야 배명[御受]을 아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서장의 내용에 따르면, 이 글이 도쿄에 도착할 즈음에는 모리야마 씨도 그곳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아직 도쿄에 있다면, 부디 관사館司의 정실情實을 그에게서도 자세히 청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후카미의 서장書狀이 이제야 도착했으므로, 파발 통사通詞 오다 한지小田判治에게 자세히 물어보고 우선 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신申(1872년) 9월 7일

히로쓰 히로노부

조선왕복과朝鮮往復課 귀중

¹² 가키츠케(書付): 에도시대 쇼군과 로주의 명령을 전하는 공문서.

지난달 9일자 서장書狀이 같은 달 28일 밤에 도착하여 삼가 배견拜見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불편하신 모양이니 황공합니다. 오직 모쪼록保重하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인편으로 보내신 「표민인원서漂民人員書」와 「금학생대열의서金學生大悅ノ書」를 배견했습니다. 이 표류민[漂民]의 인원은 한국 당국[外向]에¹³ 통지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기사부로喜三郎에게 건네주면서, 한국 당국에 통지할 때 호송과 인도 방법 등을 상의하다가 시기를 봐서 또한 응대應對까지 시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재수在守에게 응대를 언급했는데, 어찌 되었든 예전부터 주장한 것처럼 설령 표류민이 죽는 한이 있어도 선규先規에서 벗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부터 별차와 신역新役이 임소任所에 내려온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지난 달 28일 재수在守가 별차의 도입到任을 통사通詞들에게 통지했습니다. 다음 날인 29일 선례대로 신청서를 보내 관館에 오고, 모든 일을 선격先格대로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관사館司에게는 전혀 부임 인사도 하지 않은 채 통사通詞 가운데 우변右邊하고만¹⁴ 대충 응대했습니다. 별차別差가 답하길, “이미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관사館司는 입부入府한 이후 한국 당국에서 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관사를 계승하는 것은 일대관一代官이므로 그를 관사로 간주한다. 따라서 대소경중大小輕重의 용무들이 일대관에게 말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하나도 관사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고, 성명서性命書 등도 저에게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는 소통사小通事 등이 말했는데, 공공연하게 임관任官 신분이 이처럼 주장하는 것은 더욱 그 의도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심문尋問하려고 했지만, 안팎으로 사전에 입을 맞추었을[切組]¹⁵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응대할 때 갖가지 변설

¹³ 한국 당국[外向]: 본래는 ‘외부’의 의미지만, 여기선 한국 당국을 가리키는 말로 쓰였다. ‘외인(外人)’도 마찬가지로 조선인을 뜻한다.

¹⁴ 우변(右邊): 미상이다.

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심문하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하고, 특히 응답의 결말에 따라선 또한 간단치 않은 상황이 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본디 특별히 놀랄 일이 아니라서 이 정도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각오를 하였고, 또 큰일을 앞두고 있었으므로 저들이 바라는 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훗날 유리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실로 내외의 이목에 적절치는 않으나, 충분히 응대하지 않은 채로 마쳤습니다.

이 한 가지 사단뿐 아니라, 이미 아시는 대로 8월 피안절(彼岸節)에는 고관(古館)에 성묘가는 일이 있는데, 한국 당국에서 이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임관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우란분(盂蘭盆)도¹⁶ 마찬가지로 중단한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신속히 승인(承旨)하고 고관 성묘를 보류할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두 번이나 중단한 것은, 본디 지엽적인 일이긴 하나, 최근 관내(館內)의 동태가 상인(商人) 중에서 한국 당국과의 거래(取遣)에 관련된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평일(平日) 조선인과 면담할 것도 없이, 이 사일(社日)을¹⁷ 목적으로 한 것이니 그 정실(情實)도 묵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에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일단 회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아무튼 그쪽에서 소통사(小通事) 등이 미봉(彌縫)하도록 통사(通詞)를 시켜서 전했습니다. 단, 저쪽에서 강박(強迫)한다면 신청한 대로 처리한다는 생각으로 전달을 보류한 채 피안절 전날 저녁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뒤로 어떤 말도 없었으므로 우리가 주장한 대로 승복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날 저녁에 고관 성묘를 허락한다는 것을 지시했는데, 이 지시는 곧장 관중(館中)의 일대관(一代館)을 통해 공포되었고, 그 경위는 기배를 통해 한국 당국에도 은밀히 알려졌다고 합니다. 그날 한밤중에 소통사(小通事) 일동이 입관(入館)해서 다시 통사(通詞)를 통해 중단을 신청했으므로, 결국 신청한 대로 허용

¹⁵ 원문의 기리쿠미(切組)는 건축 등에서 정해진 치수와 모양으로 잘라 조립하는 일이나 연극의 칼싸움을 말한다.

¹⁶ 우란분(盂蘭盆): 불가(佛家)에서 매년 음력 7월 15일에 선조(先祖) 및 생존한 부모의 고통을 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음식을 정만해서十方(十方)의 불승(佛僧)들에게 베푸는 불사(佛事). 우란분회(盂蘭盆會)라고도 한다.

¹⁷ 사일(社日): 입춘과 입추가 지난 후 가장 먼저 오는 무일(戊日). 전자를 춘사(春社), 후자를 추사(秋社)라고 하며 각각 곡식이 잘 자라길 기원하고, 또 곡식의 수확에 감사한다.

해주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한국 당국과 결탁[合體]해서 지시가 내리길 기다렸다가, 곧장 그들과 내통하여 이것저것 신청함으로써, 의도적으로 내부[內輸]의 문제를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형상은 필경 시게타로茂太郎과 기혜에 2명의 간계에서 나온 것인데, 그중에서도 기혜의 행태가 최근에 더욱 심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천한 신분으로 양측의 대체大體를 해치고 있으니, 그 죄를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점차 내유內諭하신 바도 있으므로, 일신의 치욕은 반드시 인내하면서 추호도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별차別差의 상황으로는, 지금 제가 대면하는 것이 마땅치 않음은 물론, 공무[御用]를 논변[組合]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매우 염려가 됩니다. 이는 때때로 지휘를 임기응변의 조치를 하더라도, 실로 어떤 곡절을 빚을 것인지, 앞으로의 공무에 해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내부의 여러 간사한 자들이 누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극히 쉽지 않은 한 가지 풍문도 들은 것이 있지만, 글로 쓰는 것은 조심스러우니 즉시 별도의 밀서密書로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미는 자연히 관중館中이 모두 논평하므로, 전술한 두 사람의 사간私奸에 주목하고 귀담아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별차가 공공연히 관사館司 운운한 것과 다른 일들에 관련하여 관館에 있는 사족士族들이 크게 분노해서 일대관의 생각을 심문尋問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 바이니, 미처 적지 못한 행간을 환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지난번 대관소代官所 전체에 곡척曲尺을 합해 내유內諭하신 것에 감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천한 1명의 경우에는, 그대로 지시한다면 실로 천금과도 바꾸기 어려운 큰 손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최근 구관舊官 사가라相良에게도 자세히 글을 써서 보냈으므로, 구관에게서도 권의權宜에 따른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자연히 여쭙는 것도 있을 것이니, 앞의 내용을 모조록 현명하게 고량考量하시고, 제반 사안에 관해 타당한 지휘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통사通詞 오다 한지가 인원 감축으로 현縣에 복귀하려고 계획하기에, 그때 글을 바치도록 부탁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아직 현지를 실제로 견문하지 못했

으므로 자세한 것은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수영水營과 부산의 새 관리가 지난달 13일 내려왔다고 함.
- 신新 별차 성명 대유大有 현玄¹⁸ 첨지僉知 당상관堂上官이라고 함.
- 글의 말미에 적습니다만, 지난번 서장書狀을 보냈을 때 유수留守에게 고지告知 해주신 후정厚情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9월 초하루

후카미 로쿠로

히로쓰 히로노부 님

05 하나부사 대승 등이 바칸馬關에서, 효고兵庫에서 출범한 후의 보고서

이번 달 3일 오사카에서 동銅과 칠기漆器, 그리고 다른 물건들을 남김없이 유코마루有功丸에 적재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4일 저희는 효고로 가서 가스가함春日艦에 탑승하여 6일¹⁹ 새벽에 출항했습니다. 같은 날 밤, 빈고備后 도모노우라瀬の浦 근방에 닻을 내리고, 다음 날 6일 아침 6시 출항해서 밤 10시경 조슈長州 미타지리三田尻 앞바다에서 체박滯泊하고, 7일 아침 6시에 다시 닻을 올려 10시 바칸馬關 앞바다에서 닻을 내렸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식료품 매입을 마무리하면, 내일 8일 요부코우라呼子浦로 선회해서 석탄을 적재하고, 모레 9일 타이슈를 향해 출발할 예정입니다. 유코마루에는 사이토齋藤·오쿠奥·우라세浦瀬 등이 탑승했는데 아마도 오늘 나가

¹⁸ 원문은 ‘大有去’로 기록되어 있다.

¹⁹ 원문은 ‘六日’로 되어 있으나, ‘五日’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사키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마침 그곳에 가는 인편에 맡겨 알려드립니다. 저 지역[조선]에 도착한 후 자세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신(1872년) 9월 7일

모리야마 외무소기(外務少記)

하나부사 외무대승(外務大丞)

외무성 귀중

06 야나기와라(柳原)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바칸 출범의 경과를 알았다는 내용으로 보낸 서신

이번 달 7일 바칸(馬關)에 배가 도착해서 식료품 등을 적재했으며, 다음 날인 8일 요부코우라(呼子浦)로 선회하여 석탄을 실은 다음에 타이슈로 출범할 예정이며, 유코마루에는 사이토 등이 승선하였고, 나가사키에 7일경에 도착했다고 알려 주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임(1872년) 9월 8일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소기 님

07 9월 10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이곳은 예상한 것보다 더 추운 기운이 있는 데다가 연일 비가 내리고 있는데, 그곳은 어떠신지요. 제위가 더욱 장영壯榮하실 것이니 근무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듯합니다. 또 하나부사 군 이하의 바닷길이 무양無恙하게 조선에 도착할 것을 축원합니다.

- . 청국 이사관理事官 진복훈陳福勳이 금일 12일²⁰ 미국 우선郵船에 승선해서 되찾은 인민 100여 명과 함께 귀향할 계획으로, 이번 달 5일 도쿄를 출발해서 요코하마로 건너갔습니다. 시나가와品川 영사가 그곳까지 동행하여 부임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은 그가 출발한 다음에 모두 정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 . 류큐인 37명이 이번 달 2일 도착해서 아타고시타愛宕下²¹ 모리毛利 저택에 머물고 있습니다. 근일 참내參內가 있을 것이니, 이를 마치는 대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명단 및 관계 관원의 인명만 보내드립니다.
- . 이번 달 9일에 신바시역이 개통됐습니다. 당일 축하식의 성대한 거행은 글로 이루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대략적 내용을 인쇄[上梓]한²² 개행식開行式 1부를 보내드리니, 이것으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 . 이번 달 4일 대장성 3등출사 우에노 가계노리上野景範가 본성本省(외무성) 3등출사에 임명됐습니다. 육군 소장 이다 유즈루井田讓가 영사에 임명되어 청국 북주福州 근무의 명을 받았으므로, 서서히 출범할 예정입니다.
- .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 【63·64·65·66】 이상 4책

외 포고【253호】

²⁰ 원문은 ‘本日’로 되어 있으나, 이 보고서의 발송일이 10일이므로 ‘本月’의 잘못으로 보인다. ‘十二日’ 또한 문맥상 ‘二日’의 오기로 의심되나, 우선 원문대로 옮겼다.

²¹ 아타고시타(愛宕下): 현재 일본 도쿄 미나토구(港区) 신바시(新橋)에서 니시신바시(西新橋)에 이르는 지역으로 다이묘들의 저택이 많이 있었다.

²² 원문의 조보쿠(上木)는 상재(上梓)와 같은 말로, 서적 등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一. 『요코하마신문 横濱新聞』 【8월 29일·30일·9월 2일·3일·4일·5일·6일】 이상 7장

이상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후편 後便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壬申(1872년) 9월 10일

야나기와라 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소기 님

히로쓰 소기 님

첨부 조선에 온 류큐인의 인명 人名과 그에 관계된 관원 인명록

가고시마현 鹿兒島縣 권참사 權參事

시하라 요에몬 椎原與右衛門

류큐 사신의 접대를 명함.

외무성

동현 同縣 권전사 權典事

미기마쓰 고스케 右松吾助

위와 같음. 권대속 權大屬

곤도 히로시 今藤宏

위와 같음. 사생 史生

우에무라 히코시로 上村彦四郎

가마타 이치베 鎌田市兵衛

류큐 사신의 접대를 분부함.

임신 壬申 9월 4일 외무성

【가고시마현 선중(船中) 인솔(差引)] 가마타 이치베

【위와 같음. 의사(醫師)] 미나미 나카자에몬 南仲左衛門

【위와 같음. 사부(使部)] 히로세 류자에몬 平瀬龍左衛門

【위와 같음. 졸(卒)] 다케시타 마고사쿠 竹下孫作

【류큐관(琉球館) 기키야쿠(聞役)²³] 사토무라 도다유리 村藤太夫

【데다이(手代)²⁴] 오가와 세이치로 小川精一郎

【위와 같음] 구로키 신베 黒木新兵衛

【위와 같음] 이케다 유에몬 池田勇右衛門

본성本省 관원 류큐괘琉球掛り

미야모토宮本 대승

와타나베渡邊 소기

이지치 소노조 伊地知壯之允²⁵

²³ 기키야쿠(聞役): 메쓰케(目付)의 별칭.

²⁴ 데다이(手代): 에도시대 군다이(郡代)·다이칸(代官)·부교(奉行) 등에게 소속되어 잡무를 보던 하급 관리.

소에다副田 중록
호리에堀江 소록
우에야나기上柳 소록

이외 등외等外の 사람

9명

이에伊江 오지王子
기노완宜野灣 우에카타親方²⁶
기안喜屋式 파이킨親雲上²⁷
야마사토山里 파이킨
오나가翁長 파이킨
요세다與世田 파이킨
우에즈上江洲 파이킨
이하伊波 파이킨
나카미네仲嶺 파이킨
야스다安田 파이킨
히가比嘉 파이킨

²⁵ 이지치 소노조(伊地知壯之允): 막말 사쓰마 번사로서 내무성 관료 등을 지낸 이지치 사다카(伊地知貞馨, 1826~1887)를 가리킨다. 그는 1882년 번(藩)의 명으로 이름을 소노조(壯之丞)로 고쳤다. 원문의 ‘壯之允’은 오기이다.

²⁶ 우에카타(親方): 류큐의 관리 품계 중 하나.

²⁷ 파이킨(親雲上): 류큐의 관직명 중 하나로, 그 위로는 우에카타, 아래로는 사토노시(里之子)가 있었다. 정3품에서 종7품까지 해당한다.

기시아바喜舎場 지쿠도노筑登之²⁸

하나구스쿠花城 사토노시里之子

오야토마리親泊 사토노시

마카베眞壁 사토노시

도요무라豊村 사토노시

도마當眞 지쿠도노

나칸다카레仲村渠 지쿠도노

야카비屋嘉比 지쿠도노

마쓰시마松島 시子²⁹

나카조네仲家根 시

나카야마仲山 시

아가리에東江

미야구스쿠宮城

시마부쿠島袋

나카모토仲本

비세備瀬

시마부쿠嶋袋

가나구스쿠金城

마타요시又吉

아라카키新垣

구니요시國吉

요나미네與那嶺

²⁸ 지쿠도노(筑登之): 류큐의 관직으로, 사토노시(里之子, 里主)의 다음이다.

²⁹ 일반사족(一般士族)의 위계 중 하나로, 후다이(譜代) 자체 가운데 관위가 없는 자를 말한다.

지넨_{知念}

미야구스쿠_{宮城}

나카소네_{仲家根}

이상 상_上 3인, 중_中 22인, 하_下 12인 도합 37인

08 외무경이 조선에 보내는 휴대품, 소목_{蘇木}, 기타 물품의 목록_[別記]을 첨부해서 오사카항 통관에 관해 이노우에_{井上} 대장대보_{大藏大輔}에게 보낸 조회서

조선 무역은 예전부터 이즈하라현_{巖原縣}에 위임해왔는데, 삼체_{澁滯}한 별지의 물품을 이번에 정부에서 모두 상각_{償却}하게³⁰ 되었습니다. 그 물품은 당성_{當省}(외무성) 관원 하나부사 대승 등이 며칠 전 동소_{同所}로 발선_{發船}했을 때, 오사카부에서 조달해서³¹ 적치_{積置}했습니다. 당시 귀성_{貴省}(대장성)에서 출장 나온 조세료租稅寮에게도 이 일을 설명했는데, 그는 이것이 정부의 관용물_[御用品]이라면 귀 성에서 다시 지시를 받길 바란다고 신청했습니다. 이제 귀성에서 이상의 내용으로 명령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별지의 품목 사본을 첨부합니다. 이를 요청합니다.

임신_{壬申}(1872년) 9월 14일

³⁰ 상각_(償却): 빌린 돈 등을 갚는 것. 상환_(償還), 변제_(辨濟).

³¹ 원문의 ‘調進’은 주문에 응해 물품을 갖추어 보낸다는 뜻이다.

첨부 소목蘇木 및 기타 물품 목록

소목蘇木	8,128근斤
호승胡桤	4,800근
명반明礬	2,650근
마키에다이츠키蔴繪臺付 ³² 큰 벼룻집[硯箱]	21개
위와 같음. 중간 벼룻집	7개
위와 같음. 중간 둥근 쟁반[丸盆]	5묶음[束]
와와 같음. 큰 둥근 쟁반	1묶음
위와 같음. 료시料紙 ³³ 상자	14개
마키에 큰 찬함[重箱]	26개
위와 같음. 중간 찬함	13개
위와 같음. 마구라가케枕掛 벼룻집	2개
위와 같음. 문고文庫	2개
위와 같음. 의항衣桁 ³⁴	1각脚
이에이리 7촌 거울家入七寸鏡	24면面
위와 같음. 8촌 거울	4면
흑도문고黑塗文庫 ³⁵	1개
금병풍金屏風	1쌍
문지紋紙 ³⁶	3,200매

³² 마키에다이츠키(蔴繪臺付): 마키에는 일본 고유의 칠공예로서 옷칠 위에 금이나 은가루를 뿌리고 무늬를 그려 넣은 장식을 말하며, 다이츠키는 물건을 올려 놓는 대 또는 대처럼 보이는 것이 붙은 것을 말한다.

³³ 료시(料紙): 용지.

³⁴ 의항(衣桁): 헛대, 옷을 걸 수 있도록 만든 막대.

³⁵ 흑도(黑塗): 검은 칠을 했다는 뜻.

³⁶ 문지(紋紙): 무늬를 넣어 만든 종이.

흑도수촉黑塗手燭³⁷ 14본本

당철唐鐵 53정挺

도노銅野 후로風呂³⁸ 1개

위와 같음. 3개 이레코入子³⁹ 데아라이手洗⁴⁰ 1조組

주간연기朱竿煙器 560본

주朱⁴¹ 8근

주석 덴모쿠[錫天目]⁴² 1묶음

이상과 같습니다.

09 이노우에 대장대보가, 조선 표류민 처분 및 통사通詞 고용에 관한 가가와香川 사가현

佐賀縣 참사參事の 우카가이쇼伺書⁴³를 첨부하여 보낸 조회서

한국 표류민 호송 절차 및 비용에 관해 별지와 같이 사가현佐賀縣에서 신청했습니다. 이미 타이슈 일국은 나가사키현의 소관으로 한다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표류민 취급은 당연히 나가사키현에 인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책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구장具狀한⁴⁴ 내용에 따르면, 현재 상황은 직접 한국에 보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대로 시일을 보내면 표류민이 고국을 그리워할 것은 말

37 수촉(手燭): 짧은 자루를 붙인 촛대.

38 후로(風呂): 칠기(漆器)를 넣어서 말리는 상자.

39 이레코(入子): 모양이 같지만 크기가 다른 것 여러 개를 큰 것부터 차례로 넣도록 만든 기물(器物). 상자, 냄비, 찬합 등에 있다.

40 데아라이(手洗): 손을 씻는 물을 담은 그릇. 대야.

41 주(朱): 주홍색 안료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는 붉은 먹(朱墨)을 ‘朱’로 쓰기도 한다.

42 덴모쿠(天目): 다도에서 쓰는 작은 원형의 찻잔.

43 우카가이쇼(伺書): 상부에 지시를 구하거나 의견을 문의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

44 구장(具狀): 상세하게 사정을 서술한 문서.

할 것도 없고, 그에 따라 체재 실비⁴⁵도 발생해서 여러 가지로 부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조속히 한지^{韓地}에 조송^{漕送}시키길⁴⁶ 바랍니다. 또 그 비용에 관해선, 이미 초량관의 비용으로 지난번에 5,000엔을 건네주었으니 우선 그 금액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초량관 경비의 개산^{概算}도 정리할 것이니, 이번에 사가현에서 일시 전용^{操替}하여⁴⁷ 지불한 비용은 추후 귀 성^省에서 인수하도록 지시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통사^{通詞}의 고용 등에 관해선, 이미 귀성^{貴省}(외무성)의 품의^{稟議}에 따라 이즈하라에 예전부터 설치한 한어학교^{韓語學校}를 1년 300엔 예산으로 그대로 개교했으므로, 이제 와서 따로 고용하긴 어렵습니다. 기타 절삭^{節朔}에⁴⁸ 표류민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는 옛 규칙^{舊規}은 교의^{交誼}를 개찬^{改撰}할 때 당연히 일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사가현의 신초^{申牒}에⁴⁹ 대해 당장 지령^{指令}할 것이니 자세한 계획을 급히 회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유의하십시오.⁴⁹

임신^{壬申}(1872년) 9월 14일

이노우에 대장대보

소에지마 외무경 님

추신. 별지는 반각^{返却}하시길⁵⁰ 바랍니다.

나가사키의 관할이 된 이상 물론 표류민 송환 등의 비용은 그 현에서 지불해야 하지만, 당장은 지난번에 수령한 5,000냥으로 지불해도 지장은 없을 것이다. 통사

⁴⁵ 조송(漕松): 배로 수송함.

⁴⁶ 조체(繰替): 용도가 정해진 비용을 일시 전용한다는 뜻이다. 원문은 '操替'로 되어 있다.

⁴⁷ 절삭(節朔): 주요 절기와 초하루.

⁴⁸ 신초(申牒): 관공서 등에서 어떤 사항을 문서로 통고하는 일.

⁴⁹ 원문의 쇼칸(照管)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인다는 뜻이다.

⁵⁰ 반각(返却): 접수하지 않고 반송함.

通詞 문제는, 최근 결재를 받은 학교 개설이 성사된 뒤이니 고용하기 어렵다. 표류민에게 절삭節朔에 술과 안주 등을 하사하는 것은 일소一掃하더라도, 현縣의 지방관원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려주는 축일에는 은경恩慶을 보이기 위해 하사하도록 조치할 것. 이 글도 등서騰書해서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⁵¹

첨부 가가와 참사가 이즈하라^{磯原} 출장소에서 제출한 서류를 첨부하여, 한인 표류민의 처분에 관해 대장성에 올린 우카가이쇼

표착^{漂着}한 한인의 처리에 관한 비용을 여쭙

표류한 한인의 처리 방법에 관해선 일찍이 분부도 있었습니다. 기요^{崎陽}에서⁵² 이즈하라까지 호송하는 것은 나가사키현에서 처리하고, 이즈하라에서 한지^{韓地}로 보내는 것은 예전처럼 하는 것으로 명심하되, 그곳 왜관으로 출장 나간 외무성에 인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나가사키현과 다른 곳에서 보낸 표류민을 이즈하라에서 수용한 후, 한지^{韓地}에 호송하는 제반 비용을 제이상비^{第二常備}에서 입체^{立替}⁵³ 지불하고 그 명세서를 출장 나온 외무성 관원이 곧장 인수해서 처리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자세한 내역을 아뢰면 귀성^{貴省}(외무성)에서 전부 지급하는 것인지 불확실합니다. 또한 합병하기 전에는 이즈하라 무역서^{貿易署}의 이름을 남기고 그 이윤 내에서 지불해 왔는데, 이제 외무성이 지휘한다면 당연히 그 전철을 답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의 분부에 따라 예전처럼 처리한다면 명의^{名義}가 같지 않은 등, 표류민 처리가 현장의 실제 사무에 맞지 않아 부적

⁵¹ 이노우에 가오루 대장대보가 보낸 본문에 대해 소에지마 외무경이 부전(附箋)으로 의견을 기록한 내용이다.

⁵² 기요(崎陽): 나가사키(長崎)의 별칭.

⁵³ 입체(立替): 남을 대신해서 대금을 치르는 것. 선대(先貸).

절할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처리해야겠습니까? 급히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별지로 통사通詞 고용에 관한 우카가이쇼伺書 및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보낸 서류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이를 여쭙니다.

임신壬申(1872년) 7월 30일

사가헌 참사 가가와 다다다케香川忠武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 님

첨부 표류민 두 차례[二巡]에 지급한 미·전錢과 그에 해당하는 비용 등

각覺

- 一. 백미白米 3되[升]
- 一. 정전丁錢 626문文

【쓰쓰고(豆酸郷) 쓰쓰무라(豆酸村)⁵⁴에 조선인 1인 표류민이 임신(壬申) 4월 13일 도착하여 그날부터 15일
까지 2박 3일의 경비[賄料]. 하루 1인당 백미(白米) 1되, 정전(丁錢) 208문 5보(步)씩 지급함. 정식(定式)이
이와 같음】

- 一. 백미 5되 8홉 5작[勺]⁵⁵

내內

- 9홉【4홉 5작씩】 동촌同村 향사郷土 모토이시 조스케本石庄助 상하 2인
- 4홉 5작 동촌 졸卒 나가오 히라요시永尾平吉
- 4되 5홉【위와 같음】 쓰쓰무라 수부水夫 10인

⁵⁴ 오늘날 쓰시마시 이즈하라초(厳原町)의 남서부에 있던 마을.

⁵⁵ 에도시대 1섬(石, 고쿠)은 약 180리터 정도로, 쌀 1섬의 무게는 약 140~150kg 정도였다. 그리고 1섬은 10말(斗, 토),
1말은 10되(升, 쇼), 1되 10홉(合, 고), 1홉은 10작(勺, 사쿠), 1작은 10재(才, 사이)에 해당한다.

【표류민 1인이 이즈하라에 건너갔으므로 동촌(同村)에서 표류민 경위(警衛)로 태운 자들의 음
료수, 쌀을 제공한 분량】

一. 동同. 8말 1되

一. 정전丁錢 16관貫 889문文

【쓰쓰무라 표류민 1인이 신(申, 1872) 4월 16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일수(日數) 81일, 하루 1인당 백미 1되,
정전 208문 5푼(分)씩 제공함】

一. 동同. 360문 백반지白半紙 2첩帖

一. 동同. 180문 흑반지黑半紙 2첩

一. 동同. 300문 붓[筆] 2자루[本]

一. 동同. 700문 먹[墨] 1개[挺]

【이상은 표류민 문정용(問情用)의 분량임. 숙박비를 지급함】

一. 동同. 8관 100문 목면木綿 2필

【이상은 표류민이 나체로서 의복과 소지품이 변변치 않아 의복을 만들도록 제공함】

一. 동同. 1관 710문 시치지마七嶋 1매枚

一. 동同. 1관 800문 수통水桶 1개

一. 동同. 3관 600문 솥[飯鍋] 1개

一. 동同. 3관 200문 냄비[汁鍋] 1개

一. 동同. 280문 찻그릇[茶碗] 2개

一. 동同. 1관 800문 쌀 씻는 그릇[米洗桶] 1개

一. 동同. 450문 오이[菰] 1개

一. 동同. 54문 가리비 국자[貝杓] 1개

一. 동同. 63문 국자[杓子] 1개

一. 동同. 63문 국자[柄杓] 1자루[本]

一. 동同. 950문 식칼[庖丁] 1자루[挺]

【쓰쓰무라 표류민 1인에게 가구[世帶] 도구로 제공한 분량이 이와 같음】

一. 동同. 955관 994문

내內

933관 750문

【신(申, 1872) 2월 18일 나가사키에서 승선한 후 5월 11일경 이곳에 도착하기까지 총 일수(日數) 83일, 하루 1인당 금(金) 2주(朱)씩 여비[旅籠]로 제공한 것이 이와 같음】

8관 964문

【일수(日數)는 위와 같음. 기자미타바코(刻烟艸) 하루 1인당 무게[掛目]⁵⁶ 2몬메(匁)씩으로⁵⁷ 하고, 하쿠메(百目)⁵⁸ 당 600문(文)으로 환산함】

13관 280문

【위와 같음. 종유(種油) 하룻밤 4작(勺)씩으로 하여 3되 3홉 2작. 1되가 정전(丁錢) 4관문(貫文)에⁵⁹ 해당】

【가고시마 표류민 선중(船中)에서 제공한 비용. 줄(卒) 오다 기치로(小田吉郎)가 견적을 내서 보낸 분량이 이와 같음】

一. 정전丁錢 711관 300문

【경고졸(警固卒)⁶⁰ 오다 기치로, 이노 쓰네스케(井野常助)】

1인 금 35냥 2보步 1주朱와 25문⁶¹

내內 13냥 2보步 3주朱

【일당(日當) 73일본, 하루 1인당 금 3주(朱)씩】

21냥 3보 2주와 25문

【선중(船中) 여비는 위와 같음. 영(永) 350문씩】

一. 동同. 75관문貫文

⁵⁶ 괄목(掛目, 가케메): 저울에 단 무게.

⁵⁷ 몬메(匁): 일본 고유의 전통적 무게 단위로 약 3.75g에 해당한다.

⁵⁸ 하쿠메(百目): 375g에 해당하는 무게.

⁵⁹ 관문(貫文, 칸문): 1,000문(文, 몬)에 해당한다.

⁶⁰ 경고(警固): 경비(警備).

⁶¹ 에도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는 1601년 크기와 무게, 금·은의 함유량 등을 통일한 오반(大判), 고반(小判), 이치분킨(一分金), 초킨(丁銀), 마메이타긴(豆板銀) 등 5종류의 금·은화를 발행했으며, 이어서 1636년 제3대 쇼군 이에미쓰(家光)에 의해 금·은·동으로 구성된 삼화제도(三貨制度)가 확립됐다.

금화 1냥(兩, 료)은 고반(小判) 1매를 기준으로 했으며, 1냥은 4분(分, 부), 1분은 4주(朱, 슈)의 4진법의 단위로 표시했다. 은화는 무게로 그 가치가 정했으므로 무게 단위인 관(貫, 칸), 문(匁, 몬메), 분(分, 훈)으로 표시했다. 그리고 동전의 단위는 문(文, 몬)으로, 1,000문을 1관문으로 했다.

여기서 분(分)은 금화의 단위로 읽을 때는 ‘부’로, 은화의 단위로 읽을 때는 ‘훈’이라고 읽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 금화의 ‘분(부)’은 ‘보(步)’로, 은화의 ‘분(훈)’은 ‘토(ト)’나 ‘분(分)’이라고 구별해서 쓰기도 했다.

【졸(卒) 오다 기치로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일수(日數) 25일, 체류[逗留居] 여비는 1일 영(永) 300문
씩으로 함】

一. 동同. 48관 750문

【위 사람이 나가사키로 복귀할 예정이므로, 6월 7일부터 도착 일수 10일분의 선중(船中)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 것】

내內

18관 750문

【일당(日當) 1일 금(金) 3주(朱)씩】

30관문 貫文

【선중(船中) 여비 1일 영(永) 300문씩】

一. 동同. 150관문

【표류민 9인 승선. 선박 1척의 차입 뱃삿】

一. 백미白米 4섬 5말

一. 정전丁錢 93관 825문

【신(申, 1872) 5월 11일 이곳에 도착, 이튿날 12일부터 7월 2일까지 총 일수(日數) 50일. 하루 1인당 제공
한 금액은 앞에 적음】

一. 동同. 44관 550문 목면木綿 4필 반半

【이는 표류민 9인에게 의복용으로 제공한 분량임】

一. 동同. 15관 390문 시치지마七嶋 9매

一. 동同. 63문 국자 1자루

一. 동同. 54문 가리비 국자 1자루

一. 동同. 700문 찻그릇 5개

一. 동同. 450문 오이 1개

一. 동同. 225문 미소코시味噌瀝⁶² 1개

【가고시마 표류민 9인은 나가사키에서 대략 가구[世帶] 도구를 지급했는데, 손상되어 교체를 희망하였으
므로 이상의 물품을 제공함】

⁶² 미소코시(味噌瀝): 첩바퀴 바닥에 대발이나 망을 대어 된장을 거르는 도구.

一. 백미 3말 7되

【표민가(漂民家) 소사(小使) 1인당 4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하루 5홉의 급미(給米)임】

一. 정전丁錢 10관 800문 표[笱] 6매

一. 동同. 3관 240문 삼나무[杉] 6자루

一. 동同. 5관문 날품[日雇] 2인

【표류민 주거 소옥(小屋)의 지붕 수선 및 화장실[雪隠] 설치 비용】

一. 동同. 360문 백반지白半紙 2첩帖

一. 동同. 180문 흑반지黑半紙 2첩

一. 동同. 300문 붓 2자루

一. 동同. 700문 먹 1개

【표류민 9인 문정용(問情用) 정식(定式) 숙박비[宿賄]를 지급함】

一. 동同. 360문 백반지 2첩

一. 동同. 180문 흑반지 2첩

一. 동同. 150문 흑반절黑半切 25매

一. 동同. 300문 붓 2자루

一. 동同. 700문 먹 2개

【표류민 숙박인(宿番人)에게 지급한 것이 이와 같음】

一. 동同. 4관 800문 가사카미笠紙⁶³ 50매

【쓰쓰무라 표류민 1인, 가고시마 표류민 9인 총 10인에게 모기장[蚊帳] 2장 제작용으로 제공함】

一. 백미 1섬 8말

【표류민 숙박비[宿賄]. 후쿠야마 고헤이(福山五兵衛)라는 자가 통역[通弁]을 겸하여 1개월 백미 3말의 총 급미(充給米)가 이와 같음. 신(申, 1872) 정월부터 6월까지의 분량임】

一. 백미 2섬 9말 6되 경위졸警衛卒 4인

【표류민 경위(警衛)에 관해 하루 1인당 백미 1되씩의 급미를 4월 16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일수(日數) 74일분】

⁶³ 가사카미(笠紙): 전통 우산에 씌우는 일본 전통 종이.

一. 동同. 3섬 2말 6홉 6작^勺 6재^才

내內

4말 1되 6홉 6작 6재

【1년 5섬의 분할 대통사(大通詞) 1인】

1섬 2말 상동. 4인

【1년 3섬 6말의 분할】

5말 3되 대통사 1인

【1년 급미(給米) 외 수당으로 백미 2섬 1말 2되를 사철[四季]로 나눠서 한 철 치를 이와 같이 지급함】

1섬 6되 상동. 4인

【1년 급미(給米) 외 위와 같음. 백미 1섬 6되, 한 철 2말 6되 5홉에 해당하는 분량을 지급함】

총 백미 지급 13섬 7말 3되 5홉 1작^勺 6재^才

총 정전^{丁錢} 2,164관 496문

이상은 표류민 두 차례[細]분의 비용입니다. 또한 가고시마 표류민 9인이 나가사키에 재류할 때 당국 출장소의 비용[賄入料]은 먼 지역이라서 이번에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그곳과 왕복한 후 차차 보고하겠습니다.

一. 사족土族 2인

표류민 숙번인宿番人으로서 표민가漂民家에 출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급여[宛行]는 표민漂民 일순一巡 1인당 백미白米 2말 7되 5홉씩 지급해 왔습니다.

이상과 같습니다. 삼가 아뢰니다.

임신壬申(1872년) 6월 25일

무역서貿易署

사가현 출장소 귀중

첨부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사가현 본청本廳에 제출한 한인 표류민 관계 문서

조선국 표류민의 호송과 관련해선 예전부터의 규격規格도 있는데, 이미 소 씨宗氏 가역家役도 면직되고 [조선과의] 교제交際는 오직 외무성이 관장하는 바 되어 양국 심교尋交의 백규百揆가⁶⁴ 개찬改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분간 표류민 사안은 우선 저들이 희망하는 바를 물어서 임시로 호송의 소례小例를 만들어 장래 계획을 세우라는 지시가 있었으니, 그때까지는 자연히 표류민이 생기면 우선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지금까지처럼 후하게 보급하도록 올해 정월 16일 재한在韓 외무출사外務出仕가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13일 저 나라조선 전라도 제주濟州 김녕金寧에 거주하는 백성 1인이 이곳에 표류해서 도착하였고, 그 후 가고시마현 내로 조선인 남녀 9인이 표류해 온 것을 올해 정월 25일 나가사키로 호송한 후 3월 11일 그곳에서 출발하여 5월 11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전의 절차대로 한지韓地 초량관까지 송환하는 것도 매우 어려웠으므로, 두 차례 표류민이 도착할 때마다 외무출사에게 처리 방법이 내려올 때까지 유치留置할지 여부를 급히 회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어째서인지 한 통의 기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1일 재한在韓 외무출사 요시오카 고키를 비롯해 모두가 저 지역에서 이곳으로 철수했으므로, 나가노 가쿠이치永野恪一 출사관원을 만나 표류민 건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양국 교제와 관련하여 응접 방법을 이것저것 건의하고 여기저기에 부탁했지만 결국 천연遷延에 이르렀으니, 개관하건대 애매모호한 말뿐이어서 의론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방치하기 어려운 표류민 송환 건도 숙의熟議가 이뤄지지 않고 재한在韓의 평의도 없었으므로 외무 본성本省에 여쭙게 되었습니다. ‘우선 한지韓地 철수는, 이즈하라

⁶⁴ 백규(百揆): 백관(百官).

사족이 그곳에 재류하고 있으니 관사館司 후카미 로쿠로에게 표류민 송환 절차를 명심시키고, 외무출사 히로쓰 권대륙 1인은 당분간 이곳에 체류할 것입니다. 본성 本省의 지시 및 후카미 로쿠로에게서 차차 오는 소식이 있을 것이니, 이것저것商量한다면 그래도 상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현재 표류민은 유치留置하면서 보급을 제공하도록 하되, 지금부터 다른 부현府縣에 표류해오는 조선인을 모두 나가사키현에 호송하고 그곳에서 이곳까지 호송하는 비용은 나가사키현에서 지급하며, 이곳에서 인수한 뒤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가현의 소관으로 할 것'을 진술했습니다.

종래 소 씨가 조선 무역을 해온 절차에 따라 무역국貿易局을 설치하고 이어서 역인役人 등도 배치했지만, 구래의 세견선이 폐절廢絶되었으므로 이 국局은 철폐되었다는 소식을 이번 달 21일 당국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대체로 전술한 표류민 거류居留 10명의 보급 비용을 지금까지의 절차대로 무역국에서 처리해 두었는데, 얼마 전 외무출사 관원이 진술하기로는 '사가현에서 비용을 보내는 것은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의 비용을 우선 문서로 당국자에게 고지했는데, 별장別帳의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그 비용은 귀 현청縣廳에서 인수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관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무역국이 폐지되었으므로 표류민 건은 이번 달 초하루 출장소로 인계하는 절차를 마무리하고, 이제부터 발생하는 보급 비용도 인수하도록 조치할 것입니다.

- 一. 표류민 경계心遣 경위警衛 사족 2인, 졸卒 4인은 종래의 절차대로 배속했으나, 이제 출장소의 처리와 관련하여 포망捕亡에서⁶⁵ 단속取締, 경계 겸 소집[誹待]이 있을 때이니, 이들은 모두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一. 표류민이 도착했을 때의 문정問情과 기타 변해辨解를 위한 통사通詞는, 예전에는 많은 인원이 배속(部屬)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감원하여 대통사大通詞

⁶⁵ 포망(捕亡): 도망자나 죄인을 체포하는 일, 또는 그 관리.

1인 및 통사 4인에 불과합니다. 그 급료를 별책別冊으로 무역국에서 적어 보냈으므로 장면帳面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표류민의 유무와 무관하게 지행급료地行給料로 지급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우카가이쇼伺書を 별지와 같이 제출합니다.

이상의 건들을 상의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7월 2일

이즈하라 출장소

본청本廳

첨부 이즈하라 출장소에서 한인 표류민에 대한 연시年始 및 기타 오절구五節句⁶⁶ 등의 주효酒肴 급여와 관련하여 그 본청에 제출한 문서

조선 표류민에게 연시年始 및 기타 오절구五節句 등에 종전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것은, 별지와 같이 옛 무역국에서 지시했으므로 오랜 관례에 따라 조처했습니다. 이를 상의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7월 14일

이즈하라 출장소

본청本廳

⁶⁶ 오절구(五節句): 일본에서 계절마다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을 기원하는 전통 행사로, 음력으로 인일(人日, 1월 7일), 삼짚날(上巳, 3월 3일), 단오(端午, 5월 5일), 칠석(七夕, 7월 7일), 중양(重陽, 9월 9일)을 가리킨다.

첨부 **한인 표류민에 대한 연시 및 오절구 급여 정식 조서** 調書

표류민에게 제공하는 정식 定式

연시 年始 상사 上巳 단오 端午 중원 中元
8월 15일 중양 重陽 상선 上船 동지 冬至

- 一. 술 1인당 3홉씩 지급해 왔음.
- 一. 건조 오징어[魷]는 확실히 조사하지는 않았지만 대략 다음과 같음.

한 줄[一連]	1인
두 줄	5인
세 줄	10인

이상과 같은 비율로 계산함.

임신 壬申(1872년) 7월 2일

옛 무역서 貿易署

첨부 **가가와 참사가 한어 韓語 통사 通詞 고용과 관련하여 대장성에 올린 우카가이쇼**

통사 通詞 고용 및 급미 給米 제공 방법에 관해 여쭙

합계 쌀 16섬 4말 4되

내內

쌀[米] 5섬 대통사 大通詞 1인 1년 급미

쌀 2섬 1말 2되 동同. 별도 수당 쌀 1년 치
 소계 쌀 7섬 1말 2되
 쌀 7섬 2말 【병(並) 통사(通詞) 2인 1년 급미. 단, 1인 3섬 6말씩】
 쌀 2섬 1말 2되 【동(同). 별도 수당 쌀 2인 1년 치. 단, 1인 1섬 6되씩】
 소계 쌀 9섬 3말 2되

조선국 교제交際 및 무역貿易과 관련하여 예로부터 소 씨宗氏가 관장해온 통사通詞가 많은 인원이었다고 하는데, 현재 감원해서 대통사大通詞 1인 및 통사 4인만 계속 고용하고 있습니다. 급료는 표류민의 유무에 무관하게 고용하여 매년 서면書面의 비율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즈하라에서 표류민을 호송하는 것을 예전과 같이 하라는 분부와 관련하여, 표류민 문정問情과 변해辨解를 위해 통사를 종전처럼 두지 않으면 당장 지장이 있습니다. 물론 5인 가운데 대통사 1인과 통사 2인, 총 3인을 두고 나머지 2인은 감축해도 지장은 없습니다. 또는 가능한 한 비용 절감을 생각한다면 표류민이 생길 때마다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방법으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지금까지 통사들의 학습은 평소 유년 시절부터 그 학과學課에서 대통사에게 발탁되는 것을 목표로 전력을 다해 공부하는 것이 관습이었으니, 표류민이 생길 때마다 일시적으로 고용한다면 예로부터의 학습 방식이 폐절廢絶되어, 종래 자연스러운 교양教養이 사라져 왕왕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에 관해선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 예전처럼 인선人選한 뒤에 서면書面의 급료를 지급하면서 정규 통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급히 지시를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아뢰입니다.

임신壬申(1872년) 7월 30일

사가현 참사 가가와 다다다케香川忠武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님

10 외무경이 한인 표류민 비용 및 통사通詞 고용과 관련하여 이노우에 대장대보에게 보낸 회한回翰

이노우에 대장대보님

소에지마副島 외무경

한국 표류민 호송 절차와 비용의 처리방안 등과 관련하여 옛 사가현에서 제출한 별지를 첨부하여 말씀하신 사항들을 잘 알았습니다. 표착漂着한 한민韓民은 나가사키현에서 곧바로 조선 초량관에 보내서 그곳에 재류하는 외무관원에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호송 비용은 나가사키현에서 초량까지는 지방관이 이를 변제하고, 도착해서 관사館司에게 인도한 다음에는 초량 비용 내에서 지불하길 바랍니다.

통사通詞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전망하신 바와 같은 생각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절삭節朔에 표류민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구규舊規와 관련해서는, 현재 교제의 목적도 있으니 더욱 돈후敦厚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책은 반각返却합니다. 이와 같이 회답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5일

11 후카미 로쿠로 외 4인 배명사령안拜命辭令案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관사館司에 임명함.

단, 9등 관급官給을 하사함.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

일대관^{一代官} 겸무로 대리할 것.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

이대관^{二代官} 겸 대통사에 임명함.

단, 14등 관급을 하사함.

쓰카다 기사부로^{束田喜三郎}

통사 겸 서기에 임명함.

단, 15등 관급을 하사함.

스미나가 계조^{住永啓三}

통사 겸 서기에 임명함.

단, 15등 관급을 하사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6일

외무성

각각 1통씩 하달함.

12 9월 18일 야나기와라 대승이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서신

8월 8일자로 말씀하신, 표류민에게 모기장^[蚊帳]을 제공했더니 기뻐하면서 감사장^[謝狀]을 제출했다는 내용과 표류민 처리 방법, 그리고 사족과 평민을 일고^{日雇}해도⁶⁷ 무방하다는 뜻을 포고하길 바란다고 한 건은, 하나부사와 모리야마 등도

⁶⁷ 일고(日雇): 하루씩 고용하는 것. 날품팔이.

출장했으니 상의하도록 조치하길 바랍니다.

一. 후카미 로쿠로가 제출한 서장書狀을 받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회보합니다.

임신(1872년) 9월 18일

야나기와라 대승

히로쓰 소기少記 님

13 같은 날. 야나기와라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이번 달 3일자로 오사카에서 보낸 서장書狀이 같은 달 10일 도착해서 열어보았습니다. 일동 무양하시다는 소식이 여기에까지 알려졌으니 더없이 기쁜 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동류銅類를 모두 선적해서 4일 오사카에서 출범했는데, 이곳에 출장 나온 조세료租稅寮가 소목蘇木 이하 칠기漆器 등의 물품은 대장성으로부터 관계 당국에 상의하라는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별지와 같이 대장성에 상의해 두었으니,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8일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하나부사 대승大丞 님

모리야마 소기少記 님

사이토 중록中錄 님

오쿠 소록少錄 님

14 9월 19일 미야모토^{宮本}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낸 서신

최근 이탈리아 공사가 외무성에 와서, 귀하가 그곳^[조선-인용재]에 출장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국 잠란지^{蠶卵紙}를⁶⁸ 조금 얻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 거절했지만, 굳이 의뢰하고 있으니 매입할 방법이 있으면 상품지^{上品紙} 5, 6매라도 매입해서 귀국하시길 바랍니다. 필경 실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일단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9일

미야모토 대승

하나부사 대승님

15 같은 날. 야나기와라 대승이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날이 갈수록 냉기가 더해가는데 그곳의 제공은 장건^{壯健}하게 근무하시니 기쁨이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 표류민 처리 및 비용지불 방법, 그리고 학교 등의 건과 관련하여 대장성에서 상의가 왔으므로 별지와 같이 회답했습니다. 왕복 서류 사본을 보내드리니, 이 회답에 기초하여 조치하시길 바랍니다.
1. 청국 이사관^{理事官} 진복훈^{陳福勳}은 이번 달 12일 시나가와 영사와 동행하여 국민을 모두 거느리고 요코하마에서 출범, 귀국했습니다. 이번 구조^[救難]를 깊이 감사하고 있으며, 귀국 후 전국에 널리 포고하겠다고 합니다. 출발 전에 외무경에게 제출한 글의 사본과 함께 마리아 루스^{マリヤルツ} 선박 재판⁶⁹ 1건의

⁶⁸ 잠란지(蠶卵紙): 누에나방에게 알을 슬게 하는 데 사용하는 두꺼운 종이.

일문[和文] 5책과 영문英文 1책이 출판되었으므로 보내드립니다.

一. 류큐 사신이 지난 14일 참조參朝했습니다. 사무개조事務箇條가 다음과 같습니다.

참조절차서[參朝手續書]

헌상 공물의 품목[獻貢ノ品名]

칙어 배명 등의 사본[勅語御請共寫]

책봉 사본[冊封寫]

상표 사본[上表寫] 2장

하사품 품목[賜物品名]

一. 류큐번에 관내管内 통용을 위한 신화지폐新貨紙幣 교환금 3만 엔의 하사가 결정되었습니다.

一.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와 『요코하마신문横浜新聞』, 제공에게 보내는 서장書狀 등이 별지의 목록[入記]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송부하니 받아주십시오.

임신壬申(1872년) 9월 19일

야나기와라 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소기 님

히로쓰 소기 님

⁶⁹ 마리아 루스 선박 재판: 1872년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던 페루 선박 마리아 루스 호에서 노역하던 청국인 노동자(쿨리) 230여 명을 일본 정부가 노예로 간주하여 해방시킨 사건으로, 일본 정부가 국제 재판의 당사자가 된 최초의 사례이다. 오에 타쿠(大江卓)를 재판장으로 가나가와 현청에 설치된 특설법원에서는 이민계약을 노예계약으로 판단하고 청국인의 석방을 조건으로 마리아 루스 호의 석방을 허가했다. 청국 노동자는 10월 15일 귀국했다. 이듬해 2월 페루 정부는 마리아 루스 호 사건에 대한 사죄와 손해배상을 일본 정부에 요구했으나,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2세가 개최한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중재재판에서 페루 측의 요구를 기각했다.

토쇼頭書⁷⁰

러시아 친왕親王이⁷¹ 이번 달 15일경 나가사키에 도착할 것이라는 통보가 종관從官에게서⁷² 도착했습니다.

목록[入記]

『태정관일지』	【66호, 67호, 68호, 69호, 70호 이상 5책】
『요코하마신문』	【9월 7일, 8일, 10일, 11일, 13일, 14일 이상 6장】
하나부사 대승에게	1봉封 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위 사람에게	상동 도미타 이소노스케富田磯之助로부터
위 사람에게	상동 소에다 세쓰副田節로부터
위 사람에게	상동 상하이 영사관으로부터
모리야마 소기에게	상동 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하나부사 대승에게	상동 미야모토 대승으로부터

이상.

이외

모리야마 소기에게 『호치신문報知新聞』 1책

⁷⁰ 토쇼(頭書): 문서 첫머리에 글의 취지 등을 적는 것.

⁷¹ 러시아 친왕(親王): 러시아 차르 알렉산드르 2세(재위: 1855~1881)의 넷째 아들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Ал-ексе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50~1908) 대공을 가리킨다. 1871년 말 미국을 방문한 후 귀국하는 길에 쿠바,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싱가포르, 홍콩, 광둥과 상하이 등을 거쳐 1872년 10월부터 11월 사이 일본을 방문했다. 훗날 러일 전쟁의 지휘관으로 참전했다.

⁷² 종관(從官): 임금을 수행하는 관리.

첨부 류큐 사신 참조參朝 절차

류큐 사신 참조 절차

- 一. 오는 14일 오후 1시 사신이 참조參朝할 것을 외무대승이 문서로 지시할 것.

정사正使 부사副使 참의관參議官의 3원員

【이 밖의 인원도 상응(相應)하는 자는 낭하(廊下) 뒷마루 밖(緣外)에서 의식 배현(拜見)하며, 외무 대식과 식부(式部) 관원이 안내함】

- 一. 당일 출사出仕하는 관원은 히타타레直垂를⁷³ 착용할 것.

사신은 류큐복을 착용함.

- 一. 선도先導를 위해 여관에서 오쿠루마요세御車寄까지⁷⁴ 외무관임관이 말에 올라 출장出張하고, 이지치伊知地 7등출사가 같은 수레로 안내할 것.

- 一. 나카시키리고몬中仕切御門 밖에서 수레에서 내릴 것.

- 一. 사신이 오쿠루마요세에서 올라올 때는 그곳에 외무대승이 출영出迎하여 인도 하고 사쿠라노마櫻ノ間에서 휴식하게 할 것.

- 一. 차를 하사하는 것은 오오토네리大舍人가⁷⁵ 담당할 것.

- 一. 외무경과 식부두式部頭가 나가서 영접할 것.

당일 새벽에 류큐 쇼타이尙泰가 올린 공헌물貢獻物을 오히로마大廣間 입구의 오자시키御座敷에 진열해 둘 것.

번왕藩王과 왕비, 그리고 사신에 대한 하사품을 전달소傳達所에 비치해 둘 것.

⁷³ 히타타레(直垂): 일상복과 하카마로 이뤄지고 무사의 전통 의복을 말한다.

⁷⁴ 오쿠루마요세(御車寄): 제후들이 왕궁을 드나들 때 사용한 현관.

⁷⁵ 오오토네리(大舍人): 일본 율령제에서 천황을 모시면서 잡일을 담당하던 하급 관료.

一. 사신 참내參內가 준비되었음을 식부두式部頭가 아뢴 것.

그 전에 내습례內習禮를 할 것.

一. 음악을 연주함.

一. 출어出御하시어⁷⁶ 옥좌玉座에 도착하시면, 태정대신·외무경은 어전에 시립侍立하고 여러 성省의 장·차관長次官들은 곁에 입렬立列함.

만약 여러 성의 장·차관이 불참하면 그 대리代員를 내보냄.

一. 식부두式部頭가 정사를 인도해서 옥좌 앞으로 나아감. 부사와 참의관은 뒤에서 근종跟從함.⁷⁷

一. 식부두가 사신 3명의 이름을 피로披露함.⁷⁸

一. 사신이 경절罄折하며⁷⁹ 근배謹拜함.

一. 정사가 주상과 황후께 쇼타이尙泰의 상표上表와 헌공목록獻貢目錄 각 2통을 식부두에게 바침. 식부두가 이를 읽은 후 헌상함.

【집전이 끝난 후 시종장에게 내려주심. 이하 절차에 따름】

一. 칙어를 내리심.

사신이 자기의 헌물목록獻物目錄을 낭독하고 식부두에게 바침. 식부두는 이를 받아 헌상함.

一. 칙어를 내리심.

주상께서 책봉의 조서를 외무경에게 주심. 외무경은 선독宣讀을 마치고 사신에게 전달함.

一. 사신이 경절罄折하여 근배謹拜하고, 쇼타이를 대신해 배명御請을 아뢴.

一. 다음에 식부두가 변왕과 왕비에게 사뢰賜賚하는 목록을 선독하고 전달함.

⁷⁶ 출어(出御): 천황, 황후, 쇼군 등의 외출을 높이는 말. 여기서는 아랫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앞에 나타난다는 의미이다.

⁷⁷ 근종(跟從): 윗사람을 뒤에서 따라가며 수행하는 일.

⁷⁸ 피로(披露): 여기서는 큰소리로 여러 사람에게 알린다는 뜻.

⁷⁹ 경절(罄折): 허리를 크게 굽혀서 절하는 것.

- 一. 사신이 절함.
- 一. 음악을 연주함.
- 一. 식부두가 사신을 데리고 사쿠라노마^{櫻ノ間}로 물러감.
- 一. 태정대신, 참의, 여러 관성^{官省} 장·차관이 모여 멀리서 온 노고를 위로하고, 책봉의 영명^{榮命}을 축하함.
- 一. 식부관원^{式部官員}이 삼사^{三使}를 안내하여 전달소로 감. 식부두가 삼사에게 하사품을 전달함.
- 一. 퇴조^{退朝}함. 외무대승이 올 때와 마찬가지로 그 귀환을 환송함.

첨부 상표^{上表} 사본【2통】

공손히 생각건대 황상^{皇上}께서 등극하신 이래로 건강^{乾綱}이 비로소 펼쳐지고 서정^{庶政}이 일신^{一新}하니 여서^{黎庶}가 황은^{皇恩}에 무젓어 기뻐하며 춤추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쇼타이^{尙泰}는 남쪽 모퉁이에서 엎드려 성사^{盛事}를 듣고 기뻐서 손뼉을 치고픈 마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사^{尙健}, 부사^{尙有恒}, 찬의관^{贊議官} 쇼이신^{尙維新}을 파견하여 삼가 조하^{朝賀}의 예를 행하오며, 또 방물^{方物}을 바칩니다. 엎드려 주문^{奏聞}을 청합니다.

메이지 5년 임신^{壬申} 7월 19일

류큐 쇼타이가 삼가 아뢰입니다.

공손히 생각건대 황후께서는 중궁中宮에 정위正位하시고 덕이 지존至尊에 짝하시어 천하의 모의母儀가 되셨습니다. 사해四海가 날마다 문명文明의 경역에 나아가 여서黎庶가 생을 즐기고 생업을 편안히 누리고 있습니다. 쇼타이는 바다 모퉁이에서 엿드려 성사盛事를 듣고 기뻐서 손뼉을 치고픈 마음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이제 정사 쇼켄, 부사 쇼유코, 찬의관 쇼이신을 파견하여 삼가 경하慶賀의 예를 행하오며, 또 방물을 바칩니다. 엿드려 주문奏聞을 청합니다.

메이지 5년 임신 7월 19일

류큐 쇼타이가 삼가 아뢰입니다.

첨부 칙어勅語

칙어

류큐가 사쓰마薩摩에 부용附庸한 해가 오래되었다. 이제 유신維新의 때를 맞이하여 상표上表와 방물方物을 바치니 충성이 비할 바 없도다. 짐이 이를 가납嘉納하노라.

一. 사신에게

칙어

너희가 입조入朝하여 능히 네 군주의 뜻을 빠짐없이 받들어 스스로 방물을 바치니 깊이 가납嘉納하노라.

첨부 책봉 사본

책봉 사본⁸⁰

짐이 상천上天의 경명景命을 받들어 만세일계萬世一系의 제조帝祚를 이어 거연히 사해를 보유하고 팔황八荒에 군림하였노라. 이제 류큐는 가까이 남북南服에 자리하여 기류氣類가 서로 같고 언문言文에 차이가 없어서 대대로 사쓰마의 부용이 되었다. 그리고 너 쇼타이가 능히 근성勤誠을 바치니 크게 현작顯爵을 내릴 것이다. 지위를 높여 류큐번왕琉球藩王으로 삼고, 관위를 베풀어 화족華族의 반열에 두노라. 너 쇼타이는 그 번병藩屏의 임무를 무겁게 여기고, 중서衆庶의 위에 서서 짐의 뜻을 간절히 체인體認하여 길이 황실을 보필하도록 명심할지어다.

메이지 5년 임신壬申 9월 14일

첨부 배명 사본

배명拜命 사본

신臣 켄健 등이 삼가 아립니다. 신은 과군寡君의 명을 받들어 천조天朝에 입공入貢합니다. 이제 과군을 번왕藩王에 봉하고, 또 화족華族의 반열에 두시니 성은盛恩의 중약重渥에 황공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신 켄 등이 대신 조명詔命을 받드립니다.

⁸⁰ 원문에는 첫 문장의 ‘朕上天ノ景命ニ’에서 ‘朕上’, 마지막 문장의 ‘明治五年’에서 ‘治五’라는 글자 위에 옥새를 압인했다는 표시가 있다.

메이지 5년 임신^{壬申} 9월 14일

정사 쇼^{尙 靑}

부사 쇼^{尙 有} 유코^{有恒}

찬의관 쇼^{尙 新} 이신^{維新}

첨부 **헌품 목록**

각^覺

주상^{主上}께

- | | |
|---|---|
| 一. 당필 ^{唐筆} | 3상자 |
| 一. 당묵 ^{唐墨} | 1상자 |
| 一. 당연 ^{唐硯} | 2개 ^[方] |
| 一. 당화수권 ^{唐畫手卷} ⁸¹ | 2【유송년 ^(劉松年) , 조종목 ^(趙仲穆) 】 |
| 一. 감지호세상포 ^{紺地縞細上布} ⁸² | 10단 ^端 |
| 一. 감호세상포 ^{紺縞細上布} | 10단 |
| 一. 백대륜자 ^{白大綸子} ⁸³ | 5필 |
| 一. 축면 ^{縮綿} | 10권 ^卷 【홍백 ^(紅白) 】 |
| 一. 금입용문단자 ^{金入龍紋緞子} | 1필 |
| 一. 금입용문사 ^{金入龍紋紗} | 1필 |
| 一. 청패료지연상 ^{靑貝料紙硯箱} | 1통 ^通 |

⁸¹ 수권(手卷): 글씨나 그림의 두루마리.

⁸² 조후(上布): 가는 대마로 짠 고급 삼베로, 과거 막부 등에 헌상되었다.

⁸³ 린즈(綸子): 정련된 생사로 짠 두껍고 광택이 나는 고급 직물.

一. 소주燒酒 10병[壺]

황후님께

- 一. 감지호세상포紺地縞細上布 5단
一. 감호세상포紺縞細上布 5단
一. 백대륜자白大綸子 5필
一. 사릉紗綾 10권卷【홍백(紅白)】
一. 축면縮綿 10권卷【홍백(紅白)】
一. 금입용문단자金入龍紋緞子 1필
一. 금입용문사金入龍紋紗 1필
一. 소주燒酒 5병
이상 번왕藩王으로부터.

주상께

- 一. 감지호세상포紺地縞細上布 5단
一. 감호세상포紺縞細上布 5단
一. 호세縞細 5단
一. 원금圓金 1본本
一. 소주燒酒 5병
이상 정사正使 이에伊江 왕자로부터.

- 一. 감지호세상포紺地縞細上布 3단
一. 감호세상포紺縞細上布 3단
一. 호세縞細 3단

一. 편금片金 1본

一. 소주燒酒 3병

이상 부사 기노완宜野灣⁸⁴ 우에카타親方로부터.⁸⁵

一. 감지호세상포紺地縞細上布 2단

一. 감호세상포紺縞細上布 2단

一. 호세縞細 2단

一. 소주燒酒 2병

이상 참의관 기완喜屋武 파이킨親雲上으로부터.⁸⁶

황태후님

황후님

一. 감지호세상포紺地縞細上布 5단씩

一. 감호세상포紺縞細上布 5단씩

一. 호세縞細 5단씩

一. 사릉紗綾 5단씩 【홍백(紅白)】

一. 백라白羅 1본씩

一. 편금片金 1본씩

一. 소주燒酒 5병씩

이상 정사·부사·참의관들로부터.

신申(1872년) 9월

⁸⁴ 기노완(宜野灣): 류큐 왕국 말기의 저명한 정치가이자 시인 기완 조호(宜湾朝保, 1823~1876)이다. 1875년 류큐 왕 쇼타이의 둘째 아들 쇼토라(尚寅)가 기노완 왕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하면서 이름을 기완으로 바꾸었다.

⁸⁵ 우에카타(親方): 류큐 위계 칭호 중 하나. 왕족의 바로 아래로, 류큐 사족(士族)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칭호였다.

⁸⁶ 파이킨(親雲上): 류큐의 관직명 중 하나로, 우에카타 아래, 사토누시(里の子) 위에 해당한다.

**16 대장성으로부터 조선국에 대한 수출품과 관련하여 오사카 세관에 내린 지령이 완료
됐음을 회신하는 글**

이번에 조선국에 수출하는 물품을 오사카에서 조달하여 선적한 것과 관련하여
요청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이는 당성當省(대장성)에서도 이견이 없으므로 세관과
기타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서에 지시해두었습니다. 이를 회답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0일

대장성

외무성 귀중

17 외무경이 조선국의 대기근 구호를 상신한 글

별지 상하이의 신문지와 그 밖에 지나支那 등에서 온 소식에 따르면, 올해 조선
국은 기근이 심하여 굶어 죽은 시신[餓殍]이 서로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생각건대,
지금 우리 조정에 미국에 여분이 있으니, 이를 저 땅에 보내서 양으로 이웃 나라의
황핍荒乏을 서로 구호하는 뜻을 드러내고, 음으로 양국 교제의 통로를 열기를 바랍
니다. 저 나라는 일찍이 미국·프랑스 등이 교통交通을 위해 힘을 쏟은 끝에 마침내
병단兵端을 여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인민의 풍속이 완우頑愚하고 고루固陋해서 지금
까지 고립된 형세입니다. 그런데 기근을 맞은 때를 이용해서 이를 명분으로 더욱
교통의 길을 연다면, 이는 황국의 이익일 뿐 아니라 각국에 대해 실로 큰 명예가
될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부사 요시모토가 저 땅에 파견되어 있으니, 그에게 별지의
안案과 같이 기증을 저쪽 관리에게 조회한다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운수運輸
의 편의 등은 대장성에 하의下議 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3일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정원正院 귀중

첨부 외무경이 재한^{在韓} 하나부사 대승에게 내린 명령서

서간으로 말씀드립니다. 족하께서 건승^{健勝}하시어 날마다 국궁^{鞠躬}하며 그 임무를 펼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 조선국에 기근이 매우 심해서 굶어 죽은 시신이 나뒹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친^{親親}의 정실^{情實}에 통곡과 비탄을 금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황조^{皇朝}는 올해 하늘의 은택이 특히 깊어서 오곡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신속히 조정에 고하고 대장성과 상의하여, 저 조정^{조선}이 우리 호의를 받아 들인다면, 상당한 양향^{糧餉}이라도 그 소망에 응해 충분한 저가^{低價}로 이를 운수^{運輸}하여 판매하거나, 또는 대부^{貸附}해서 편의하게 한때의 궁핍을 해결한다는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물론 이는 이익을 좇으려는 것이 아니라, 실로 이웃 사이에 황핍^{荒乏}이 있을 때 서로 구호해주는 후의^{厚意}에서 나온 것입니다. 족하께서는 다행히 그 경내에 계시니, 능히 그 뜻을 체인^{體認}하여 간절히 당로^{當路}의 관리들에게 상의한 후 속히 회보를 보내십시오. 모든 일이 물론 정돈^{整頓}되었습니다. 오직 그 회보를 기다렸다가 조만간 곧장 출발할 뿐입니다. 갖추지 못하고 보냅니다.

메이지 5년 임신^{壬申} 가을 9월 일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 님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

신문지 발적拔摘⁸⁷

“고려국이[조선국을 가리킴] 현재 기근으로 쌀 한 톨이 마치 진주와 같아서 들판에 풀이 없고, 집이 텅 비어 나라 안의 군인과 백성 등이 한갓 쓰러져 죽기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도리가 없다. 따라서 국내 저축한 식량을 모두 내어 구제하더라도 모두 충당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엔타이燕台 변계邊界의 상인은 이를 이용해서 미곡을 운수運輸하고, 매각하는 가격을 마치 서양인이 다이아몬드[金剛石]를 파는 것처럼 한다. 돈이 없는 자는 부녀자를 1말의 쌀과 교환한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본디 고려는 외국과 통상을 하지 않으므로 화물貨物의 유통이 없다. 지나인과의 무역에서도 그 경내에 깊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국법이 엄금하므로 외부에 의뢰하는 형세가 없다. 이제 이 황흉荒凶을 만나 나라 안의 기근을 보니, 어찌 예전의 국금國禁을 완화해서 변통할 방법을 마련하고, 굶주린 백성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9월 7일자 지나支那 신문에서 보았음.

이상 지나支那의 원문은 생략함.

18 나가사키현에 외무성 다케우치 세조竹內精三의 조선국에 파견에 따른 선편船便의 주선을 의뢰하는 글

미야가와宮川 나가사키 현령縣令 님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공무[御用]로 조선국에 파견한 하나부사 외무대승 등에게 전할 매우 긴급한 공무가

⁸⁷ 발적(拔摘): 발체(拔萃).

있어서, 당성當省(외무성) 관원 다케우치 세조竹內精三가 이번 달 27일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해로海路로 그쪽 항구로 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항구에서 타이슈 및 조선국에 도항하는 선편船便 등 제반 사항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 19** 다케우치 세조에게 공신公信을 갖고 도한渡韓한 뒤에 만약 하나부사 대승이 이미 귀조歸朝했으면 재관在館 관원에게 열어보게 하라는 내용의 사령안辭令案

다케우치 세조

별봉別封의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내는 서간은, 만약 그와 길이 엇갈려 만나지 못하면 초량관에 남아있는 중요한 자에게 전달해서 열어보도록 할 것.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와타나베 외무소기

- 20** 9월 25일 야나기와라, 와타나베渡邊 두 사람이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내온 서한

편지로 말씀드립니다.

성상聖上께서는 더욱 안태安泰하십니다. 국가는 안온하고 본성本省(외무성)의 경卿 각하도 더욱 유쾌하시니 근무하는 데 염려를 놓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더욱 편안하고 강녕하니 더없이 축하드리며, 또 먼 나라에서 봉직하시는 데 노고가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도 모두 별 탈 없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다른 일들은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별봉別封에 있는 신보新報와 다른 것들에 기초해서 별지와 같이 정원正院에 건언建言하여 결의決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별봉과 같이 외무경 각하께서 공식적인 서간을 보내셨으니, 보고의 진위眞僞를 깊이 살피시고 음양陰陽의 취의趣意를 신중히 상량商量하신 뒤에 그곳의 사정에 대응해서 관철하도록 진력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번 일은 정부로부터의 공식 통로公通를 연다는 취지로서, 그 성사 여부 등은 공식적인 것이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종래 사무역私貿易의 정태情態에 응하여 타이슈와 나가사키,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미곡米穀을 운수한다면 이 또한 사적 통로私通를 크게 여는 기초가 되어 장래의 방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그 정태情態와 성부成否 모두에 주의하여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의 일이 순조롭길 바랍니다. 아울러 안강安康하시며 진력하시길 기원합니다. 삼가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하나부사 외무대승 님

추신. 『근세사략近世史略』 1부를 야나기와라가 헌정獻呈합니다.

21 정원^{正院}으로부터 다케우치 세조^三에게 보낸 사령서를 회부^{回付}하는 글

별지^{別紙}로 다케우치 세조^三에게 내리는 지령서를 보내니 본인에게 전달 하십시오.

임신^{壬申}(1872년) 9월 28일

정원^{正院}

외무성

첨부 다케우치 세조^三 건한^{遣韓} 사령서

외무성 14등출사

다케우치 세조

공무^{御用}로 조선국에 차견^{差遣}함.

임신^{壬申}(1872년) 9월 24일

정원^{正院}

이번 달 17일자로 초량관에서 발송한 서면書面으로 말씀드린 뒤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 일대관一代官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로부터 구진서口陳書를 보내 세건선 미수품未收品을 상각償却할 것이니 별차別差에게 입관入館하라고 통보했는데, 배통사陪通事 최재수崔在守라는 자를 통해 ‘화륜선으로 왕래하는 사람과는 관계하지 말라는 예전 관문關文의 지시도 있으니, 물품 출입은 화륜선이 관館에 있는 동안에는 거론하지 말라.’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나오유키가 신중하게 효유曉諭했는데, 결국 최재수가 ‘모두 지당한 일이지만, 당當 별차는⁸⁸ 새로 부임해서 모든 일에 매례昧例하니,⁸⁹ 어떻게 말하더라도 정실情實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혼도 안준경安俊卿의 복직에 관해 이미 한성에서 명령이 내려올 터이다. 늦게 도착하고 있지만, 근일 복직할 것이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잠시만 기다려 주길 바란다.’라며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이에 관해선 발묘拔鰯한 이후의 거동도 시험해 보고 싶었으므로, 이번 달 말까지의 상황이 어떠한지 서둘러 보고할 것, 그리고 관내館內的 단속[取締]과 관련하여 내외 일체一切의 주의사항을 지시해 둔 뒤에 지난 24일 새벽 일단 부산포를 출발해서 이즈하라까지 퇴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월말에 한 번 보고가 있는 뒤에 다시 한번 도한渡韓할 것인지, 아니면 이 일은 장래 결정하는 것으로 해두고 귀경歸京할 것인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편에 관해선 가와무라河村 병학권조兵學勸助가 귀경하려는 뜻이 있음을 말해줘서 알게 되었으니, 그가 귀경한 다음에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一. 유코마루有功丸 건은 근일 상황을 살펴보고 귀범歸帆할 전망입니다.

⁸⁸ 1872년 8월에 부임한 별차 현풍서를 가리킨다.

⁸⁹ 매례(昧例): 관습으로 내려오는 전례(前例)에 어두움.

이상의 내용을 대략 말씀드립니다.

신申(1872년) 9월 27일

하나부사 외무대승

대·소승大小丞 귀중

23 도요오카현豊岡縣으로부터 현내縣內 간자키무라神崎村 사쿠베作兵衛 등이 조선국에 표착漂着한 전말의 신고서

조선국에 표착漂着한 자의 신고[御届]

도요오카현豊岡縣

제111호

90

조선국에 표착漂着한 자의 신고

관내管內 단고노쿠니丹後國 가사군加佐郡 간자키무라神崎村의 사쿠베作兵衛와 그의 아들 쇼키치庄吉가 올해 6월 중에 폭풍[難風]을 만나 조선국에 표착한 시말과 관련 하여 별지 구치가키口書⁹¹ 1책을 첨부합니다. 이를 신고합니다.

⁹⁰ 이상이 문서 표지, 이하가 문서 본문이다.

⁹¹ 구치가키(口書): 에도 시대 피의자 등의 진술을 기록한 문서. 아시가루(足輕) 이하 농민과 상인에 해당하며, 무사의 경우 고조가키(口上書き)라고 한다.

임신壬申 9월 29일

도요오카현 권참사權參事 오노 우추大野右仲 (印)

도요오카현 참사參事 다나카 미쓰요시田中光儀 (印)

소에지마 외무경 님

첨부 사쿠베 구치가키口書

조선국에 표착한 자의 구치가키口書

도요오카현

단고노쿠니 가사군

간자키무라

사쿠베

【신(申), 53세】

그 아들

쇼키치

【신(申), 17세】

이상 구술[申口]⁹²

지난 6월 출범하던 중에 폭풍을 만나 조선국에 표착하고, 정성스러운 대우를 받은 시말始末을 조사한 것입니다.

⁹² 원문의 모시구치(申口)는 관청이나 상급자에게 호소하거나 신청하는 말을 뜻한다.

이하는 두 사람이 진술한 것입니다. “저희는 평소 배를 모는 것으로 생업을 삼았는데, 단바노쿠니¹ 丹波國 히카미군² 水上郡 쓰지무라³ 辻邨 마타사부로⁴ 又三郎가 소지한 만차⁵ 晩茶를 오키노쿠니⁶ 隱岐國에 판매하면서, 운임⁷ 運賃을 받고 의뢰받은 위의 상품도합 66본⁸ 本【본은 6간메⁹ (貫目)】을 선적¹⁰ 船積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승선한 후 지난 6월 24일 출발하여 27일 호키노쿠니¹¹ 伯耆國의 먼바다까지 돛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물녘부터 갑자기 큰 풍파가 몰아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돛대 등이 부러져서 필사의 각오를 하고 7월 초하룻날까지 표류했는데, 마침 그때, 낮 9시경으로 생각됩니다만 인가¹² 人家가 없는 낯선 섬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4일까지 머물렀는데, 쌓아둔 음식과 식수도 바닥나 기갈에 시달린 나머지 의지할만한 것도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배를 저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국¹³ 異國이라고 짐작되는 곳이 아득하게 보였습니다. 상륙하려고 배를 저어 다가갔는데, 국인¹⁴ 國人이 계속 손을 흔들며 상륙을 금지했으므로 해변에 닻을 내리고 멈추었습니다. 곧바로 10명 정도가 선박에 그물을 걸고는 한미치¹⁵ 半道⁹³ 남짓 끌고 가옥의 수가 7, 80호 남짓 되는 장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관청에 신고했는지, 나누시¹⁶ 名主처럼⁹⁴ 보이는 사람이 와서 시말¹⁷ 始末을 탐문하는 듯했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인지 곧바로 철수했습니다. 다음날인 7일에는 관원처럼 보이는 사람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등을 묻고, 난선¹⁸ 難船의⁹⁵ 상황 등을 탐문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시말을 하나하나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별지 일인¹⁹ 一印의⁹⁶ 서면書面을 건네면서 선박의 크기²⁰ (豎横)과 적하²¹ 積荷의 수량 등을 조사한 후 물러갔습니다. 우리가 양미²² 糧米가 없으니 은혜를 베풀어줄 것을 청했는데, 다음날인 7일²³ (원문) 그들과 하역²⁴ 下役처럼 보이는 자들이 붙어와서 두 사람에게 백미²⁵ 白米 1되 5홉 정도를 지급하고, 날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정성껏 대접해주었습니다.

⁹³ 한미치(半道): 1리의 반, 약 2킬로미터.

⁹⁴ 나누시(名主): 에도 시대 영주 아래서 마을 사무를 담당한 촌장을 말한다.

⁹⁵ 난선(難船): 풍파를 만나서 파손된 선박.

⁹⁶ 다음 첨부문서의 ‘제일(第一)’에 해당한다. ‘이인(二印)’과 ‘삼인(三印)’도 모두 이와 같다.

다음 달 9일 저들이 왔을 때 사쿠베가 눈병이 나서 이노우에井ノ上라는 안약을 쓰고 있었는데, 이 약을 바라는 것처럼 보여서 도합 5개 외에 만차晩茶 조금을 보냈습니다. 그때 또 별지 이인二印의 서면書面을 전달하고 물러갔습니다. 다음 날인 10일은 바람도 적당해서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는데, 그때 또 백미 5되 남짓을 주고는 날씨가 화창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귀국할 것을 정성스레 권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안약을 달라고 했지만, 더 가진 것이 없어 거절했더니 다시 삼인三印의 별지를 건넸습니다.

표류해서 도착한 3일부터 출범할 때까지 상륙은 일절 하지 않았으며, 시종 승선乗船 중인 반센番船처럼⁹⁷ 보이는 것이 근방에 2, 3척씩 떠다녔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므로 반드시 조선국이었다고 아뢰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같은 날 그 나라에서 출범하여 16일 오키노쿠니 도요타무라豐田郷에 도착하고, 북부 오우가太宇賀 구라노타니倉ノ谷 모노이物井 우고카노무라右五ヶ郷에서 만차晩茶를 모두 팔았습니다. 그리고 8월 18일 그곳에서 출범하여 25일 호키노쿠니 사카이하항酒井湊에 도착했는데, 바람이 좋지 않아 29일까지 머문 후 같은 날 출발해서 이번 달 4일에 귀향했습니다.”

이상 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아웁니다.

이상.

메이지 5년 임신壬申 9월 18일

사쿠베 (印)

쇼키치 (印)

도요오카현 고야쿠쇼御役所⁹⁸

⁹⁷ 반센(番船): 항구나 세관 등에서 감시와 경호를 하거나 밀어(密漁)를 감시하는 선박.

⁹⁸ 고야쿠쇼(御役所): 관공서.

제일第一

예선曳船을⁹⁹ 신분伸紛하는 일로¹⁰⁰ 입진入鎭할 것이다. 잡인雜人이 배에 타고
있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모두 고하라.

제이第二

이 부은 다리[癰]와 골절풍骨切風(원문)에는 어떤 약이 효험이 있는가? 상세히
생각한 다음에 약을 달라. 차츰도 조금 주면 좋겠다.

제삼第三

이것은 귀국에 돌아갈 때의 양찬糧饌이다.¹⁰¹ 순풍을 기다리는 것이 쉽게 건너
가기에 좋을 것이다.

어제 약이 조금 있으면 또 한 봉 달라. 안질眼疾 약도 주길 바란다.

24 정원正院으로부터 조선국 구호와 관련하여 대장성 의견서를 첨부해서 보내온 글

조선국의 흉황凶荒을 입은 인민 및 기아와 관련하여 지난번 건의하셨는데, 별
지로 대장성의 의견을 첨부하여 내려보내니, 대장성과 상의한 후 다시 상신하길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⁹⁹ 예선(曳船): 다른 배를 인양하는 선박.

¹⁰⁰ 원문에는 '伸紛'으로 되어 있다. 문맥상 '신청' 등의 오기일 것으로 짐작되지만 상고하기 어려워 일단 원문대로 옮겼다.

¹⁰¹ 양찬(糧饌): 양식과 반찬.

임신壬申(1872년) 9월 29일

정원正院

소에지마 외무경 님

첨부 대장성 의견서

조선국의 흉황凶荒을 입은 인민 및 기아와 관련하여, 주급周急의¹⁰² 방법을 외무경이 건백建白한 취지에 관해 하문하셨기에 숙고했습니다. 그런데 저 나라[조선]가 지금 절박한 때 여러 가지로 왕래한 끝에 미국米穀을 수출하더라도, 시기를 놓쳐서 그 효과가 없다면 모처럼의 취의趣意도 헛되이 될 것이니, 현재의 전망으로는 1섬당 대가 금 4엔圓, 그 밖에 선비船費를 추가해 대략 5엔 정도를 목표로 협상[示談]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대금代金과 관련하여 저 나라의 화폐로 결제하는 것은 융통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 나라가 소유한 금·은·동金銀銅이 모두 지금地金の 종류이니 적당한 가격을 붙여서 인수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여 하나부사 대승에게 요청하도록 외무경에게 하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회답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8일

대장대보 이노우에 가오루

정원正院 귀중

추신. 저 나라에서 필요한 석수[石數] 등을 대략 알 수 있도록 하나부사 대승에게 요청하길 바랍니다. 이를 덧붙이오며, 아울러 외무경 건언서建言書 1책을 돌려 드립니다.

¹⁰² 주급(周急): 위급한 형편에 처한 사람을 구호함.



국역

조선사무서
(5)

제15권

15

『조선사무서』 제15권

메이지明治 5년(1872) 10월부터 11월까지

01 외무경이 조선국의 주급周急에 관한 대장성 의견서의 취지에 따라 하나부사 대승을 지휘하겠다는 내용으로 올린 상신서

조선국의 흉황凶荒에 대해 지난번에 올린 건의에 관해 대장성의 견해를 알려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별지의 하나부사 대승에게 보낸 서장書狀은, 어쨌든지 급박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나가사키로 가는 선편船便이 있어서 우선 보낸 것입니다. 그때 신문지류를 보내고 기타 여러 가지 명령을 내렸습시다만, 대장성의 의견대로 오는 5일 우선郵船 편으로 자세히 지시하려고 생각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2일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

정원正院 귀중

추신. 지난번에 올린 서류 및 대장성의 하문下問에 대한 답서를 내려주신 것은 모두 돌려 드립니다.

02 사관史官이 조선회도朝鮮繪圖의 반각返却을 위해 보내온 서한

조선국 회도繪圖¹ 1매를 반각返却하니 접수하십시오. 단, 지금 1매와 서류 등은 육군성에서 등사를 마치는 대로 반각할 예정입니다. 이를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4일

사관史官

외무대소승 귀중

위 사본은 역국譯局에 보내겠다는 뜻을 이시카와石川 소록少錄이 아뢰었습니다.

03 10월 4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여기는 한기가 물려드는데 그곳은 어떠한지요? 제공이 더욱 평안하시며, 근무에 힘쓰시는 데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一. 조선국의 흉황凶荒과 관련하여 미곡米穀 수송을 얼마 전에 외무경님께서 정원正院에 건백하시고, 이미 그 사리事理는 다케우치 세조竹內精三를 통해 자세히 말씀드렸으니 지금쯤이면 양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백에 대해 대장성에 하문下問하시고, 대장성에서 의견을 아뢴 서류를 다시 본성本省에 내리셨으므로, 그 회답서의 사본을 보내드립니다. 왕복한 글의 의미를 작량酌量하시고 현지 사정을 살피셔서 모든 일이 타당하도록 조치하십시오. 자세한 것은 빠른 인편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¹ 회도(繪圖): 그림, 또는 토지 등의 평면도.

- 一. 다케우치 세조의 조선 출장이 임박했으므로 본성에서 임시로 우선 분부하였는데, 다시 정원正院에서 지령서가 내려왔으므로 그에게 전하실 것입니다.
- 一. 류큐번에 내리신 여러 어명은,² 별지의 일지日誌와 같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사신 등은 이번 달 2일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증기선 산포함三邦艦에 탑승해서, 이세伊勢 도바노우라戶場浦에 기항해서 대신궁大神宮에 참배하고, 다시 고베로 이동하여 오사카와 서경西京을 순람巡覽한 뒤에 귀번歸藩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지치伊知地 육등출사, 호리에 소록, 등외이등等外二等 고스케 나오타쓰小管直達의 3인은 그곳의 재근在勤을 명받았습니다. 대장성으로부터는 네모토根本 칠등출사와 그 밖에 권대록 고바야시 고아이小林好愛, 중록 야마자키 기요시山崎潔 등이 출장을 분부받았습니다.
- 一. 일지日誌와 기타 제공에게 보내는 서장書狀 등을 별지의 목록[入記]과 같이 보내드리니,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4일

야나기와라 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소기 님

히로쓰 소기 님

² 1872년 메이지천황이 류큐국왕 쇼타이(尙泰)를 류큐번왕에 봉하여 화족(華族)으로 삼고, 도쿄에 번저(藩邸)를 하사한 일을 가리킨다. 본서의 제14권 문서 15번 참조.

목록[入記]

- 一. 일지日誌 【74, 75, 76, 77, 78의 총 5호】
- 一. 계유력癸酉曆 1개
- 一. 『요코하마신문橫濱新聞』 【24, 25, 26, 27, 28, 29의 총 6장】
- 一. 철전신화폐鐵錢新貨幣와의 비교 시세[相場]³
- 一. 다케우치에게 내린 지령서 1장
- 一. 하나부사 대승에게, 상하이 영사관으로부터 1봉

이상과 같음.

임신壬申(1872년) 10월 4일

이 밖에

전신표傳信表 1장

04 야나기와라 대승이 관금官金を 물품 대금으로 유용하려고 했으나 연락했다는 내용으로 대장성에 보내는 조회서를 첨부하여 히로쓰 히로노부에게 보낸 서신

한기가 모여드는 이때, 더욱 건강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근무하시는 데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9월 7일자로 알려주신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의 면려勉勵와 마에다 다베에前田太兵衛가 관금官金を 물품 대금으로 유용하려

³ 소바(相場): 시세(時勢), 시가(時價). 또는 교환 비율.

고 했지만 연착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사항들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부사, 모리야마 등도 출장하였으니, 그들에게 자세하게 상의하여 조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후카미가 제출한 서면을 보내드리니 곧바로 경공卿公께서도 보실 수 있도록 드리십시오. 이를 회보回報로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5일

야나기와라 대승

히로쓰 소기 님

추신. 마에다 다베에에게 부여한 관급에 관해선 명목名目을 찾고 있으니, 대장성에 상의한 서면을 등서하여 보내드립니다. 이를 통해 양찰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대장성에 보낸 조회서

조선국 초량관에서 포고한 종전의 역원役員 가운데 철수한 왜관倭官의 당성當省인수 및 조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초량관의 비용[入費]으로 금金 5,000냥을 내려 주실 것을 아뢰었는데, 아뢴 대로 처리할 것이니 그 금은 귀 성省에서 수령하라는 뜻으로 분부가 있었으므로 속히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전표傳票를 첨부합니다. 이를 요청 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5월 그믐일

추신. 본문의 화관和館에서 국가의 금은金銀 화폐가 전혀 통용되지 않으니, 지금까지 타이슈 이즈하라 상인들에게 분부하기를, 저들이 필요로 하는 우리나라 물

품을 갖고 건너가서 저 나라에서 통용하는 돈과 교환한 후, 제반 비용에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5,000냥도 일단 물품으로 교환해서 저들이 통용하는 돈과 바꾼 다음에 왜관의 비용으로 충용充用할 작정입니다. 그 지불에 관한 감정勘定은 그 형편에 따라 제출하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를 설명해 둡니다.

05 해군성으로부터 조선행 가스가함春日艦의 소식을 묻는 서한

병丙 제1,575호

조선행 가스가함春日艦은 빈고노쿠니備後國 도모藩⁴ 쪽에서 한번 보고가 있었지만, 그 뒤로 소식이 없습니다. 귀 성省에는 무슨 소식이 있었습니까? 만약 보고가 있다면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문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9일

해군성

외무성 귀중

06 같은 건. 해군성에 보낸 회한回翰

조선행 가스가함이 빈고노쿠니備後國 도모藩 쪽에서 한번 보고가 있었을 뿐 그 뒤로 소식이 없으므로 당 성省에 무슨 소식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당 성에도 그곳에서 한번 보고가 있었을 뿐입니다. 이 가스가함에는 하나부사 대승이 탑승하고 있으니, 그 뒤로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지만 유코마루有功丸에 탑승한 관원이 나가

⁴ 도모(藩): 도모노우라로, 현재 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누마쿠마(沼隈) 반도 남단의 항만과 그 주변 해역을 가리킨다.

사키[崎陽]에서 별지와 같이 연락했으므로 양지하시도록 등서하여 보내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해군성 대소승大少丞 귀중

첨부 나가사키 주재 사이토齊藤 권대록 등이 보내온 서한

지난 5일 오사카[阪地]에서 출발하여 7일 나가사키에 도착하고, 이튿날인 8일부터 석탄을 적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대병鎭臺兵도 8일 저녁에 나가사키에 도착했습니다. 또 기타무라北村 육군중좌 외 2인도 나가사키에서 추가로 배속되고, 병량兵糧과 다른 물품도 10일까지 계속 이어져 마침내 11일 오후 3시 나가사키항에서 출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지韓地에 도착한 후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사키현에서도 대속大屬 1인, 13등 1인, 사생史生 1인을 파견해줄 것을 미야카와宮川 권령權令이 이야기했으니, 타이슈까지 편선便船이 갈 것입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1일

오쿠奥 소록

사이토 권대록

조선왕복과朝鮮往復課

07 해군성에 가스가함의 소식과 관련하여 보낸 서한

조선행 가스가함에 답승한 관원에게서 한 차례 보고가 있었을 뿐 그 뒤로 소식이 없었으므로, 당성當省 관원에게선 아무 연락이 없었는지 얼마 전 문의하셨으므로, 당성當省에도 마찬가지로 연락이 없었다는 뜻으로 회보回報했습니다. 그런데 동행한 가와무라河村 육군 병학권조兵學權助가 사정으로 인해 그제 10일 귀경歸京했습니다. 그때 하나부사 외무대승이 저희에게 보낸 봉서封書 1통을 부탁받아서 전해주었습니다. 서장書狀의 대의는, 일단 부산포에 도착한 후 우선 퇴범退帆해서 9월 24일 이즈하라까지 철수했으며, 아직 초량관에 재근하는 관원의 보고 상황에 따라 도한渡韓할지 아니면 귀경歸京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양지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야나기와라 대승

해군 대소승大少丞 귀중

08 10월 12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2통】

원경遠境에서 재근하시느라 노고가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번 가을 이래로 절반 넘게 비가 내려서 모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 一. 도요우라현豊浦縣의 사쿠베作兵衛 외 1인이 조선국에 표류했다가 귀국한 사실을 신고했으므로 서류를 보내드렸지만, 아직 과연 조선에 표류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양지하시도록 말씀드립니다.
- 一. 류큐번왕琉球藩王에 봉한 건과 관련하여, 미국 공사가 건의한 내용은 별지의 왕복서류 사본을 보내드리니 이것으로 양찰하시길 바랍니다.

- 一. 러시아 친왕親王이 하루이틀 내로 도쿄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것은 후편後便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一. 나카야마中山 조세권두租稅權頭도 총영사에 임명되었습니다.
단, 어떤 나라에 재근하라고 분부가 내렸는지는 후편後便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一. 모리야마 소기少記와 히로쓰 소기少記가 칠위七位에 서임되었다고 식부료式部寮로부터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보낸 봉함封函 2통은 위기位記에⁵ 있을 것으로 생각되니,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이밖에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일지日誌와 신문지, 그 밖의 것은 목록[入記]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12일

야나기와라 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소기 님

히로쓰 소기 님

9월 27일자로 가와무라 병학권조兵學權助에게 부탁하신 서장書狀은, 그가 이번 달 10일 도쿄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고 잘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경공卿公께도

⁵ 위기(位記): 위계(位階)를 부여받는 사람에게 부여된 공문서. 위계가 칙임(勅任, 5위 이상), 주임(奏任, 6위 이하 내(內)8위, 외(外)7위 이상), 판임(判任, 외8위 및 내외 초위(初位))로 나뉘는 것에 따라 서식도 각각 상이했다.

정람呈覽하였습니다. 서장에서 쓰신 상황 등은 자세히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을 줄 압니다. 또한 앞으로도 진력하시기만을 바랄 뿐
입니다. 배구拜具.

임신壬申(1872년) 10월 12일

야나기와라 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목록[入記]

- . 일기 【79, 80, 81 총 3책】
- . 『요코하마신문橫濱新聞』 【3일부터 8일까지 총 16장】
- . 『호치신문報知新聞』 【18호부터 20호까지, 부속 등 총 4책】
- . 모리야마와 히로쓰에게 보내는 봉함封函 2통, 식부료式部寮로부터.
- .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그의 집에서. 봉함 1통
- . 하나부사 요시모토에게 소에다 세쓰副田節로부터. 봉함 1통
- . 센주千住에서 우쓰노미야宇津宮까지 마차馬車 임전표賃錢表 1개
- . 하나부사 대승에게 야나기와라 대승으로부터. 봉함 1통

이상과 같음.

10월 12일

09 식부료⁶ 式部寮로부터 조선국 지도⁶ 地圖의 반납 차질에 관해 보내온 서한

카에데야마 문고⁶ 楓山文庫⁶ 본本

조선국 지도 1매

이는 지난번 당료⁶ 當寮(式部寮)가 내사국⁶ 內史局에 보낸 것인데, 착오로 내사국으로 부터 귀 성⁶ 省에 반납했다고 하므로 조사해서 당료에게 반환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요청드립니다.

임신⁶ 壬申(1872년) 10월 14일

식부료

외무성 귀중

10 식부료에게 같은 건으로 보낸 회한⁶ 回翰

지난번에 조선국 지도가 내사국⁶ 內史局에서 당성⁶ 當省(외무성)으로 반환된 것은 착오라는 내용을 알려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이는 당성에서 나간 지도를 내사국에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를 제외하고 카에데야마 문고⁶ 楓山文庫⁶ 본本이라고 한 지도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선 반납된 지도를, 대조를 위해 보내드립니다. 회답하면서 이를 말씀드립니다.

임신⁶ 壬申(1872년) 10월 14일

외무성

식부료 귀중

⁶ 카에데야마 문고(楓山文庫): 모미지야마 문고(紅葉山文庫)를 뜻한다. 에도시대 막부가 에도성내 모미지야마(紅葉山)에 만든 도서관으로, 메이지정부가 옛 장서의 대부분을 인수하여 내각문고의 일부로 만들었다.

11 사관^{史官}에게 조선에 출장 나간 하나부사 대승이 보내온 서신을 회람^{回覽}한다는 글

사관^{史官} 귀중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조선에 출장 나간 하나부사 외무대승에게서 별지와 같이 연락이 왔으므로 양지 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15일

첨부 9월 17일자 재한^{在韓} 하나부사 대승의 서한

나날이 가을 냉기가 재촉하는데, 제공께서는 평안하시며 진중^{珍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가합^{春日艦}은 지난 10일, 유코마루^{有功丸}는 12일 병대^{兵隊}를 태우고 타이슈에 도착해서 그곳 무역서^{貿易署}를 조사했습니다. 공사무역^{公私貿易}과 관련하여 그 무역서에서 현재 갖고 있는 물품 등은 귀국 직전에 처리할 예정이므로 일단 맡겨 두었습니다.

- 一. 도서인^{圖書印}과 서류 등이 각각 나왔습니다. 이 도서인은 옛 교린괘^{交隣掛}에 속한 자에게 우선 맡겨 두었습니다.
- 一. 일행 관원은 지난 15일 새벽 타이슈에서 출범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경 가스가, 유코 두 함선 모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근일 외부^[조선의] 광경을 살펴보건대, 특별히 바뀐 것이 없고 화륜선의 도한^{渡韓}에 관해서도 크게 동요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인 소통사^{小通事}와 수영^{水營}에

있는 자들이 우리 선박의 배견拜見을 희망했으므로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一. 표류민 13명은 이즈하라에서 화선和船에 태워서 유코마루로 예인하여 건너 갔습니다. 일대관이 저 나라 임관에게 대조하는 것이 대략적인 절차로서, 임관으로부터 요청서를 받고 오늘 저녁에 인도 절차를 마쳤습니다.

一. 대관소代官所의 처리에 관해 규찰하고, 현재 보유한 물품의 조사도 마쳤으므로, 부채 상각 방법과 관련하여 임관에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一. 일대관一代官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명과 관련해서는, 5월에 차사差使 등이 입부入府해서 부재중인 상황에서, 부사와 면회하는 것에 대해 저들이 내의內意를 물어왔을 때, 제멋대로 대답한 전말을 조사한 끝에 모두 귀현歸縣 명령을 내리고 다음 날 아침 출범出帆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즈하라에서 친류親類⁷ 마치아즈케町預ヶ⁸ 등으로 처분하도록 사가현 출장소에 요청해 두었습니다. 그밖에 쓸모없는 사족과 줄췌은 모두 귀국 명령을 내렸으니, 조만간 퇴거할 것입니다.

이즈하라에서 평의評議한 것도 있으므로, 히로세 나오키에게 도한渡韓을 명령했습니다.

一. 일대관은 임시로 히로세 나오키에게 검무를 명해서 부적절한 일이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별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一. 전술한 대관소 무역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宗 종사위從四位로부터 어떤 요청이 있더라도 귀조歸朝할 때까지는 지시가 없길 바랍니다.

一. 두 함선이 착한着韓한 후, 관문館門은 평소처럼 열려 있고 소통사는 끊임없이 출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꾼과 품팔이 등의 부류는 일절 입관入館하지 않으니 이른바 ‘철시撤市’라는 것입니다.

⁷ 친류(親類): 본래는 가족을 제외한 친인척을 가리키는 말인데, 본문의 의미는 분명치 않다.

⁸ 마치아즈케(町預ヶ): 근세 일본에서 경범죄를 저지른 미결수나 참고인을 관계 관헌에게 맡기는 일.

이상의 내용을 대략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7일

하나부사 외무대승

외무대소승 귀중

추신. 소 씨^{宗氏}에게 보내는 봉함 1통을 대신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2 오사카 주재 사이토 사카에^{齊藤榮}가 조선에 건너갈 숙동^{熟銅}과 관련하여 타이슈 주재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보낸 서한

더욱 청적^{淸適}하심을 삼가 경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6일 이즈하라에서 출발^{出帆}해서 그날 밤은 시모노세키에서 5리 정도 떨어진 앞바다에 닻을 내렸습니다. 다음날 새벽 월관^{越關}해서 스오나다^{周防灘}⁹로 항행했습니다. 8일 아침 기계가 고장 나서¹⁰ 다도쓰^{多度津}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9일 오후 3시 반 효고^{兵庫}에서 닻을 내리고 이곳에서 석탄을 적재했습니다. 12일 아침 8시반 덴포잔^{天保山} 앞바다로 갈 계획이었으므로, 2일 전인 10일 오사카로 넘어가 여러 가지 준비한 정동^{丁銅}을 하역한 뒤에 출납료^{出納料}에게 인도 증서를 받았습니다. 또, 다시 인도할 숙동^{熟銅} 9,000근은 오는 23일까지 차질없이 준비될 것이라는 증서를 스미토모 기치자에몬^{住友吉左衛門}이 출납료에게 제출했습니다. 출납료는 이 숙동을 타이슈의 가이센^{廻船}¹¹ 도이야^{問屋}¹² 무로즈미야^{室積屋}에

⁹ 스오나다(周防灘): 세토(瀬戸) 내해 북서쪽에 위치한 해역.

¹⁰ 원문의 적도(適度)는 정도가 알맞은 것을 의미한다.

¹¹ 가이센(廻船): 에도시대 일본에서 항구 사이를 왕복하면서 승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던 배.

¹² 도이야(問屋): 에도시대 영주와 주민 사이의 중개자로서 역참마을의 자치행정을 담당함과 동시에 돈아바(問屋場: 역참에 관한 사무를 보던 곳)를 관리하던 관리의 장을 가리킨다. 가이센 도이야(廻船問屋)는 운송업과 도매업을 동시에 수행했다.

인도할 때까지 주의해 줄 것입니다. 타이슈에 적하積下하는 방법 등의 주선은 마에다前田 전사典事에게 의뢰했습니다. 숙동 9,000근의 인수 증서는 이미 무로즈미야에 전달해 두었으니, 출납료로부터 동銅을 인수할 때 교환할 예정입니다. 여러 준비가 정리됐습니다. 내려주신 숙동이 이즈하라에 도착하면, 별지 사본에 기록된 운임을 사이토 모토에몬齋藤本右衛門에게 지불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데부네手船에¹³ 적재해서 간 다음에는 물품에 따라 이즈하라에서 하역 등의 방법을 살펴보고, 곧장 이 배로 한지韓地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비용도 살펴서 타당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오니 감고勘考하시길 바랍니다.

또 유코마루有功丸는 효고와 오사카에서 술동이酒樽, 다타미疊表 기타 많은 적하積荷가 있었습니다. 공용[御用] 동銅의 하역을 마치는 것 외에 공무[御用]에 관계된 것이 없다면 고요즈미御用濟의¹⁴ 명령을 내려주실 것을 그곳의 출장회사出張會社가 서면으로 신청했으므로, 출납료에게도 상의하였는데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는 일찍이 하나부사 대승님에게도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 용무가 끝났다고 분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별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이를 아웁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16일

오사카에서

사이토 사카에

타이슈 이즈하라

모리야마 소기 님

¹³ 데부네(手船): 개인 소유의 선박.

¹⁴ 요즈미(御用濟): 관공서의 용무가 끝나서 면직하는 것.

첨부 무로즈미야 도모에몬室積屋友右衛門이 보낸 동銅 운송 비용의 견적서

각覺

- 一. 동銅 100근 당當 【오사카에서 타이슈까지 운임 金(金) 2주(朱)씩】
- 一. 위와 같음. 100근 당當 【하역 영(永) 1문(匁)씩/ 적재 영(永) 1문씩】 짐꾼 임금
【단, 선박 적재가 끝난 뒤에는 일절 비용 없음】

위와 같습니다. 이상.

신申(1872년) 10월 14일

도이야問屋

무로즈미야室積屋

도모에몬友右衛門

사이토 님

첨부 마에다나오카쓰前田直勝가 동銅의 선적 및 출범의 순서를 사이토 사카에에게 보고한 글

이번 달 17일 저녁, 사이토 모토에몬의 배가 오사카에 도착했습니다. 22일 무로즈미야 도모에몬, 상기 모토에몬이 모두 입회한 가운데 스미토모가 제동製銅을 수령했으며, 남김없이 모토에몬의 배에 실었습니다. 어쨌든 근일 출범할 것이므로, 우선 이를 안심하시도록 알려드립니다.

10월 26일

마에다 나오키쓰 前田直勝

사이토 외무대록 님

추신 二白. 몹시 황송하오나 모쪼록 별봉 別封 1통을 하인[家刺]을 통해 전달해 주시길 바라옵니다.

13 식부료가 조선 지도의 재조사[再調]에 관해 보내온 글

카에데야마문고본 楓山文庫本

조선국도 朝鮮國圖 1매

이는 당료 當寮(식부료)가 내사국 內史局에 보낸 것을 착오로 귀성 歸省(외무성)에 반납한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해줄 것을 요청드렸는데, 해당 지도가 없다는 취지로 회답이 있었습니다. 다시 내사국에 문의했는데 귀성에 보냈다고 답변했으므로, 이제 일단 조사해주시길 바랍니다.

임신 壬申(1872년) 10월 18일

식부료

외무성 귀중

추신. 예전에 대조를 위해 보내신 한문 지도는 돌려드립니다.

14 10월 19일 하나부사 대승 등에게 보낸 서신

가스가합春日艦은 지난달 10일, 유코마루有功丸는 12일 이즈하라에 도착해서 그 후 15일 출발하여 같은 날 오후 한지韓地에 도착했는데 그때까지의 경상景狀은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 표류민 등을 인도한 후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 및 사족士族, 졸卒 등을 각각 조치했다는 것,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4명의 선임宣任에 관한 것 등을 알려주셔서 잘 알았습니다.

- 一. 모리야마森山, 히로쓰廣津 두 명은, 소기少記가 폐지되었으므로 칠등출사七等出仕에 임명한다는 명령서 2장을 보내니 접수문서[御請書]를 속히 보내십시오.
- 一. 러시아 친왕親王은 이번 달 16일 요코하마에서 증기차蒸氣車에 올라 1시에 종자從者 30여 명과 함께 도쿄에 도착, 엔료칸延遼館에서 숙박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참조參朝하고 18일 1시 그곳에 임행臨幸한 후 3시에 환행還幸했습니다.
- 一. 대·중·소大中小 번무사辨務使, 대·소기大少記가 폐지되고, 공사公使와 서기관書記官을 설치한 것은 일지日誌로 양찰하십시오. 기타 일지와 신문은 별지의 목록[入記]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이상 양지하십시오.

임신壬申(1872년) 10월 19일

야나기와라 외무대승

하나부사 대승 님

모리야마 시게루 님

히로쓰 히로노부 님

목록[入記]

- 一. 일지日誌 【82, 83, 84, 85, 86 총 5개】
- 一. 『블랙신문フラック新聞』¹⁵ 【10월 7일, 9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8일, 19일 총 10매】
- 一. 『요코하마신문横濱新聞』 【11일, 12일, 13일, 14일, 16일, 17일 총 6매】
- 一. 『호치신문報知新聞』 【21호】

이상과 같음.

임신壬申 10월 19일

15 식부료가 보낸 조선지도 접수증

지난날부터 요청 드린 조선도朝鮮圖 1매를 반환하신 것을 이상 없이 접수했습니다.

임신壬申(1872년) 10월 24일

식부료

외무성 귀중

¹⁵ 블랙신문(フラック新聞): 1872년 영국인 John Reddle Black이 1872년 창간한 신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1861년 영문 주간지 *Japan Herald*, 1872년 일본어 신문 『닛신신지지(日新真事誌)』를 창간했다.

16 11월 5일 타이슈 주재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보낸 서신

한랭한 기운이 모여드는데,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재근 중에 노고가 크실 줄 압니다. 이쪽은 지극히 평온하며 성雀의 제공 모두 무양하게 예전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 一. 영국 런던 특명전권공사 부附 혼노本野 일등서기관은 지난달 26일 요코하마에서 출범했습니다.
- 一. 나카야마中山 총영사는 이탈리아 재근을 명받았습니다.
- 一. 우에노上野 변리공사는 미국 워싱턴 재근을 명받았습니다. 야노 지로矢野次郎는 이등서기관에 임명되어 수행을 명받았습니다.
- 一. 지난달 21일 러시아 친왕親王이 참조參朝했으며, 천황 폐하께서 같은 차로 사쿠라다櫻田 밖 조련장操練場에 임행臨幸하시어 연병식練兵式을 천람天覽하셨습니다. 이를 마치고 러시아 친왕과 각국 공사가 참조參朝했는데, 황후께서도 임석하시어 친히 접대하셨으며 모든 일이 원활하게 이뤄졌습니다.
- 一. 러시아 친왕은 부내府內 여러 곳의 순람巡覽을 마치고 지난달 28일 요코하마에서 출범했습니다.
- 一. 『복고람요復古學要』 2책
이 책은 하나부사 대승이 조선에 출장 나갔을 때, 당시 정원출사正院出仕 사지과史誌課의 후지카와 산케藤川三溪라는 사람과 이야기해서 보내온 것이므로 전달해 드립니다. 단, 사본 1책이 있으니 하나부사 씨에게는 별책別冊으로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는 일신복고一新復古의¹⁶ 사정을 조선인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후지카와 씨의 고심에서 만들어진 것이니, 그러한 생각으로 그쪽 관館에 비치해두십시오.

¹⁶ 일신복고(一新復古): 메이지유신의 왕정복고.

- 一. 사이토 사카에齋藤榮는 지난달 21일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 一. 히로쓰 히로노부가 이번 달 5일 아침 도쿄에 도착한 정상情狀을 잘 알았습니다.
 - 一. 하나부사 대승도 이번 달 2일 고베神戸에서 출범, 시슈志州¹⁷ 도바노우라戸場浦에 순회巡廻했으므로 금명일 내 귀경歸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후카미 로쿠로, 쓰카다 기사부로, 스미나가 유스케, 스미나가 게조 이상 4명에 대해 조선 재근의 명령서가 정원正院에서 내려와서 보내드리니, 각각 전달해 주십시오.
- 단, 스미나가 유스케는 면직免職되었다고 들었지만, 정원에서 명령이 내려 왔으므로 면직 전에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보내드리니, 그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알려 두십시오.
- 一. 일지, 신문지 등은 목록[入記]와 같습니다.

이상의 건들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11월 5일

야나기와라 대승

모리야마 시게루 님

목록[入記]

一. 『복고람요復古攷要』 2책

¹⁷ 시마노쿠니(志摩國)의 별칭. 위치는 오늘날 일본 동남부의 미에켄(三重縣) 도바시(鳥羽市) 전역과 시마시(志摩市) 대부분에 해당한다.

- 一. 일지 【87호부터 93호까지】
- 一. 『요코하마신문지横濱新聞紙』 【18일부터 30일까지, 13매】
- 一. 『호치신문報知新聞』 【22호, 23호, 총3매】
- 一. 『블랙신문フラック新聞』 【20일부터 30일까지 총 12매. 단, 24일은 휴일이라서 1매 부족】
- 一. 정원正院에서 후카미 로쿠로 외 3인에게 내린 조선재근명령서 4매

이상과 같음.

임신壬申(1872년) 11월 5일

왕복과往復課

17 11월 8일 모리야마 시게루가 초량관에서 온 서신을 첨부해서 보내온 서신

경卿 공을 비롯해 제위께서 더욱 복무에 정려精勵하시니 외람되오나 기쁘기 그지 없습니다. 소생은 무탈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하나부사 대승이 이곳에서 함선에 체재하던 중에 한지韓地에서 보고가 왔는데, 오는 24, 5일에 훈도가 내려와서 한 번 들렀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역풍으로 인해 소식이 단절되었는데, 오쿠 기세이奥義制가 지난 10월 29일 한지韓地에서 출범하여 이번 달 1일 밤 이곳에 도착해서 별지와 같이 응접의 사정을 상술했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곡절을 알아 보았는데, 훈도는 대구로 간다고 했지만 실은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이 안팎의 평설評說이라고 합니다. 삼체滯된 물품의 봉수捧受¹⁸ 방법에 관해 고심했는데, 대승이 도한渡韓하자 관내館內의 분위기도 쇄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물품을 수납 하면 갑자기 환명강면換名更面하여 조관朝官 운운하는 지점에 이르러선 지난봄부

¹⁸ 봉수(捧受): 돈이나 물건을 거둬서 받는 일.

터의 논란[公幹]이 재발再發하리라는 절반의 의구심이 있고, 또 절반은 갑자기 봉수
捧受하는 것은 성사되기 어려우리라는 것이 모든 이의 예상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별책의 응접으로 생각해보건대, 관내館內가 쇠신된 분위기이므로 후카미를
비롯한 출사出仕 배명拜命은 저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더라도, 우선 재수在守를
통해 우리의 저의를 탐지해서 반드시 논단論端을 얻기 전에 훈도가 결정하
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별책의 상황으로 보면, 이쪽에서 사소한 변해
弁解로 넘어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재수 등과 왕복을 거듭하기만 하면,
이들은 지금까지의 임역任譯의 지위를 차지해서 임역이 동래·부산 지역에
있는 듯한 형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안 될 일이므로 앞으로는 서서히 훈도·
별차의 입관을 기다린다는 뜻을 표시하고, 재수 등이 이것저것 단서를 열어
오더라도 추요樞要를¹⁹ 개유開諭하는 것 외에 사소한 문제는 단지 옛날과 체통이
같지 않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훈도가 내려와서 삼체된 물품을 수납受納
하길 바란다고 할 때까지는 여유 있게 기다리면서 개시開市와 그 밖의 일은
우선 잠시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또 최근 대·중선大中船 비선飛船
의²⁰ 스이코吹噓를²¹ 휴대하게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우려되는 바가 있으
므로 또한 장래 논란을 일으켰을 때 개시開示하는 방법 등을 내유內諭했습니다.
오쿠 기세이는 지난 4일 오전 히로시마 어선으로 도한渡韓하게 했는데, 그
뒤로 순풍이 계속되었으므로 신속히 착한着韓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대개 먼저 나서서 왕래하지 말고, 가능한 한

¹⁹ 추요(樞要):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안.

²⁰ 비선(飛船): 조선 시대 중국이나 일본 사이에 왕래한 작은 패속선으로 사람이나 서간 등을 운반했다. 특히 대일관계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 부산에 들어오는 비선은 스이코(吹噓)를 소지해야 했다. 보통 1척에 두왜(頭倭) 1명, 격왜(格倭) 6~7명 정도가 탑승했다. 입항하는 비선의 수에 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쓰시마는 이를 자주 파견해서 밀무역 등에 이용했다.

²¹ 스이코(吹噓): 쓰시마 도주가 발행하던 도항증. 와니우라(鰐浦)의 세키쇼(関所)에서 발급했다. 대선(大船)은 세건선의 형식으로 도항증을 발급했다.

의아심을 풀도록 대접하는 데 전념하도록 지시해두었습니다.

- 一. 얼마 전부터 대·중大中 상선 5척 정도가 도한渡韓했는데, 이에 따라 점차 편결便乞하는²² 상인商人도 있으니 관내館內에서도 점차 진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때 몇 척의 선박이 바다를 건너온 것은 지난번 이래로 잠시 통로가 막히고, 그 사이에 재관在館 상인들이 매입한 물품도 증가하고 있으니, 그 운수運輸를 위해 왕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반드시 중단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간晝間 상민商民의 흥정은 그다지 달라진 것이 없지만, 저 잠상潛商은 밤마다 제멋대로 횡행한다고 합니다. 황년荒年の²³ 사정을 탐색한 글을 발췌해서 첨부한 대로입니다.

상기 잠상의 묵허默許는 당연하지만, 대번에 공공연한 형세로 만들면 저들이 갑자기 엄밀하게 단속해서 일시에 상로商路가 단절될 것은 필연이니, 점차 안팎으로 묵허하는 지위를 얻도록 유념하라는 뜻으로 오쿠 기세이에게 지시해두었습니다.

- 一. 조선 흥년의 정상情狀은 무언가 확증을 얻기 어렵지만, 점점 들어오는 탐장探狀으로 상고해보면 흉작은 틀림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건에 관한 탐색서를 보내드리니 모쪼록 참작하시길 바랍니다.
- 一. 관내 모든 사람의 관계는 대단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생이 살피건대, 훈도의 궤병[作病]도 갑자기 차도가 있기 어려우니, 언제 나처럼 애매하게 어떤 일도 분명하게 하지 않고, 한때 교활한 말을 내세워 순로順路를 막는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금일 관館에 있는 사람들도 우선 여유 있게 대처한다는 것만큼은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진보

²² 편결(便乞): 의미가 분명치 않으나, 문맥으로 볼 때 ‘구걸’의 뜻으로 보인다.

²³ 황년(荒年): 흉년.

進歩의 형세로는 움직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9월 중 한지韓地 비용기록[入用記]을 보내드립니다.
- 一. 이곳 어학소語學所는 지난달 25일 개소했는데, 사족士族의 자제들이 다투어 입교해서 현재 생도 수 34명 가운데 예전 계고통사稽古通詞는 5명뿐입니다. 등급에 따라 학자금을 보내서 날마다 장려하고 있습니다. 신입 생도 중에는 상당한 인물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는 상당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교종규정校中規定을 보내드립니다. 그 건축과 관련하여 보수 비용 등은 아직 정리하기 어려우므로 후편後便으로 보내겠습니다.
- 一. 예전 무역하던 자들로부터, 나가사키 주재 간자키 도쿠지로神崎徳次郎²⁴ 외 1명의 급료와 기타 건네주어야 할 금액을 별지와 같이 처리해줄 것을 신청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들었으므로 건네주도록 처리했습니다. 해당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一. 대승大丞님께서 귀경歸京하신 뒤로 점차 성省에서 논의도 마무리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번 알려주시길 기다립니다.
- 一. 지난번 무역하는 자들이 보낸 이곳 사고노우라佐渡浦의 석탄은 가스가함春日艦에서 분시焚試를 하였는지요? 숙련된 자들이기는 하지만, 시험에 내보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세히 알려주시길 기다립니다.
- 一. 히로쓰廣津, 사이토齋藤 두 분에게 부탁한 서류, 일지, 신문류 등을 속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요提要²⁵만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11월 8일

모리야마 시게루

²⁴ 원문은 '神崎徳次郎'로 되어 있다.

²⁵ 제요(提要): 요점만을 추려서 정리한 것.

첨부 10월 28일 오쿠 기세이(奥義制)로부터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온 서한 및 탐색서

외무 대소승기(大少丞記) 귀중

야나기와라 님, 하나부사 님께 오쿠 기세이가 드리는 서장(書狀) 2통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 나가사토 도쿠우에몬(長里徳右衛門)의 표착(漂着)에 관한 공보(公報) 취조서 1철
- 9월 28일부터 한지(韓地)에서의 응접서 1철
- 【이 부분은 별도 철(綴)에 들어감】 조선 기년(饑年)²⁶ 탐색서 1철
- 옛 무역하던 자들이 보낸 서류
- 초량관 비용기록
- 어학소(語學所) 규칙서(規則書)

이상.

조선 흥세(凶歲)²⁷ 탐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로 고찰했습니다. 그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참고하시도록 다음과 같이 아웁니다.

²⁶ 기년(饑年): 흉년.

²⁷ 흥세(凶歲): 흉년.

一.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의 설에, “한국의 일은 예로부터 탐지하기 쉽지 않습니다. 몇해 전 술과 안주를 들고 부산·동래 양시兩市가 열린 날에 한인이 왕래하는 길가에²⁸ 자리를 까는 등의 일도 있었다고 들었으므로, 지난 19일 아침 그 사람[同人]의²⁹ 집으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오늘은 부산 시장이 열리니 탐색을 위해 술과 안주를 들고 야행野行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자 크게 동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공무를 일찍 마치고 12시부터 모두 그곳으로 갔는데, 그 사정은 문서[御用狀]에 기록한 내용과 같습니다. 같은 달 24일에 다시 갔지만, 공교롭게도 비가 쏟아져 탐색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질없이 술과 안주만 허비한 채 중도에 돌아왔습니다.

一. 미쓰이 겐에몬三井善右衛門은 최재수崔在守와 가까운 사이로, 재관在館 상인 중에는 가장 발이 넓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러와 당시 상매商賣와³⁰ 그가 도한渡韓한 이후 이곳의 성쇠盛衰 등을 천천히 이야기하던 중에 한 잔 권하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제작년 함경도에 기근이 들어 경상도 이쪽에서 쌀을 올려보내 상매商賣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이쪽에서 1표倭³¹에³¹ 대전大錢 1관貫 정도였던 쌀이 5관문貫文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함경도는 논이 매우 적고 밭만 있을 뿐이어서, 토민土民의 주식이 피[稗]와 조[粟]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평년에도 이쪽에서 쌀을 보내서 생활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 아사餓死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 묶어둔 말을 훔쳐 가 잡아먹고는 그 흔적이 발견되어 말 주인이 꾸짖어도 변상하면 되지 않느냐고 대꾸하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러시아와 인접한 곳은 대체로 그 나라로 이주하고 있는데, 점차 조선에서 사람을 파견하여

28 원문은 “韓入往來ノ路傍ニ”로 되어 있는데, 문맥상 ‘入’은 ‘入’의 오기인 것으로 보고 옳겠다.

29 ‘同人’은 보통 앞에서 언급된 사람을 다시 지칭하는 말인데, 이 문맥에서는 확실치 않다.

30 상매(商賣): 판매.

31 표(倭): 4말(斗)에 해당하는 무게로 약 60kg에 해당한다.

송환을 재촉해도 그 백성들은 생활이 편하므로 끝내 귀국을 바라지 않고, 지금도 러시아에 의뢰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흉작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소와 말이 많이 도축되고 있다고 들었으며, 이에 따라 값이 치솟고 있으니 이것이 자명한 증거입니다.

一. 재관在館 상인들에게 대체로 떠보자 말한 내용

작년은 조선의 위쪽[上]【위쪽이란 함경도 등을 말함】지방에서 흉작이라고 했으나 아사餓死에 관해선 듣지 못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작황도 꽤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지방은 알지 못하나, 관외館外의 논밭을 보건대 올해는 7푼分 5리厘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매년 가을 9월 말부터 햃곡식이 관내館內로 들어오는데, 올해는 지금도 【즉, 10월 하순】 가져오지 않고 모두 묵은쌀뿐입니다. 그것도 가져오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8, 9일 이전의 묵은 곡식도 조금씩 차례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밥 짓는 쌀[飯米]에 어려움이 있고, 불미佛米로³² 봉원奉願하려는 마음이지만 우선 당장은 지장이 없습니다. 20, 30의 쌀은 매입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一. 어째서 묵은쌀만 가져오고, 햃곡식은 가져오지 않는가?

쌀이 올라오고 올라오지 않는 것은 상매商賈의 흥정에 가장 관계되는 것으로, 어떻게든 탐색하고 있지만 분명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조선인이 아무리 경천輕賤한 자들이라고 해도, 그 나랏일은 결코 누설하지 않는 풍속이므로 어떤 일도 쉽게 탐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햃곡식은 여하튼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묵은 곡식은, 세견선 공미公米로 충당하던 것을 당시에 비축해 두었는데, 필경 햃곡식이 부족해지는 와중에 세견선이 폐지되었으므로 그 쌀을 저가로 불하拂下했을 것입니다. 관내館內로 가져오는 것도 바로 그 쌀이라고 들었습니다.

³² 불미(佛米): 밥을 지어 부처님 앞에 봉양하는 쌀.

一. 참고하는 데 도움이 될까 생각하여, 사년巳年(1869)부터 신년申年(1872)까지 4년간 쌀, 대두, 소두, 소 등의 시가時價의 연혁을 만약을 위해 조사했는데, 상인들이 다음과 같이 진술했으므로 표로 정리했습니다.

사년巳年(1869)	오년午年(1870)	미년未年(1871)	신년申年(1872)
【5말 3되33들이】쌀 1표俵 【관내 매입가】	쌀 1표俵 【앞과 같음】	쌀 1표俵 【앞과 같음】	쌀 1표俵 【앞과 같음】
봄 대전大錢 1관 150문 여름 대전 1관 200문 가을 대전 1관 27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1관 30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1관 100문 겨울 대전 1관 150문	봄 대전 1관 10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1관 5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1관 200문 여름 대전 1관 300문 가을 대전 1관 200문 겨울 대전 현재 10월 하순 위와 같음
대두 1표俵 【관내 매입가】	대두 1표俵 【앞과 같음】	대두 1표俵 【앞과 같음】	대두 1표俵 【앞과 같음】
봄 대전 85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65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85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65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650문 여름 대전 700문 가을 대전 75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800문 여름 대전 850문 가을 대전 900문 겨울 대전 700문
소두 1표俵 【관내 매입가】	소두 1표俵 【앞과 같음】	소두 1표俵 【앞과 같음】	소두 1표俵 【앞과 같음】
봄 대전 1관 20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위와 같음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1관 30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1관 20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1관 200문 여름 대전 위와 같음 가을 대전 1관 100문 겨울 대전 위와 같음	봄 대전 1관 200문 여름 대전 1관 400문 가을 대전 1관 200문 겨울 대전 1관문
소 1필	소 1필	소 1필	소 1필
봄·여름 동同 4,5관문 가을·겨울 동	봄·여름 동 4,5관문 가을·겨울 동	봄·여름 동 대상大上 14,5관문 가을·겨울 동 중中 10관문 병並 ³⁴ 6관문 동同 ³⁵ 5관문	봄·여름 동 대상 14,5관문 가을·겨울 동 중 10관문 병 8관문 동 7관문
우육牛肉 1근	우육 1근	우육 1근	우육 1근
봄·여름 동 25문 가을·겨울 동 30문	봄·여름 동 30문 가을·겨울 동 35문	봄·여름 동 35문 가을·겨울 동 40문	봄·여름 동 50문 가을·겨울 동 80문 100문

단, 대전大錢이란 한주韓鎊임. 관내館內에서 740문文을 1엔圓으로 교환하는 것이 지금 시가時價임.

³³ 원문은 ‘舛’로 적혀 있으나, ‘되’를 뜻하는 ‘升’ 또는 ‘桁’의 오자인 것으로 보인다.

一. 이제까지 묵허默許해 왔던 야간 잠상潛商은 단속을 당해서 며칠 전부터 은밀히 조사하며 주의하고 있는데, 이번 달 16일 밤부터 어제 27일 밤까지의 곡물 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 백미白米 46포俵
- 대두大豆 172포
- 소두小豆 9포

이상은 대략으로서, 이밖에 조시朝市에 조금 가져오는 것도 있는 듯합니다. 또 약 종류와 목면木綿 등은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잠상선潛商船은 매일 밤 1, 2척 혹은 4, 5척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2월과 10월은 저들의 대구市(大邱市)로서 잠상이 전행(專行)하는 때라고 함】 하지만 1척의 선박에 겨우 미·두米豆 2포俵 정도 실어 왔습니다.

一. 입관入館 조시朝市의 설은 분잡紛雜해서 취하기에 부족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조선에서 아사餓死가 있다는 것은 필시 소가 병으로 폐사한 것의 와전일 것입니다.
- 조선에서 올해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 조선 올해는 작황도 좋습니다.
- 조선에서 올해 상부 지방은 좋지 않다는 등의 소문도 들었습니다.

이상.

이상에서 기록한 대로입니다. 앞으로 더욱 우충愚衷을 다해서 탐지하는 바가

³⁴ 병(並):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상품의 의미.

³⁵ 좋지 않은 품질의 소는 보통 ‘小나 ‘下’를 쓴다.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확증을 얻기 어려움은 유감입니다.

제[기세이(義制)]가 전건前件에 관해 신중하게 숙고해보건대, 지금 조시朝市·입관入館의 상황, 야간 잠상潛商, 기타 관내館內 상인들의 정태情態가, 요전에 보내주신 상하이 신문에서 언급한 정도의 기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며, 지방에 따라 수확이 좋지 않음은 필연일 것입니다. 햇곡식이 아직 나오지 않고, 또한 우육牛肉 등의 값이 등귀했을 뿐만 아니라 매입하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또 선편先便으로 말씀드린 별차別差가 재수在守에게 말을 전해서 제출한 글 가운데, “우리나라의 곡식 생산은 천하가 상찬한다고 할 만하며, 비록 모처에서 흉년이 들었더라도 배로 곡식을 실어 보내고 사람으로 들고 나르게 하니, 본디 군겁窘蹙이라고³⁶ 할 만한 사단이 없으니, 원래 이것이 이례已例이다.³⁷ 또 올해는 팔도가 균평均平해서 흉년이 든 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반복해서 음미해 보건대, 저들이 흉년을 감추고자 했지만 오히려 저절로 드러내 버렸습니다. 왜냐면 조선이 비록 작은 나라라고 하지만, 팔도 안이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도가 평균平均이라고 했습니다. 더구나 ‘원래 이것이 이례已例이다.’라는 말을 주목해야 하니, 저들의 지방에 흉년이 든 것이 명백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은 관견으로 살핀 바로서, 외람되오나 편지 말미에 부쳐서 올립니다.

한국 초량 재류在留

임신壬申 10월 28일

오쿠 기세이

본성本省

대·소승 님 합하

³⁶ 군겁(窘蹙): 군색(窘塞).

³⁷ 이례(已例): 선례(先例).

첨부 11월 7일 오후 기세이로부터 모리야마 시게루에게 온 서한

10월 19일 모든 관리가 외유外遊를 나간 상황이 되어 다카토미高遠見³⁸ 아래 큰 길에 자리를 깔고 있었는데, 과연 행객行客이 지나가다가 곁에 접근했습니다. 그러므로 제[나오유키(直行)]가 불러서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술과 안주를 꺼냈습니다. 객의 거주지를 물었습니다.

- 다태포多太浦의 사람이오.
- 관직이 있소?
 - 초관哨官으로³⁹ 근무하고 있소.
- 성명은 어떻게 되오?
 - 전씨田氏요, 이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소. (이렇게 말하면서 자꾸 감추려고 했습니다.)
- 올해 농사는 어떻소?
 - 좋다고는 하기 어렵소.
- 다른 도道는 어떻소?
 - 다른 도는 잘된 곳도 있고, 잘되지 않은 곳도 있을 것이오.
- 멀리 있는 함경도 주변은 어떻소?
 - 농사가 잘된 모양은 아닌가 보오.
- 그 지역은 작년 즈음까지 4, 5년 동안 흉작이 계속되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소.
 - 그 소문은 나도 들었소.

³⁸ 다카토미(高遠見): 현재 부산 엄광산(嚴光山). 일본인들에 의해 산이 높아서 멀리 볼 수 있다는 의미의 '다카토미'로 불리다가 1995년부터 원래의 이름을 되찾았다고 한다.

³⁹ 초관(哨官): 100명으로 편성된 군대 단위인 초(哨)를 통솔하는 종9품 무관.

- 기아로 인해 사람이 죽은 일까지 있었소?
 - 사람이 죽었다는 등의 말은 듣지 못했소.
- 평안·강원 주변은 어떻게?
 - 평안도도 흉작이라고 들었소. 강원도도 올해는 좋지 않소. 강원도는 동풍 東風이 많은 해는 풍해를 입어서 농사가 잘되지 않는데, 올해는 동북풍이 많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오.
- 경기·황해·충청·전라 등은 어떻게?
 - 그곳들도 흉작이라는 소문은 듣지 못했소.

이 행객을 응대하던 중에 신분이 낮아 보이는 자가 다가와서는, “충청도는 상당히 농사도 잘된 모양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은 뉘시오?”라고 물었습니다.

- 나는 충청도 사람으로 올해 5월 향리를 떠나 여기저기서 행상 등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소.
- 근년 농사는 어떻게?
 - 상당히 잘 된 것 같소. 올해는 좋은 상황이라고 들었소.
- 함경·평안 주변의 상황은 어떻게?
 - 잘된 농사라고는 듣지 않았소.
- 기아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등의 말은 없소?
 - 그런 설은 듣지 못했소.

4일 그쪽에서 발선發船한 후, 역풍과 강한 비를 만나 밤 10시경 마와리우라廻浦로 가서 정박했습니다. 다음 날 5일 동풍東風이 불어 6시 넘어 발선發船하고, 밤 12시 넘어 관館에 도착했습니다. 이즈하라에 재류하던 때, 간곡한 이야기와 교시敎示하신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우선 명심시키라고 하신 부분은 빠짐없이 전유傳諭했습니다. 또한 어젯밤 관사館司 저택에 간 히로세廣瀬와 하루타春田도 별석別席을 마련해서, 대선大船에 비선飛船의 스이코吹囓를 건네준 것, 그리고 저들이 신청한 관원과의 건등에 임기응답臨機應答하는 것 등에 관해 교시하신 취지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가설假設하여 히로세가 한인韓人을 맡고 제가 답하거나 혹은 제가 최재수가 되어 히로세에게 답하게 하면서 지난날부터의 응접서應接書에 기초해서 귀에 대고 누누이 설유說諭했습니다.

대선大船에 비선飛船의 스이코吹囓를 건네는⁴⁰ 것은 외부外向(조선)에서도 지극히 당혹스러워한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저들이 신청한 대로, 지금까지 대선에 건네준 스이코의 잔여분이 있으면 그것을 건네주고, 그 스이코가 다 넘어간 경우에는 요청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오늘날 건네준 비선의 스이코의 경우 새로 만든 것이 아니니, 이 경우에는 그다지 저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일이 아님은 물론입니다.

【이상은 히로세의 설명으로, 후카미와 다른 이들도 동의함】

이와 관련하여,

기세이義制가 말하길, “하지만 이미 자세히 아뢴 것처럼, 세견선歲遣船이 폐지된 뒤로 수목선水木船은⁴¹ 사라져야 하니 관선官船에 속한 스이코를 상선商船에 부여하는 것은 안 될 일이라고 하며, 또 대선大船 스이코의 잔여분을 건네 주더라도 그 잔여분의 수가 원래 한도가 있어서 영속永續되는 물건이 아님

⁴⁰ 원문에는 ‘相凌’으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相渡’의 오키인 것으로 보인다.

⁴¹ 수목선(水木船): 바다에서 선박에 식수와 땀감을 공급하는 배.

니다. 또 조리상 오늘 고치지 않더라도 훗날 고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물며 만사의 제도를 개혁하는 시기에 있어서겠습니까? 비선의 스이코도 새로 만든 물건이 아니라는 등의 말은, 이미 이는 저들에게도 통지한 것처럼 문인 文引과 도서圖書 등은 우선 잠시 선례대로 처리해야 합니다. 비선은 왕래선 往來船이며 관선官船입니다. 오늘날의 대선은 상선이니, 마찬가지로 어려운 논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부득불 타당한 이치를 저들에게 설유說諭하되, 저들의 대답 여하와 제안의 결론에 이르러선 그것은 저희가 알 바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승大丞님의 분부를 받아 집행할 뿐이니, 그 이의 [異難]의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대승님께 아뢴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도 훈도가 입관入館한 후 자세히 응답해야 합니다. 그쪽의 일은, 【재수(在守)를 배척하고 말함】 훈도가 말로 신청해서 여러 차례 왕복하더라도 필경 쓸 데 없을 것입니다. 그쪽은 원래 재주와 능력이 있으니 충분한 답판을 하고 싶지만, 애석하게도 해당 임무를 맡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통지하더라도 오히려 혼란만을 더할 뿐, 본디 통지할 수 있는 당국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훈도가 입관하면 모든 일을 알게 될 것이니,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응접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단, 어젯밤 히로세 등에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아침 스이코에 관해 재수 在守가 출두해서 쓰카다束田, 스미나가住永가 응답했습니다. 첫 응접 내용에 따라 다시 앞 내용의 취지를 두 사람에게 정중하게 전유傳諭했으니, 바로 공문[御用狀]에 첨부한 두 번째 대화서와 같습니다. 지난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는 흉중[腹中]이 유여有餘합니다. 그러므로 응접 간의 정태情態를 직접 살펴봄에 언어동정言語動靜과 완급변통緩急變通에 저절로 일산一算을 얻는 듯했습니다. 대화서 가운데 저들의 어기語氣가 터럭 하나도 용납지 않는데, 우리가 대답하며 제기해야 할 사항들이 적지 않음을 깨달았으니,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一. 저들이 들여보낸 석탄 및 땔감과 관련하여, 지난날 교시하신 것도 있으므로 후카미·히로세·하루타가 모인 자리에서 ‘현재 상황에서 석탄 및 땔감만 편안히 여기면서 저들로부터 접대를 받는 이치는 없다. 하지만 재관在館 중에는 서로 지장이 있을 것이니,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하게 해줄 것을 응접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라고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히로세가 말했습니다. “이 건은 동래·부산만의 조치가 아니며, 한국 조정에서 후의로 접대하고 있는 것이니, 이를 거절하는 경우 만약 저들이 ‘구매하는 것은 안 된다. 또 조정의 후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가?’라는 말 등을 걸어온다면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기세이가 말했습니다. “소 씨宗氏의 예전 모양으로는 타당할 수도 있으나, 오늘날에 이르러선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땔감과 식수를 부조扶助하는 것은 원래 타당한 일이라서 구매하는 것을 거절한다면, 상당한 감사 물품을 보내거나, 또는 시의時宜에 따라 그러한 일이라면 본주本州에서 수송 해올 수도 있으니 저들이 들여보내기 전에 사절해야 합니다.”

그때 하루타가 말했습니다. “재수의 말에, 내년 봄부터 들여보낼 석탄과 땔감은 종전의 반씩이라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히로세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들이 감축해서 올 때, 구매를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기세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오십보백보입니다. 또 줄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은, 저들의 후의도 온전히 보존하는 중이므로 저들에게도 마땅한 때이지만, 우리 조리條理에 따라 먼저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또 한국 조정의 후의라는 말은 대단히 믿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응접하는 중에 재수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그가 부산첨사에게 호출받아 관중館中에 석탄과 땔감을 들여보낼 집들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데, 관사館司·일대관一代官·이대관二代官 등이라고 답하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 첨사: 대관代官은 없을 터이다. 이름은 무엇이나?
- 답: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입니다.
- 첨사: 그렇다면 도요키치에게는 들여보내도 되지만, 일대관에겐 들여보내선 안 된다. 이대관二代官은 누구냐?
- 답: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입니다.
- 첨사: 조주로는게는 들여보내되, 이대관에게는 들여보내선 안 된다. 또 옛 대관소가 이전한 뒤의 역소役所에는 들여보내지 않는다.

만약 저들이 후의로 접대하는 것이라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간화懇話했지만,⁴² 후카미도 당분간 종전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체재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나, 어제오늘 대요大要의 사건에 관해 응답 중이므로 있는 그대로 적었습니다. 교시를 바랍니다.

- 一. 지난달 20일 그쪽에서 출범한 하루타마마루春玉丸의 표착漂着과 관련하여, 공문[御用狀]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승선한 중에 빌린 양미糧米의 변제는 구진서口陳書를 제출하더라도 접수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세이는 접수하고 접수하지 않고는 저들에게 달린 것이니,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 一. 공무를 취급하는 가운데 내평內評⁴³ 등을 하면서 각원各員이 의견을 진술했지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망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으나,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을 굳이 묻는다면 대체로 같은 의견으로서, 이견異見을 토로해서 참고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억지로 아뢰기에도 부족하나, 새로 도한渡韓한 저로서는 현지 사정에 아직 익숙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초하여 사기

⁴² 간화(懇話): 마음을 터놓고 친밀하게 대화하는 것. 간담(懇談).

⁴³ 내평(內評): 은밀한 평론(評論)이나 평의(評議).

事機를 그르칠까 두려우니 숙려하며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중館中の 일을 모두 논의하지 않는다면 타락墮落하여 진전하지 못하고, 또 논의가 지나치면 앞에선 복종하고 뒤에선 말을 하는 등 도리어 그 취지를 잃을 것입니다. 저[기세이(義制)]는 이 임무가 어려운데 오직 미력微力함만을 근심할 뿐이니, 부디 현명하게 살피주시길 바랍니다. 글에 다하지 못한 내용은, 불일내 귀범歸帆하는 대선大船도 있으니, 그때 다시 아뢰겠습니다. 우선 이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초량 재류

임신壬申 11월 7일 새벽

오쿠 기세이

이즈하라

모리야마 소기 님

추신. 본성本省에서 공무[御用] 편이 있으면, 부디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 **공사무역公私貿易** **현유품**現用品⁴⁴ **대가**代價의 **적립서**積立書

공사무역 현유품 가격의 적립 조서調書

■ 이즈하라 무역서貿易署 현유품

一. 백미白米 256섬石 5말斗 8되升 4홉合 3작勺 2재才

대가 975엔円 2전錢 4모毛

【1섬당 약 3엔 80전】

⁴⁴ 현유품(現用品):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

一. 대두大斗 7섬 9말 5되

대가 30엔 21전

【1섬당 약 3엔 80전】

一. 소목蘇木 757근 105문외【부스러기[屑】】

대가 27엔 46전 5리釐

【100근당 약 3엔 62전 5리】

一. 명반明礬 69근 30목目【에리쿠즈(撰屑)⁴⁵】

대가 2엔 42전 1리 5모毛

【100근당 약 3엔 50전】

一. 목면木綿 18필

대가 14엔 76전

【1필당 약 82전】

一. 호피虎皮 4매

대가 28엔

【1매당 약 7엔】

一. 표피豹皮 2매

대가 4엔

【1매당 약 2엔】

一. 흰 베[白布] 1필 반

대가 74전 2리 5모

【1필당 약 49전 5리】

一. 흰 명주[白紬] 1필

대가 13전 5리

一. 유포油布 35필

대가 4엔 72전 2리 5모

【1필당 약 13전 5리】

一. 납과평포蠟掛平包 2매

대가 37전

【1매당 약 18전 5리】

一. 포평포布平包 1매

대가 13전 5리

⁴⁵ 에리쿠즈(撰屑): 골라내고 남은 것.

一. 대유지大油紙 43매	
대가 15엔 48전	【1매당 약 36전】
一. 기름[油] 5말 6되 7홉 5작	
대가 15엔 32전 2리 5모	【1되당 약 27전】
一. 붓[筆] 159자루[本]	
대가 1엔 43전 1리	【1자루당 약 9모】
一. 먹[墨] 33개[挺]	
대가 5전 9리 4모	【1개당 약 1리 8모】
一. 마성馬省 45개	
대가 1엔 95전 7리 5모	【1개당 약 1전 3리 5모】
一. 가사가미笠紙 136매	
대가 1엔 30전 5리 6모	【1매당 약 9리 6모】
一. 화문석[花簾] 46매	
대가 23전	【1매당 약 5리】
一. 대추[棗] 4말 9되	
대가 88전 2리	【1되당 약 1전 8리】
一. 팻말[笥] 25매	
대가 6전 7리 5모	【1매당 약 2전 7리】
一. 한전韓錢 186관문貫文	
대가 279엔	【1문당 약 15문으로 환산】
	【1엔당 10관문으로 환산】
이상 금鎰 1,403엔 71전 7리 4모	

■ 한지韓地 현유품

一. 소목蘇木 690근

대가 34엔 50전

【100근당 약 5엔】

一. 명반明礬 620근

대가 26엔 4전

【100근당 약 4엔 20전】

一. 마키에蔦繪 대연합大硯函 5조組

대가 22엔 50전

【1조당 약 1엔 50전】

一. 마키에 중연갑中硯匣 2조

대가 2엔

【1조당 약 1엔】

一. 마키에 대환분大丸盆⁴⁶ 1속束

대가 3엔

一. 마키에 요지料紙⁴⁷ 상자 13개

대가 24엔 37전 5리

【1개당 약 1엔 87전 5리】

一. 마키에 큰 찬합[大重箱]⁴⁸ 2조

대가 2엔 50전

【1조당 약 1엔 25전】

一. 마키에 문고文庫 1개

대가 4엔

一. 흑도黑塗 수촉手燭 3자루

대가 1엔 87전 5리

【1자루당 약 62전 5리】

一. 흑도 요지料紙 1장

대가 1엔 12전 5리

⁴⁶ 환분(丸盆): 일본어로 '마루분'이라고 하며, 둥근 쟁반을 뜻한다.

⁴⁷ 요지(料紙): 일본어로 '료지'라고 하며, 용지(用紙)를 뜻한다.

⁴⁸ 중상(重箱): 일본어로 '주바코'라고 하며, 찬합을 뜻한다.

一. 흑도 문고文庫 1개

대가 3엔 12전 5리

一. 금병풍金屏風 1쌍

대가 12엔

一. 주간연기朱竿烟器 30자루

대가 1엔 8전

【1자루당 약 3전 6리】

이상 금金 138엔 12전

二口⁴⁹

도합 금 1,541엔 83전 7리 4모

이상은 공무公買 잔품殘品の 부분임.

■ 이즈하라 무역서貿易署 현유품

一. 빈 동이[空樽] 1정挺

대가 13전 5리

一. 다타미疊表 2매

대가 36전

【1매당 약 18전】

一. 사금砂金 34문 7푼分

대가 69엔 40전

【1문당 약 2엔】

一. 상은上銀 3관 2문 9푼

대가 360엔 34전 8리

【100목(目)당 약 12엔】

⁴⁹ 二口: 의미가 불확실하나, 앞의 '이즈하라 무역서 현유품'과 '한지 현유품'의 대가를 합산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一. 쌀[米] 1섬 4말 4되 9홉 1재	【창고에서 남은 후케마이(更米) ⁵⁰ 】
대가 1엔 44전 9리	【1섬당 약 1엔】
一. 백사장白砂張 ⁵¹ 11개	
대가 19전 8리	【1개당 약 1전 8리】
一. 소 힘줄[牛筋] 4근 7홉 5작	
대가 85전 5리	【1근당 약 18전】
一. 대유지大油紙 115매	
대가 41엔 40전	【1매당 약 36전】
一. 도견대塗見臺 ⁵² 1각脚	
대가 5엔 55전	
一. 다타미畳 28첩疊	
대가 1엔 75전	【1첩당 약 6전 2리 5모】
一. 대자리[筵] 461매	
대가 16엔 59전 5리	【1매당 약 3전 6리】
一. 위와 같음. 1,528매	
대가 76엔 40전	【1매당 약 5전】
一. 당지唐紙 3속束 190매	【그 종이의 수는 790매임】
대가 11엔 85전	【1매당 약 1전 5리】
一. 기와[瓦] 1,647매	
대가 14엔 82전 3리	【1매당 약 9리】
一. 우피牛皮 72매	
대가 50엔	【1매당 약 69전 4리 4모】

⁵⁰ 갠미(更米): 일본어로 ‘후케마이’라고 하며, 물에 젖거나 벌레 등이 먹어서 썩은 쌀을 뜻한다.

⁵¹ 사장(砂張): 주석을 약 20% 정도 함유한 구리 합금. 찻그릇 등을 만들 때 사용됐다.

⁵² 견대(見臺): 일본어로 ‘겐다이’라고 하며, 책 등을 올려놓고 보는 독서대를 말한다.

- 一. 우마골牛馬骨 2,240근
대가 22엔 40전 【100근당 약 1엔】
- 一. 금건목면金巾木綿 600필
대가 832엔 【1폭의 물건】
【1필당 약 1엔 38전 6리 6모 남짓】
- 一. 해황견海黃絹 100필
대가 587엔 50전 【1필당 약 5엔 87전 5리】
- 一. 위와 같음. 9필
대가 49엔 50전 【1필당 약 5엔 50전】
- 一. 금건목면金巾木綿 2필
대가 2엔 75전 【1폭의 물건】
【1필당 약 1엔 37전 5리】
- 一. 진피陳皮⁵³ 7,702근 반
대가 115엔 53전 7리 5모 【100근당 약 1엔 50전】
- 一. 붉은 분紅ノ粉 3근
대가 15엔 【1근당 약 5엔】
- 一. 가루 황금[屑黃芩]⁵⁴ 100근
대가 2엔 25전
- 一. 한전韓錢 222관 188문文
대가 333엔 28전 2리 【1문(文)당 약 15문으로 환산】
- 一. 전錢 29,594관 659문文
이는 금銀 2,959엔 46전 5리 9모임.
- 무역서 일용품[日用遣]
붓·먹·종이 기타 널빤지와 못 등의 잡품雜品 44구口

⁵³ 진피(陳皮): 오래 말린 귤껍질로서 한약재로 사용한다.

⁵⁴ 황금(黃芩): 한약재로 사용하는 꿀풀과 식물.

대가 73엔 57전 8리 8모

이상 금銀 5,644엔 37전 8리 2모

이상은 사무私賣 잔품殘品の 부분임.

총계 7,186엔 21전 5리 6모

이상과 같습니다.

임신壬申 11월

첨부 내지內地 부채액[負債高]과 번藩 회계에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조서調書

내지 부채액과 번藩 회계에 가산한 금액을 합산한 조서

■ 무역서貿易署의 내지內地 부채총계 조서

합승 금銀 40,696엔 71전 1모

이하 내역

금 6,395엔 71전 2리 5모

【도쿄 상인 오와리아 젠로쿠(尾張屋善六) 외 1인으로부터. 무역 구매원가[仕入元金]와 차입 내입
금(內入金)을 공제한 최종결산[帳尻] 금액】

금 1,200엔

【도쿄 상인 에치젠야 지헤(越前屋 治兵衛) 외 2인으로부터. 위와 마찬가지로의 차입분】

금 2,000엔

【노코 상인 이토 하치베(伊藤八兵衛) 외 2인으로부터. 위와 마찬가지로의 차입분】

금 18,670엔 51전 4리

【나가사키 상인 나가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외 3인으로부터. 무역 구매원가와 차입 내입금을 공제한 여러 최종결산 채무액[高滯】

금 2,625엔

【나가사키 상인 나가미 덴자부로와 그 밖의 다른 이들로부터. 사족 와타나베 에구치(渡邊榮口)의 내입(内入)을 반영한 위와 마찬가지로의 차입분】

금 2,639엔 98전 3리 6모

【이즈하라 상인들로부터. 여러 물품의 매입대금 지급 체납분】

금 2,935엔

【이즈하라 상인 미우라 부에몬(三浦武右衛門) 외 7인으로부터 차입. 차후 무역이윤으로 상각(償却)할 예정으로 번(藩) 저폐(楮幣)를⁵⁵ 폐기하고, 상환 원금으로 지불분】

금 4,230엔 50전

【이즈하라 상인 가와카미 이소지(川上磯治) 외 12명으로부터 차입. 위와 마찬가지로의 지불분】

이상.

이상 차입금 내에서 번 회계[藩計]에 추가할 뜻을 말씀드립니다.

합습 쌀[米] 1,500섬

합 20,505엔 37전 8리 8포

이하 내역

금 10,419엔 1전 6리 3모

【기사(己巳, 1869) 10월부터 경오(庚午, 1870) 9월까지 세입(歲入) 감정장부[勘定帳]에 기재된 금(金) 13,135냥 남짓에 포함해서 번 회계로 지불함. 지난 8월 사가 구청(舊廳)에 보낸 금액】

⁵⁵ 저폐(楮幣): 지폐(紙幣).

쌀 637섬 3말

금 7,652엔 10전 7리 8모

【경오(庚午) 10월부터 신미(辛未, 1871) 7월까지. 위와 같음】

쌀 862섬 7말

금 2,434엔 25전 4리 7모

【신미(辛未) 7월부터 9월까지. 위와 같음】

이상과 같습니다.

임신(壬申) 11월

첨부 **한어학소(韓語學所) 규정**

■ 규정

- 一. 매일 아침 8시에 등교(入校)하고 오후 3시에 하교(退散)함. 단, 1일과 6일을⁵⁶ 휴일(休例)로 함.
- 一. 생도 중 1명씩 순서를 정해 당직으로 근무함.
- 一. 당직은 아침 7시 등교해서 자리를 청소하고 창문을 열며, 찻물(茗水)과 난롯불(爐火)을 편히 쓸 수 있도록 준비함. 생도들이 하교한 뒤에도 자리를 청소하고 창문을 닫고 화롯불을 점검한 후 나감.

⁵⁶ 1일과 6일: 매월 1, 6, 11, 16, 21, 26일을 가리킴.

- 一. 매달 10번째 되는 날⁵⁷ 아침 9시 또는 10시 학업을 시험하고 근태勤怠를 평가해서 생도의 등급과 진퇴進退를 평정하는 데 참고함.
- 一. 등급은 3등급으로 나눔. 미숙하거나 처음 배우는 생도는 등외로 구분함. 숙달되고 학업에 정통한 자는 발탁해서 조교助教 또는 소조교小助教로 임명함.
- 一. 생도는 근무함에 전심專心으로 신중하고 근면하게 학업을 닦아야 함. 태만하고 방일放逸해서⁵⁸ 학업을 소홀히 하는 자는 신속하게 퇴학시킴.
- 一. 생도의 음주는 엄금함. 만약 이를 확실하게 준수할 수 없는 자도 퇴학시킴.
- 一.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등교할 수 없으면 그 사유를 써서 당직에게 보고함. 만약 다른 일을 핑계로 근면하지 않는 생도는 수업 참여를 금하고 열흘 간 숙직을 서게 함.
- 一. 수업 중 일상적 잡무는 생도 가운데 그 임무를 맡을 사람을 골라서 처리하게 함. 교수가 이를 전체적으로 관장함.
- 一. 교수와 생도는 조선 표류민의 문정問情 및 통역, 기타 송환 등의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독장督長の 지휘에 따라 근무해야 함.

■ 학과學課

8시부터 12시까지

어학語學 구두句讀

12시부터 1시까지

휴식

1시부터 3시까지

문장[編文] 회화會話

⁵⁷ 10번째 되는 날: 매월 10, 20, 30일을 가리킴.

⁵⁸ 방일(放逸): 제멋대로 노는 모양.

- 一. 개교開校는 그 처리를 오늘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 단지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선비[士]를 훗날 기다릴 뿐이다.
- 一. 생도는 반드시 신체가 강건해야 한다. 병자는 검사해서 배척한다.
- 一. 교내의 친교[交際]는 상하동권上下同權이며, 모름지기 친밀함을 본지로 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애증愛憎을 품어선 안 된다.
- 一. 좌반坐班을 정하는 기준은 학업의 장단長短과 입교 순서로 한다. 신분[士民]과 나이[長幼]의 차별을 두어선 안 된다.
- 一. 등급을 획득하는 자는 관官에서 학자금을 지급한다. 조금이라도 일가一家의 생계[經營]를 보조하려는 뜻이 아니니, 근면하여 해이하지 않는勤而不倦 세월[光陰]에서 자라나는 화실花實을 오인해선 안 된다.
- 一. 원외員外⁵⁹ 생도도 별도로 등급을 두고, 반드시 훗날을 기다려 의정擬定해야 한다.
- 一. 교내 교도教導하는 직원이 부족하므로, 원외 생도의 수는 30명을 정수定數로 한다.
- 一. 전 인원 가운데 품행이 단정하고 어학에도 뛰어난 자 2명을 입찰入札로 선거해서, 교내 감좌監佐로 임명한다.
- 一. 감좌의 임무는, 교내 전 인원의 품행을 시찰하고 학업의 수준을 감사監査한 후, 이를 교수와 상의하여 독장督長의 재정裁正을⁶⁰ 청하는 데 있다.
- 一. 교내에서 제기되는 의론은, 우선 학업 증진의 전도前途를 여는 것이라면 이를 교수와 감좌에게 논급論及하되, 조금이라도 앞에선 복종하는 척하고 뒤에선 다른 말을 하는 폐단이 있어선 안 된다.
- 一. 사사로운 의론을 장황하게 떠들어서 본지本旨를 해치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개유開諭하되 논쟁을 벌이거나 반박에 이르러선 안 된다.

⁵⁹ 원외(員外): 정원 외.

⁶⁰ 재정(裁正): 교정(敎正). 바로 잡음.

- 一. 교내의 논의가 반복해서 먼저 만들어지는 것은, 독장^{督長}과 교수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 이를 하평^{下評}하게 하는 것은 논서^{論緒}의 가부^{可否}를 불문하고 전원 일반의 품행과 풍속이 숙청^{肅淸}하지 않음을 드러내는 증거로 간주할 수 있으니, 각자가 신중해야 한다.

임신^{壬申} 11월

- 一. 종전의 등급을 폐지하고, 다시 상·중·하 3등^等을 합쳐 7급^給 및 원외 7급 제도를 신설한다.
- 一. 조교와 소조교^{小助教} 아래 조교시보^{助教試補}와 동^同 준시보^{准試補}의 1등 2급을 두고, 이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 一. 다음에 1등 2급을 둔다. 이상 2등^[원원]은 생장^{生長}의 인원으로 조교의 소보^{少補}이며, 생도의 권도^{勸導}를 전담한다. 이를 중등^{中等}으로 한다.
- 一. 다음에 1등 3급을 둔다. 이를 하등^{下等}으로 한다. 이상 상·중·하 3등 7급으로 한다.
- 一. 이 7급 아래에 등외 1급을 둔다. 이는 원외의 무등^{無等}과 같다.
- 一. 원외에 7급을 두고, 하등 및 원외 전원을 순차적으로 당직에 포함시킨다.
- 一. 3등 및 원외 계급을 상하로 나누는 것은, 5번째와 10번째 날,⁶¹ 즉 한 달 6회의 시험을 쳐서 우열^{優劣}과 장단^{長短}을 평가하여 매달 진퇴^{進退}를 공표한다.
- 一. 이 시험 방법은 10번째 날은 단어 문제에 직답^{直答}하게 하는 것으로 3차례, 5번째 날은 그 문제를 묵사^{默寫}하고⁶² 답하게 하는 것으로 2차례,⁶³ 모두 1개월 6회 15문제를 정칙^{定則}으로 한다.

⁶¹ 5번째와 10번째 날: 매달 5, 10, 15, 20, 25, 30일을 말한다.

⁶² 묵사(默寫): 문장을 외워서 쓰는 것.

⁶³ ‘三次’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나, 우선 원문대로 옮겼다.

- 一. 원외 7급 가운데 그 1급을 이수하는 자는, 1개월 6회 15문제의 시험을 쳐서 모두 명확하게 응답하는 것으로 한다. 그중 1번 답하지 못한 자를 2급, 2번 답하지 못한 자를 3급으로 하여, 차례대로 7급, 즉 초급에 이른다. 매달 점수를 검사해서 9번 답을 하지 못한 자를 무등無等으로 한다.
- 一. 상·중·하의 3등은, 두 달 연속으로 15문제 가운데 9번 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등은 중등으로, 중등은 하등으로, 하등은 등외等外로, 등외는 원외員外로 퇴보退步한다.
- 一. 동급同級의 석차는 그 학습의 장단長短을 살펴서 반열班列을 정한다.
- 一. 시험에 결석하는 자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응답한 점수를 기준으로 진퇴進退를 정한다.
- 一. 1, 2급을 취득한 후 3개월 평균 점수가 그 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자는 포장褒獎한다.⁶⁴
- 一. 무등無等으로 퇴보한 자가 만약 공선公選 감좌監佐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우, 그를 해임하고 따로 그 결원을 선거選舉한다.
- 一. 감좌는, 입선入選의⁶⁵ 방법으로 진거進舉하기⁶⁶ 때문에 무등無等を 제외하고, 계급에 관계 없이 전원의 중망衆望이 큰 자에게 주어진다. 그러나 2개월을 만기로 하며, 다시 선거를 통해 교대할 사람을 뽑는다.
- 一. 두 달이 지나 임기 만료가 되었더라도 다시 중망衆望으로 진거進去를 받은 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유로 사임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뜻을 전원에게 알려야 한다.

⁶⁴ 포장(褒獎): 표창(表彰).

⁶⁵ 입선(入選): 투표로 선출하는 일.

⁶⁶ 진거(進舉): 천거(薦舉), 추천(推薦).

■ 계급표階級表

독장督長 본성本省에서 출장 나온 관원으로 임명한다.

교수教授 관원 및 고사雇士로 임명한다.

조교助教 종고사從雇士 및 생원生員 중에서 임명한다.

소조교少助教 위와 같음.

상등上等

1급 조교시보助教試補

2급 동同 준시보准試補

중등中等

1급 생장生長

2급 위와 같음.

하등下等

1급 득업생得業生

2급 위와 같음.

3급 위와 같음.

등외 1급

감좌監佐 【교내 전원 가운데 입선(入選)하여 진거(進擧)함. 단, 2개월을 만기로 하며 새로 공거(公擧)함】

원외員外

1급 15점 【1개월 6회 15문제】

2급 14점

3급 13점

4급 12점

5급 11점

6급 10점

7급 9점
무급 8점 이하에 해당.

메이지 6년

【1개월 학자금 2엔 2보(步)】 상등 1급 【결원】

상등 2급

【1개월 학자금 2엔 1보】 가와모토 마사타로 川本政太郎

중등 1급

【1개월 학자금 2엔】 가지야마 요시카즈 梶山嘉一

【1개월 학자금 1엔 3보】 중등 2급 【결원】

하등 1급

【1개월 학자금 1엔 2보】 나카무라 쇼지로 中村庄次郎

하등 2급

【1개월 학자금 1엔 1보】 가와모토 준사쿠 川本準作

하등 초급

【1개월 학자금 각 1엔】

요시마쓰 도요사쿠吉松豊作

나가무라 후사지로長村房次郎

우라세 주타로浦瀬忠太郎

등외

【1개월 학자금 1보】

후지이 리스케藤井利助

원외생도

1급【결원】

2급

오이시 마타사부로大石又三郎

3급

【감독(監佐)】

【기류(寄留)⁶⁷】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아비류 유사쿠阿比留祐作

4급

다니 덴조谷傳藏

5급

【기류(寄留)】

쓰에 나োস케津江直助

구라타 후미하루倉田文治

【기류(寄留)】

구로이와 기요미黑岩清美

6급

요시조에 기하치로吉副喜八郎

【감독(監佐)】

고토 쇼이치로古藤昇一郎

⁶⁷ 기류(寄留): 본래 잠시 다른 사람의 집에서 사는 것을 뜻하는데, 여기서는 교내 기숙(寄宿)을 의미한다.

【상동】

다케다 진타로 武田甚太郎

오이시 계조 大石圭三

이 마고타로 井孫太郎

초급

【기류(寄留)】

다케다 구니타로 武田邦太郎

무급

아비류 요시키치 阿比留嘉吉

나카무라 몬스케 中村門助

히라타 오키시로 平田奥四郎

야마다 엔타로 山田延太郎

다다 고지로 多田剛二郎

우메노 슈키치 梅野習吉

반 이쿠타로 番幾太郎

기도 슈조 幾度省三

다카세 이치로 高瀬一郎

가이에 준타로 貝江淳太郎

구와 우마타로 久和馬太郎

오가와 小川⁶⁸三

이노우에 고타로 井上光太郎

이상 생도 35명.

⁶⁸ 이 자는 무슨 글자인지 상고하기 어렵다.

배별拜別 후 한지韓地의 동정은 공식 서장[御用狀]을 통해 살펴보고 지금쯤은 상경하여 논의하셨을 걸로 상상합니다. 그런데 훈도는 지난번에 다시 임명되어 동래府東萊府로 돌아왔다고 최재수崔在守를 시켜 인사말을 할 때는 지극히 친절하였는데, 우리의 저의를 엿보아 살피고 갑자기 거부 논리를 만들어 엄하게 거절하면서 접대하지 않는 기세를 보인 이상은, 도저히 하래下來하지 않을 겁니다. 위의 응접에서 이래저래 저들에게 완전히 제압될 기미도 있으므로 앞으로 소식을 전하실 때까지는 감히 다그치지 말고 시일을 보내라고 지시할 생각입니다. 그 사이 저들이 확실히 응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소자小子가 일단 도한渡韓할 작정입니다. 실로 응대는 그 논의의 내용에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으므로 기회를 틈타 억누르거나 부추길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의 형편으로는 다그치지도 않고 늦추지도 않는다는 하나의 논의로써 아무것도 만들어 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 생각합니다. 비선飛船⁶⁹ 취허吹嘘⁷⁰ 일건一件도 응접에 있어 이쪽에서 주장할 이치를 저들이 주장하도록 하여 주객전도로 점점 옛날의 지위로 퇴보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응접에 관계하는 사람으로서는 구폐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충분히 달게 복종시킬 수 없는 주장으로 저들에 대항하는 것이기에 저들이 답하는 하나하나가 이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끝내 그 기회를 잃게 됨은 어쩔 수 없으므로 위의 일건도 이번에 (일본 외무성에서) 동의하신다는 뜻으로 주장하든가 또는 옛날 방식으로 하는가는 지금 (조선 측에서) 통지하는 모양에 따라 아무튼 지시할 작정입니다. 관내館內를 정리한 것은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의 내밀한 편지로 추정하시길 바랍니다. 저번에도 요시노리가

69 비선(飛船, 헤선)은 인원과 물자, 서신 등을 운반하는 소형의 연락선이다.

70 스이코. 문인(文引)이라고도 하며 조선 측에서는 노인(路引)이라 불렀다. 조선 국왕이 대마도주에게 하사한 동제 인장을 찍은 도항증명서이다. 일특송사 2호선, 부특송사 2호선, 각 송사의 수목선(水木船), 비선(飛船) 등 서계를 지참하지 않은 선박은 반드시 취허를 소지해야 했다. 취허의 수취인은 사절이 탑승한 본선과 함께 도해할 때는 조선국 각도·각관 방어소(朝鮮國各道各官防禦所), 본선이 없을 때는 조선국 동래·부산 양 영공(朝鮮國東萊釜山兩令公)으로 표기했는데, 전자로 쓴 경우는 조선 측에서 위격(違格)이라 하여 수리하지 않았다.

이즈하라巖原에 와 있을 때 대승이 내유內諭⁷¹한 취지를 이것저것 오인한 것도 적지 않아 일일이 개유開諭⁷²하여 약간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무성에) 몇 개 조항을 내밀히 품의한 것도 (요시노리) 혼자만 명심하도록 하고 동인同人도 기쁘게 복종하고 도한했습니다. 외항(조선)에서 대하는 취지는, 즉 사람을 바꾸고 이름을 고친[換面更名] (쓰시마) 관리는 모두 (일본) 조정의 관리라서 접대하지 않는다고 조치하고 있으므로 뭔가 착수하실 방법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만간 조정의 결정까지는 우선 관지館地를 유지함을 주된 임무로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외무성의 논의라면 그 취지를 자세히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一. 장래의 추진 방법으로 국사를 파견하신다면 우리의 뜻을 관철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만약 조정의 의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을 때는,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사람들이 위축됨에 따라 주저함은 필연입니다. 그러므로 배별拜別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땅한 인물을 선정하고 전적으로 위임하시어 러시아인[魯시인] 카라후토柯太, 樺太(사할린) 또는 왕년에 쓰시마[對州]에 내박來泊한 것처럼⁷³ 다른 의론에 관계하지 않고, 관내 상하上下의 구폐도 일소하고 여러 집채를 수리하고 가족을 데려오고 공지를 개척하고, 비선飛船 외 대·중大中 상선도 취허吹噓 없이 왕복하도록 한다. 저들이 만일 이의와 어려움을 말해오면 “우리는 대승의 명에 따라 관내를 수리하고 훗날 국사가 올 날을 기다린다. 귀국이 이를 논하려면 장차 대승에게 왕복해야 한다. 우리의 진퇴는 오직 대승의 명에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면 저들 정론定論⁷⁴의 심천深淺을 함께 잘 알기에 족하다. 그 사이에 묘의廟議도 결정하시기를. 소생이 우견愚見으로 계산

⁷¹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타이름.

⁷² 사리를 알아듣도록 잘 타이름.

⁷³ 1861년 2월부터 8월까지 러시아 군함 포사드니크(посадник) 호가 쓰시마를 점거한 사건을 말한다.

⁷⁴ 어떤 결론에 도달하여 확정된 의견이나 이론.

하니 이 방법 이외에, 오늘에 이르러 저들의 의아疑訝를 해소하는 따위의 설은 실지實地에서 모두 불철저한 것입니다. 외무성의 의론은 무엇입니까. 외무경 공께서는 필시 좋은 계책이 있으시겠지요. 이것만 고대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발돋움하고 바랍니다.

- 一. 재관在館 사족과 상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오면 어떻겠습니까?
- 一. 어학소語學所 교수 아라카와 긴스케荒川金助는 (월급 10엔) 열심히 노력하니 가능하면 15등 출사出仕로 임명하면 어떻겠습니까? 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을 제외하고 실로 이 사람 이외에 사용할 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임명하면 차후 한지韓地에 임시적 공무로 파견하는 일이 있을 때는 매우 편리합니다. 적절히 평의하시길 바랍니다.
- 一. 이케노우에池上·다케이치武市·사카키彭城 등이 만주 주변을 탐정한 상황⁷⁵ 등을 전해오면 누설해주십시오.
- 一. 진제이鎮西 진대鎮臺에서 출장한 병사도 여전히 이즈하라에 체재하고 있지만,⁷⁶ 최근에도 진대 병사와 잡담 중에 이곳으로는 출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 취지를 본영本營에도 건의하였고 지금쯤은 도쿄에 품의했을 걸로

⁷⁵ 1872년 8월 8일 외무 권중록(權中錄) 사카키 주헤이(彭城中平)와 외무성 10등 출사 이케노우에 시로(池上四郎)·다케이치 세이칸(武市正幹)은 청국 뉴장(牛莊) 파견 명령을 받고, 8월 16일 우편선으로 도쿄 출발, 9월 1일 상하이 도착, 21일 즈푸 도착, 28일 잉커우에 도착하여 만주를 정찰하였다. 이들의 정찰 활동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의 정한론과 관련된 것으로, 다케이치는 1873년 4월 조기에 귀국하고 사카키는 만주 정찰을 마친 7월 이후에 귀국했다. 청국 내부의 정찰을 계속한 이케노우에는 사이고 다카모리의 하야를 알고 1873년 12월에 귀국했다. 이들의 정찰은 일본 최초의 군사 정찰로 『서남기전(西南記伝)』 부록 제2장 「만주 시찰 북명서(滿洲視察復命書)」에 수록되어 있다. 1872년 8월 15일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내린 내유(內諭) 「외무성 10등 출사 이케노우치 외 2명을 청국 뉴장에 보내 탐색할 요건(外務省十等出仕池上四郎外二名清国牛莊二遣往探索ノ要件)」(JACAR Ref.A0302 3010900)에 따르면, 1) 유신 통지 서계의 응답이 완만한 이유, 2) 청국 러시아-조선의 교제 상황 상세 조사 및 러시아와 조선의 국경 상황, 3) 성징(盛京)·평텐(奉天)·심징(興京)·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이리(伊犁) 등의 병비(兵備)와 민정(民政)·인심 탐색, 4) 신미양요 후 공친왕(恭親王) 혁헌(奕訢)이 조선 사절에게 미국과의 수교를 권했다는 소문의 진위 파악, 5) 각지의 지리·인정·민산(民産) 및 언어 사용의 구별, 군항의 통항 여부, 화폐의 종류, 물가의 고저 등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여행기를 작성하여 북명의 자료로 할 것, 6) 청국 러시아-조선의 변경을 돌아다니는 경험에 있는 서양인을 물색하여 탐색의 편리를 도모, 7) 동역과 길 안내를 위해 적당한 청국인 고용, 8) 최고의 비밀이 필요하므로 변명(變名)과 환복은 자유롭게 할 것, 8) 탐색한 사실은 시시로 말뚱하여 알릴 것 등이었다.

⁷⁶ 진제이는 규슈의 별명. 진제이 진대 2개 소대 병력은 9월 8일 유코마루 편으로 나가사키 도착, 9월 11일 육군 장교들과 함께 나가사키를 출발 12일 이즈하라에 도착했다.

생각합니다. 사실 이곳에 분대를 출장한 것은 외무성의 건의에서 나온 것처럼 알고 있다는 등의 얘기를 하고 있어 상당히 곤란한 모습입니다.

- 一. 나가사키현 (이즈하라) 출장소는 마루야마丸山, 丸山新藏 대속大屬이 힘써서 차차 진척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인망을 얻어 매우 잘 매듭지어진 걸로 보입니다. 대속이 내일부터 나가사키로 돌아간다고 하여 서장을 부탁합니다.
- 一. 사스나佐守奈, 佐須奈·와니우리鰐浦 두 곳의 관소關所는 옛 이즈하라번 관원들이 지방관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위의 두 관소는 당장 쓸모는 없지만 앞으로 (조선과 일본) 둘 사이의 교통이 열리면 자연히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한 그대로 세워 두고자 한다고 현 출장소에 협의해 두었습니다.
- 一. 저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신문·일지·관원록 등은 반드시 2부씩 보내주십시오. 이미 여름 이래 신문 등을 어학생들에게 보였는데, 비로소 왕정복고의 체재體裁를 배청拜聽했다고 합니다. 실로 멀리 떨어진 곳의 정태情態를 미루어 살피시길 바랍니다.
- 一. 소생은 배별 이래 아무튼 지병이 생기고, 게다가 때때로 몸 왼편 아픈 곳이 도져서 섭양攝養 중입니다. 히로쓰廣津 군은 그 후 어떠합니까? 하나부사花房 군은 필시 군함 안에서 힘드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귀경하신 후에 치료하셨겠지요. 추위는 모쪼록 피하십시오.

위는 공사公私를 요점만 추려 말씀드리고자 한 것으로 이와 같습니다.

11월 12일

모리야마 시게루 배拜

하나부사 대승 님

히로쓰 소기少記 님

추신. 히로쓰 군이 여숙^{여숙}하시는 상황은 어떠합니까? 자유롭지 못하실 걸로 보입니다. 잠시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첨부 초량관 한인 응접서^{應接書} 발췌

지난 10일 밤 상선이 (이즈하라로) 돌아와 별책 응접서를 전했습니다. 과연 훈도는 최재수로 하여금 우리의 저의를 살피고 거절하는 논리를 만들어 대관소는 없고 역원^{役員}은 모두 쓰시마로 돌아갔다는 따위로 자못 조리 없는 말을 희롱했습니다. 기타 (훈도가) 재수^{재수}(최재수)에게 준 단간^{單簡}⁷⁷에 “별당에 있는 침구와 여러 도구는 시군^{柴軍}⁷⁸을 시켜 수효를 맞추어 올려보내야 한다”라고 하고, “임소^{任所}는 철수하고 재관^{在館} 역원을 만나지 말라”라는 뜻을 보여 왔으므로, 이제부터 응접을 지속하자고 촉구하여도 (왜관으로) 내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체된 물품도 받지 않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감히 다그치지 않고 서서히 훈도가 내려오면 간담^{懇談}하고자 한다는 말로 시간을 끌라고 지시할 예정입니다.

- 一. 상선에 비선^{飛船} 취허를 휴대케 하는 문제에 대해 쌍방의 응접을 생각해봤는데, 이곳에서 지시해서 보낸 주의^{主意}로써 개유^{開諭}하기 전에 저들의 거절론에 속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는 거듭 지령해 두었으므로 그 후의 답판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두 의표를 찌르는 응접 방법 등을 지시했습니다. 원래 재관^{在館}의 사람들은 구투^{舊套}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아무튼 응접의 기회를 잃는 것보다, 오히려 저들에게 논의할 단서를

⁷⁷ 단간(短簡)과 같은 의미로 내용이 간단한 편지.

⁷⁸ 땔나무를 운반하는 일꾼.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위의 취허 일건一件도 지금 알려진 모습에 따르면 역시 종전의 절차대로 이호선二號船·수목선水木船 등의 취허로 건너가 파란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차사差使가 동래부에 들어갔을 때 부사를 면담하려면 복장을 갖추어야 한다고 운운한 건은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의 글을 베껴 돌려보냅니다.

위와 같이 간추려 말씀드립니다. 평의하실 조항도 있으시면 조속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신申(1872년) 11월 12일

모리야마 시게루

외무대·소승·기外務大少丞記⁷⁹ 귀중

별지. 조선국에 출장한 자들로부터 서면이 도래했는데, 장문이고 혼잡한 곳도 있어 그 요지를 간추려 일람하시도록 갖추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원본을 통해 명료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 10월 26일 최재수 외 2인 입관

쓰카다 이라束田伊良와 스미나가 신타住永辰妥가 대면

최재수: 훈도는 마침내 다시 임명되어 내려오는 도중부터 불쾌하여 양산에서 병세가 심해져 겨우 지난 23일 동래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렇지만 병중이라 조속히 취관就館할 수도 없어 관중의 관리들에게 별도로 인사 등을 할 수 없으니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공무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훈도에게 말했는데, 훈도가 대답하길, “공무의 상황은 차차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줄자는 이번에 복직하여

⁷⁹ 기는 대기(大記)와 소기(少記).

비로소 동래부에 도착했으므로, 우선 오늘은 동래부에 도착한 사실을 알리고 공무의 조항들은 그대(최재수)가 충분히 듣고 동래부에 올라온 다음 회답을 보내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쓰카다·스미나가 양인: 최재수를 비롯해 3명이 일대관⁸⁰ 히로세 나오키(廣瀬直行) 집에 함께 왔습니다. 나오키가 훈도 복직을 축하한다고 하고, 자신이 일대관을 겸무(兼務)한다는 것, 지난 9월 임소에 부탁한 삼순(三巡) 표민의 건, 몇 년 동안 지체된 물품을 가지고 온 것을 별차에게 구진서(口陳書)로 제출해 둔 것 등을 최재수가 훈도에게 자세히 얘기하라고 상세히 신유(申諭)⁸¹했습니다. 아울러 개시(開市)⁸² 건과 미두(米豆)를 들여보내고 파는 일 등을 얘기하고 (최재수의) 출관을 명함.

■ 10월 28일 최재수 등 입관

히로세 나오키·쓰카다 이라·스미나가 신타가 대면

최재수: 과일(過日) 제시하신 조목들을 훈도에게 말씀드렸는데 훈도가 대답하기를 “조목들은 상세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내(館內)의 관리들도 (일본) 조정의 관리가 되어 위의 물품도 조정에서 보낸 모습이므로 조속히 받아야 하나, 몇 해 동안 소(宗) 씨가 물품을 보내지 않아 타방(他邦(조선))의 사정도 생각하여 이렇게 수고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쓰시마(對州)와 수백 년의 구의(舊誼)에 있어 과거 한때 보내기 어려웠던 물품을 부디 수취하라는 것은 아무래도 하기 어려우니 받는 것은 우선 보류하고, 장래에 지금처럼 쓰시마에서 보내는 때에 이르러 수취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란다고 말함.

나오키: 그것은 주의(主意)가 다릅니다. 관사(館司)를 비롯해 이하 관리들도 전혀

⁸⁰ 대관(조선 측에서는 대관왜로 부름)은 두 나라의 무역 교섭 및 결재, 각종 지급 잡물(雜物)의 수령 및 재촉 등 경제적인 면을 담당한 왜관 내의 관리로, 일대관과 삼대관 두 사람이 공무목미(公買木米)와 문서 등의 일을 주관하였다.

⁸¹ 여러 번 타일러 깨우쳐 줌.

⁸² 왜관의 개시(開市)는 동래부의 허가증을 가진 자만 매달 여섯 차례(5일장) 행하였고 주로 인삼과 왜은(倭銀)으로서 거래하였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건네는 물품도 소 씨가 보내는 취지라고 말하고, 개시와 미두의 건 등을 물었는데,

최재수: 개시는 원래 세전선 무역이 있어 사무역도 이를 따르는 주의이므로 지금 개시를 처리하기는 어렵고, 예시(例市)도 별시(別市)도 모두 그때마다 조정에 계문(啓聞)해야 하므로 거행하기 어렵고, 조시(朝市)⁸³ 건은 동래부에 한하므로 상인들의 매매는 조시에 들어오는 자의 것은 묵허(默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쌀과 콩 건은 쓰시마에서 주문하는 것이 되어서는 그 체제가 이상하지만, 부사가 점차 진노한 나머지 엄하게 정지한 것이므로, (훈도가) 완쾌한 다음 충분히 부사에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해두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유키: 재차 물품은 소 씨가 보낸 것이란 따위를 해명하고 지금 일단 훈도에게 얘기한 다음 입관하도록 함.

■ 10월 29일 최재수 등 입관

나오유키와 신타 대면

최재수: 어제 지시하신 사정을 훈도에게 얘기했는데, (훈도는) “물품은 소 씨가 보낸 것이라 해도 쌍방 응접 관계자 사이에 아무 경위도 얘기하지 않고, 옛 관리들이 귀국하였으므로 이후 언제라도 옛 관리들이 건너오면 그 사람들로부터 수취하는 것이 도리라는 취지로 답해두라”라고 응답했다고 함.

나오유키: 수백 년 동안 신구 관리가 교대한 경우와 또 대관소는 대관소의 인장을 증명으로 하여 내외의 출납을 처리하므로 신구의 관리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이치를 해명하고, 또한 최재수에게 동래부로 올라가 분명하고 상세히 변론한 다음에도 훈도가 똑같이 말한다면 그 취지를 서면으로 답하도록 그대가 처리하라고 말하고 출관하도록 함.

⁸³ 왜인에게 매일 필요한 생선, 과일, 채소 등은 살 수 있는 길이 없으므로 특별히 조시(朝市)를 허락하였다. 매일 이른 아침 포(浦)의 백성들이 각종 찬물(饌物)을 수문(守門) 밖에 가서 팔면 수문장 및 통사는 감시(監市)하여 난잡한 폐단을 금하고, 금도왜(禁徒倭)는 소금도(小禁徒)를 데리고 나가 수문에 앉아 왜인의 분란(紛亂)을 금하였다.

■ 11월 1일 최재수 등 입관

히로세 나오키·쓰카다 이라·스미나가 신타가 응접

최재수: 과일^{과일} 깨우쳐 주신 취지를 훈도에게 전하여 알렸는데, 훈도의 대답이 “역인^{役人}의 교체는 늘 있는 일로 단지 그 신구^{新舊} 때문에 수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평소 무사한 때와 달리 지금의 모습이어서는 우리 쪽에서 들여보낼 현품^{現品}도 각각 준비하고 있지만 들여보낼 곳도 없고, 수취해야 할 물품도 수취할 뜻이 없으므로 잠시 내어 보내는 것과 들여보내는 것 모두를 정지하고 그 길이 열린 다음에 언제든지 받고 보내겠다”라고 했다고 함.

나오키: 계속 말한 것과 같이 관사·일대관 기타 대관소도 조금도 종전과 변한 것이 없고, 또한 인신^{印信}을 증명으로 삼아 직무를 하는 것이어서 지장은 없을 터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부조리의 대답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이 틀림없다면 서면으로 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을 때,

최재수: 훈도는 오직 구상^{口上}으로 주장하고 결코 서면을 보낼 까닭이 없다고 화를 내었다.

나오키: 그렇다면 훈도가 구상한 취지를 그대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재차 지시했는데,

최재수: 이것도 일단 훈도에게 아뢴 다음 회답하겠다고 하고 출관.

■ 11월 2일 박기종^{朴琪琮}, 朴琪淙 입관

최재수가 서면으로 훈도의 회답을 서면으로 할 수 있는지 훈도에게 아뢰었는데, 훈도가 회답한 서면이라 하면서 사본을 제출함.

이것에 대해 별지와 같이 훈도에게 보내는 서면을 대관들이 제출함.⁸⁴

⁸⁴ 대관들이 훈도에게 보낸 문서는 「별차가 지체된 물품을 재촉하므로 응답한 답장 사본」을 말한다. 본 영인본에 이 문서는 (19)번 문서 뒤에 나오지만, 이는 잘못 편철된 것이다.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 『조선사무서』에는 (18)번 문서 뒤에 편철되어 있고(JACAR Ref.B03030169800 17/29), 내용상 여기에 있는 것이 옳바르다고 생각하여 (18)번 문서 뒤로 옮겨 번역하였다.

■ 11월 4일 최재수 등 입관, 나오후키 등이 대면

최재수: 대관소의 서장에 우리들이 올리는 글을 첨부해서 훈도에게 올렸는데, 대관소 역원은 벌써 귀주歸州하였는데 대관들이라고 쓴 서면을 중개하는 것은 매우 고약하다고 의외의 질책을 받았다고 말함.

나오후키: 훈도의 부조리한 주장과 훈도 혼자만 거부할 이치가 없음을 힐책하고, 또한 관내의 정실情實을 관철하도록 진력하라고 말하고 출판하도록 함.

■ 11월 7일 최재수 이하 입관, 쓰카다·스미나가 응접

최재수: 이번에 비선 취허로 대선大船이 건너왔지만, 앞으로는 종전에 쓰지 않은 송사送使 수목선水木船과 2호선의 취허로 건너오길 바란다는 부산첨사의 분부 등을 얘기하므로,

쓰카다 등: 위는 대승 님의 명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다. 또 비선도 대선도 결국 지금 사용하는 취허는 표류선이 아니라는 증명으로 가지고 건너오는 것이므로 대·소선에 구애될 것이 없다는 뜻을 보였는데,

최재수: 이전에 상인들이 김을 채취하는 배라고 칭하면서 배를 빌려 건너왔을 때 송사⁸⁵ 수목선의 취허를 사용해서 도래한 예도 있다. 이후에도 대선은 수목선 취허로 건너오길 바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연히 협승協乘 등을 하였을 때 그 곳에서 문정問情을 담당하는 관리들이 부주의할지도 모르니 그 부분을 충분히 숙고 하길 바란다는 취지를 말함.

⁸⁵ 대마도주 세건선(歲遣船) 20척과 수도서선(受圖書船) 5척, 수직인선(受職人船) 5척 등 모두 30척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도래(渡來)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1636년 겸대제(兼帶制)가 시행된 이후 도항 시기 및 횡수가 8회로 조정됨에 따라 연례팔송사(年例八送使)라 하였다. 팔송사는 대마도주(對馬島主)가 연례적으로 여덟 차례 보내오는 세건선이다. 팔송사는 제1선이 일송사(一送使), 제2선이 이송사(二送使), 제3선이 삼송사(三送使), 제4선에서 제17선까지가 사송사(四送使), 일특송선(一特送船)에서 삼특송선(三特送船)까지가 오송사(五送使), 부특송선(副特送船)이 육송사(六送使), 만송원사(萬松院使)가 칠송사(七送使), 이정암사(以庭菴使)가 팔송사이다. 특송선은 해마다 정해진 예대로 보내는 세건선과는 달리 특별한 일로 보내오는 배를 말한다. 이 특송사 제도는 세종 25년(1443) 계해 약조에 의해 규정되었다가 중종 7년(1512) 임신약조 때에 폐지되었다. 그 후 광해군 원년(1609) 기유약조가 체결되면서 3척으로 규정되어 세건선에 포함되었다.

또 최재수는 과일 회답한 서면에 대해 박기종을 시켜 훈도에게 자세히 전하여 알렸지만, 어쨌든 관중館中の 관리들이 모두 귀주歸州한 이상 하등 회답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어서 우리들도 면목이 없는 형편이라고 얘기함.

이것에 대해 반복해서 정실을 관철하도록 진력하라고 신유申諭함.

첨부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가 관사館司 등이 동래로 가던 중 관계한 사건에 대해 답한 글

나오유키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

차사差使와 관사館司가 동래부로 들어갔을 때 나오유키와 우라세浦瀬가 함께 최재수와 응대하면서 차사와 관사가 부사를 면접할 때는 예복을 사용하고자 한다고 하자, 재수가 예복은 양국의 예전禮典 때에만 사용하고 규정 외의 일에는 착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글로 보이신 그대로입니다. 기타 문답은 우라세가 얘기한 까닭으로 어떤 조항이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위의 예복론禮服論에 이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수가 “부사를 비공식적으로 대면하면 어떠한가?”라고 하고, 우리가 대답하기를 “차사가 부사를 면접하고자 이곳으로 넘어온 것은, 중요한 일의 회답이 조만간이라 하면서도 그 기한을 정할 가망可望도 없고 대승 님께 보고할 변명도 없으므로, 훈도의 주장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이 이렇게 된 바에는 부사에게 면접을 구하여 직접 답을 듣고 조치하려고 이 거동에 이른 것은 그쪽에서도 알고 있는 대로입니다. 그 조치라 함은 자연히 이곳을 철수하여 대승 님께 자세히 말씀드리고 뭔가 지시를 여쭙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비공식적 대면으로는 그 주의主意를 세우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지 우리가 걱정되어 그쪽에 내밀히 얘기합니다”라고 주장하자, 최재수도

“이곳까지 나오시어 헛되이 돌아가실 수도 없습니다. 매우 어렵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좌우지간 진력해 보겠습니다”라고 당혹스럽습니다만 극히 비밀로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이렇다 할 문답은 없었습니다. 잘 새겨듣기를 바랍니다.

11월

히로세 나오후키 廣瀬直行

별차가 지체된 물품을 재촉하므로 응답한 답장 사본⁸⁶

別差ヨリ滯品催促申來ニ付相答候返書寫

혜찰惠札을 받으니 (훈도께서) 병이 났다고 하니 염려되웁니다. 보여주신 뜻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대저 구 일대관 공과 구 공대관公代官⁸⁷ 양인이 귀주歸州하여 일대관은 도간전都幹傳 공이 겸관兼官하시고 공대관도 겸관이 있으니 염려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미 겸관 공이 배통사陪通事를 시켜 올려보낼 터이니 자세히 들으십시오. 이것으로 답장을 올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7일

대관代官들

⁸⁶ 답장의 내용과 괴리가 있어 적절한 제목은 아닌 것 같다. 답장의 내용은 일대관과 공대관이 쓰시마로 돌아갔으나 겸직자가 있으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有恙아사다 ㄸ 오니 仰慮오며 示意覽悉 ㄸ ㄸ 오며 大抵 旧一代官公與 旧公代官兩人 歸州되오니 一代官은 都幹傳公이 兼官되시고 公代官도 兼官이잇스 오니 念慮 ㄸ 실일업 습고 今日 既已 兼官公이 使陪 小通事上送 ㄸ 실터되오니 仔細히 承聞 ㄸ 시게 ㄸ 읊쇼셔 以此 回上

壬申九月十七日 代官中

⁸⁷ 왜관(倭館)에서 공무역(公貿易)을 담당한 쓰시마의 관리.

19 11월 20일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에게 보낸 서신

추위의 위세가 살을 얼 듯이 심한 때 더욱더 안전하게 봉직하시어 축하합니다. 그런데 줄자를 비롯해 일행은 지체하지 않고 11월 6일 귀경했습니다. 외무성 모두는 평온합니다. 그 후 여러 복명서를 제출하여 자세히 진술해 두었습니다.

- 一. 현재 잔여 물품 건과 가이즈^{海津, 海津茂太郎} 등 일련^{一連}의 자들 건은 지금 쉽사리 결정할 수 없습니다.
- 一. 아라카와 긴스케^{荒川金輔}는 외무성 14등 출사로 명했으니 별지 하달서를 돌립니다. 도착하면 각각 하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인^{同人}의 월급은 어학소 정액금^{定額金} 이외에 해당하므로 그것을 고려하여 어학소 조교와 그 외 직원의 월급 등 대체적 목표를 세워 요청하십시오.
- 一. 그 후 한지^{韓地}의 모양과 물품을 주고받은 사정이 지금쯤 어떻게 되었는지 상상하면서 자세한 보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一. 재한^{在韓} 관원의 일당금^{日當金}은 지금 품의 중이니, 품의가 결제 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一. 도한^{渡韓} 상선의 모습은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것의 수출품 수세^{收稅}는 현해^{縣海}⁸⁸와 협의하여 이후의 전망을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 一. (외무)경 님을 청국에 사절로 보내기로 결정되어 아마 야나기하라^{柳原} 대승·테이^鄭 출사가 수행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一. 별지 입기^{入記} 서면대로 일지와 그 외 신문류를 보내니 각각 낙수^{落手}하십시오. 조선과 그곳^(이즈하라)을 합하여 2부씩 보내도록 저번에 말씀하신 취지이지만, 이번까지는 주의가 미치지 못했으니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⁸⁸ 나가사키현 이즈하라 출장소.

위와 같이 대요大要를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후편後便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壬申(1872년) 11월 20일
모리야마 시게루 님

하나부사 대승

입기入記

- 一. 『태정관일지太政官日誌』 94·5호
- 一. 조서 사본 및 시각정서時刻定書⁸⁹
- 一. 태정관 (포고) 342호부터 7호까지. 또 353호 합계 7장
- 一. 하루타春田, 春田長十郎 배명서拜命書
- 一. 아라카와荒川, 荒川金助에의 하달서
- 一. 대례복제 표와 그림[大禮服制表并圖]⁹⁰
- 一. 신력新曆⁹¹
- 一. 『요코하마신문橫濱新聞』 596호부터 609호까지. 이 중 598호 결.
- 一. 『일신진사지日新眞事誌』⁹² 5엽葉
- 一. 『호치신문報知新聞』 24·5·6·7 4책

⁸⁹ 조서는 구력을 폐하고 태양력을 사용한다는 내용. 시각정서는 1872년 11월 9일 태정관 포고 제337호에 의해 구력 메이지 5년 12월 3일을 메이지 6년 1월 1일로 해서 태양력을 사용함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의 12시진(時辰)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각각 12시간씩 24시로 바꾸어 정한 것.

⁹⁰ 메이지 5년 11월 12일 태정관 포고 제339호로 제정한 신복제. 궁중제복(宮中祭服)만 남기고 서양식의 대례복과 통상 예복을 정해 옛 복식을 모두 폐지했다. 칙임관 1~3등, 주임관 4~7등, 판임관 8~15등, 등외 1~4등은 장식의 차이로 구별했다.

⁹¹ 태정관 포고 제337호에 따라 구력 임신 12월 3일을 신력 메이지 6년(1873) 1월 1일로 바꾸어 사용한 태양력.

⁹² 닛신진사지. 영국인 존 레디 블랙(John Reddie Black)이 1872년 3월 도쿄에서 창간한 일본어 신문, 게재된 기사와 평론은 근대적 신문의 선구적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1875년 6월 외국인의 신문사 경영을 금지한 신문지조례에 따라 그해 말 265호로 폐간되었다.

- 一. 『신미정표辛未政表』⁹³ 1책
- 一. 『박문신지博聞新誌』⁹⁴ 1호부터 6호까지 8책
- 一.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의 편지 1봉封
- 一. 화폐 존법 개정서貨幣寸法改正書⁹⁵ 1책
- 一. 신申 11월 15일 여비정칙旅費定則 중 개정서⁹⁶ 1책
- 一. 『요코하마신문橫濱新聞』 610·611호 2매
- 一. 태정관 (포고) 354·355호
- 一. 『일신진사지日新眞事誌』 196호
- 一. 동同 부록 1

20 외무경이 조선 파견 외무성 관원 8등부터 15등까지 일당과 경비를 지급할 것을 상신하는 글

임신 11월 19일 제출

정원 귀중

소에지마副島 외무경

⁹³ 태정관 정표과에서 편찬간행한 종합통계서. '정표'는 'statistics'를 통계로 번역하기 이전의 번역어이다. 편찬된 메이지 4년(1871)이 신미년이라서 『신미정표』라고 이름 붙였다. 현재 통계연감의 전신이나 주된 내용은 1871년 당시 관원의 신분, 월급, 여러 비용 등에 한정되었다.

⁹⁴ 1872년 9월부터 박문사(博文社)가 발행한 잡지.

⁹⁵ 금화(20엔, 10엔, 5엔, 2엔, 1엔)와 은화(50전, 20전, 10전, 5전) 각각의 지름과 무게를 새로 규정한 표. 1871년 5월 신화폐예목(新貨幣例目)에 따라 분위 금화와 보조 은화 각각의 금은 순도(純度)와 무게가 규정되었는데, 1872년 11월 14일 태정관 포고 제341호로 50전 이하 보조 은화의 중량을 증가하고, 금화와 은화 50전, 20전의 크기를 축소하고 두께를 증가했다.

⁹⁶ 1872년 11월 15일 태정관 포고 제348호로 여비정칙을 개정한 것. 1872년 10월 15일 제309호로 공포된 여행정칙 총 27장 중에서 제4장, 제5장, 제12장, 제13장, 제17장, 제19장, 제24장을 개정했다.

조선국에 일시적으로 출장을 명한 외무성 관원이 그곳에 체류하는 동안의 수당은 지금까지 외국행 일당(日當) 외 경비로 하루에 한 사람당 양은(洋銀) 3불씩 대장성과 협의를 마친 다음 수취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국(同國) 초량공관(草梁公館)을 소 시계마사(宗重正)로부터 수취하여 피아(彼我)의 접대를 비롯해 인민 단속 등을 위해 외무성 관원이 각각 재근(在勤)을 명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 출장과 달리 그곳에 재류하는 이상 수당과 경비를 왕왕 관비(官費)로 해두면 자연히 비용이 증가하는 모습이라서 청국 재류 관원의 수당표(手當表)에 준하여 품의해야 합니다만, 청국은 무역이 성대하고 또 각국 영사와 그곳 지방관 등의 접대도 그에 따라서 왕성합니다. 조선국은 아직 그 형세에 이르지 않아 당분간 청국 수당으로 하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경비 등은 특별히 감하고 초량공관 재근의 자에 한정해서 외국행 일당·수당 이외에 도착 후 60일 이내의 수당을 다시 경비로 내려주어 이것으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단, 추후 피아 형세의 변혁에 따라 다시 품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별지를 첨부해서 이를 품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11월

품의한 대로

메이지 6년(1873) 2월 10일

조선 초량공관 재류 관원 수당고手當高

1개월

一. 금 75엔 8등

이것의 내역

금 45엔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1엔 50전씩 30일분

금 30엔 경비

단, 여비정칙에 따라 국내 여행은 도착 후 60일 동안 여행 중 체류, 순회 중 체류 모두
1일 금 1엔씩 30일분

1개월

一. 금 69엔 9등

이것의 내역

금 39엔 6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1엔 32전씩 30일분

금 30엔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금 1엔씩 30일분

97 금 69엔 60전

1개월

一. 금 60엔 10등

이것의 내역

금 33엔 9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1엔 13전씩 30일분

97 97 (시메)는 합계라는 의미.

금 26엔 10전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금 87전씩 30일분

↗ 금 60엔

1개월

一. 금 56엔 11등

이것의 내역

금 30엔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1엔씩 30일분

금 26엔 10전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금 87전씩 30일분

↗ 금 56엔 10전

1개월

一. 금 49엔 12등

이것의 내역

금 26엔 4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88전씩 30일분

금 22엔 50전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75전씩 30일분

↗ 금 48엔 90전

1개월

一. 금 45엔 13등

이것의 내역

금 22엔 8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76전씩 30일본

금 22엔 50전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75전씩 30일본

↗ 금 45엔 30전

1개월

一. 금 34엔 14등

이것의 내역

금 18엔 9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63전씩 30일본

금 15엔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금 50씩 30일본

↗ 금 33엔 90전

1개월

一. 금 32엔 15등

이것의 내역

금 17엔 10전 외국행 일당

단, 1일 금 57전씩 30일본

금 15엔 경비

단, 앞과 같음. 1일 금 50전씩 30일본

↗ 금 32엔 10전

위와 같이 재류 중 월^月 단위로 수당을 내려주고, 시중을 위해 고용하는 노복의 급료 및 물건을 만드는 도구와 침구를 빌리는 것, 주택이 약간 파손되어 수선하는 것 등은 모두 자비로 함.

단, 우편선과 도해하는 배의 뱃삿은 관비^{官費}로 하고 조선에 왕복하는 일수는 여비정칙의 일당만 준다. 조선 도착이 15일 이전이면 본문의 1개월 수당 전부를, 16일 이후면 반액을 줄 것.

21 외무경이 조선과의 무역에서 생긴 소^宗 씨 부채의 공사^{公私} 구별 및 처분을 상신하는 글

임신^{壬申} 11월 27일 제출함.

메이지 6년(1873) 3월 2일 주서^{朱書}대로 결제가 나서 3월 5일 출발하는 우선^{郵船}편으로 쓰시마^{對州} 출장 중인 모리야마^{森山}·히로쓰^{廣津}에게 보냄.

정원^{正院} 귀중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조선국에 대한 소^宗 씨의 공·사무역 지체 물품 상환을 위해 동류^{銅類}와 그 외 내려 주신 물품을 하나부사^{花房} 외무 대승이 그곳으로 가지고 가서 실지에서 반환액을 조사했는데, 이전 소 씨가 주장한 지체 물품 액수보다 크게 줄어 정동^{丁銅} 4만 근, 연동^{延銅} 9천 근, 기타 여러 물품의 꽤 많은 여분이 생겼습니다. 위는 이후의 모습에 따라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곳의 상인들에게 팔아넘겨 (그 금액을) 초량공관의 공비^{公費}로 유용할 생각으로 그대로 그곳에 남겨두고 나중에 정산하고자 합니다. 단, 위의 정동은 소 종사위^{從四位}와 무역 관계자들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으므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훈도와 기타 한상^{韓商}들로부

터 차입한 각각에 건네기로 약속했는데, 정동을 준비하지 못하여 다른 물품으로 변통해서 보내 상황을 완료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변통해서 내지內地 부채로 유용할 생각으로 신청해서 많은 여분이 생긴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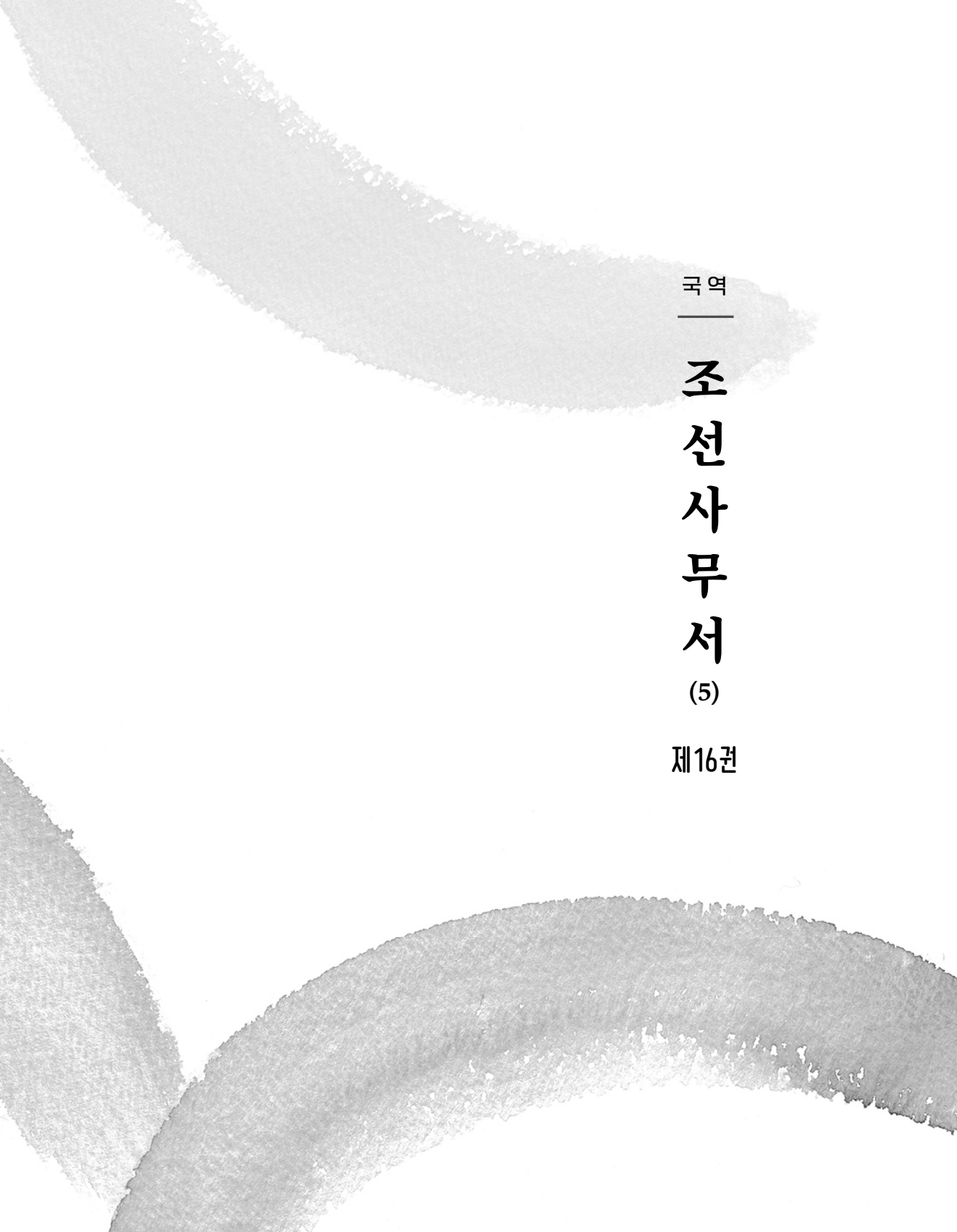
그 외 쓰시마[對州] 및 한지의 전 무역과貿易掛에서 계속 거두어들이는 공·사무역의 여러 물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7천여 금의 현품現品이 있어, 그대로 이즈하라嚴原의 전 무역과 사람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전 무역서貿易署에선 앞에서 서술한 조선 부채 이외에 도쿄·오사카·나가사키 등에서 차입한 것으로 무릇 4만여 금이 있습니다. 모두 지번사知藩事 봉직 이래의 일로, 곧 위의 부채도 받은 번의 재정으로 돌렸습니다. 또한 인교隣交의 직장職掌과 관련하여 세건歲遣을 주고받은 비용 등으로 충당한 부분도 있고, 또 파직 후 사사로이 무역해서 그 때문에 차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 신미년 중에 이마리현伊万里縣과 대장성大藏省이 지시한 취지도 있다고 하면서 폐번 전 부채에다가 계속 올해 임신년에 이르러 차입한 부분까지 공·사무역이 섞이어, 앞에서 서술한 4만여 금의 액수가 되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차입 월일의 전후와 사용 목적 등을 충분히 조사해서 지번사 봉직 중으로 세건 공무역이 존재하는 동안의 부채와 그때 번 재정으로 돌린 부분은 출입 모두 공에 속하고, 폐번 파직으로 세건 폐지 후 사무역을 통한 부채와 그 후 현縣의 용도로 돌린 부분은 출입 모두 소 씨 사가私家に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서술한 약 7천 금의 현품도 공무역에 속하는 부분은 공직의 일을 처리한 것이므로 관에서 인수하고, 사무역에 속하는 부분은 파직 후 사사롭게 한 일이므로 소 씨에게 주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는 내국內國 부채이므로, 차입 월일의 전후와 사용 내역 및 앞서 서술한 정동 액수를 다르게 신청한 내정內情 등의 사실을 대장성大藏省에서 충분히 조사한 다음, 일찍이 쓰시마[對州]에서 대장성에 제출한 쓰시마 번채藩債의 액수·내역 등과 비교해서 각각 처분하도록 대장성에 지시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의 조사를 위해 현품을 오랫동안 그대로 두면 백미와 그 밖의 물품들은 부패·결손의 우려도 있으므로 속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별지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품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11월

서면書面. 조선국 부채를 상환하고 남은 물품 정동 4만 근, 연동 9천 근, 기타 여러 물품을 그곳에서 매각한 대금을 대장성에 납부하든가, 또는 초량공관 공비公費로 바꾸어 넣고 명세·감정서를 대장성에 제출하든가 둘 중에서 처리하고, 무역 물품의 대가 7천여 엔의 현품은 공사 구분을 하여 처분하더라도 부패·결손 물품은 매각 하여 대금을 대장성에 납부할 것.

메이지 6년(1873) 3월 2일

之正
印院



국역

조선사무서
(5)

제16권

16

『조선사무서』 제16권

메이지明治 5년(1872)에 관계된 것

01 외무경이 심교尋交 절차와 목적을 진술하고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상신하는 글

조선과 심교尋交하는 절차 및 목적

- 一. 메이지明治 무진戊辰(1868년)에 소宗 쓰시마노카미對馬守가 조정의 뜻을 받들어 대차사大差使를 파견하고 인의를 닦을 것을 고함. 그 글 중에 ‘정권이 황실로 귀일’, ‘재주 없는 사람이 저번에 봉칙奉勅 하여’,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 ‘다이라노 아손平朝臣 아무개’, ‘예조참판 공’ 등의 말이 있었는데, 저들은 위의 ‘황실’과 ‘봉칙’ 글자는 두 나라 서계 중에 사용하지 않았고, ‘좌근위소장’과 ‘다이라노 아손平朝臣’도 전례가 없고, 압인押印도 약속과 다르며, ‘예조참판 공’은 마땅히 ‘예조참판 대인’으로 써야 한다고 하면서 접수하지 않음.
- 一. 그 후에 답판을 거듭하여 경오庚午(1870년) 2월에 이르러 동래부사 역시 단간單簡을 대차사에게 보내 황·칙 등의 글자를 논란함.

- 一. 그렇지만 ‘좌근위소장’의 칭호만은 인정함.
- 一. 황·칙 등의 자구를 사용하지 말고 두 정부에 지장이 없는 법어法語¹를 사용하여 교제를 수습하면 마땅하지 않겠냐고 훈도訓導와 담합談合한 끝에, 서신을 지어 경오년 10월에 외무 관원 등이 도한渡韓하였지만, 훈도는 한 번의 면담조차 허용하지 않음.
- 一. 신미辛未(1871년) 6월에 우리 표류민 몇 명을 화관和館(왜관)의 전안前岸에 버려둔 일.
- 一. 소宗 쓰시마 지사가 동래·부산 두 사또에게 글을 보내 외무 관원을 관접款接하실 것을 청하였지만 승낙하지 않겠다고 회답을 보낸 일.
- 一. 동인同人이 쓰시마번 지사를 그만두고 다시 외무 대승에 임명되어 두 나라 사이의 교제를 맡는다고 알린 글 및 외무관원 등이 동래·부산 두 사또에게 면담을 청하는 서간을 보내고, 처음에 파견한 대차사는 4년의 세월을 보내고 귀국한 일.
- 一. 새로 보낸 차사差使 등이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훈도에게 응접을 간구懇求한 것이 거의 20회에 이르렀지만 그대로 상경한 일.
- 一. 별차別差가 내려오므로 두 서계의 사본을 주고 속히 회답할 것을 구함에 30여 일 유예 해주기를 요청한 일.
- 一. 위의 기일을 넘긴 25, 6일 후에 이르러 훈도가 내려와서 말하기를, “공무의 일은 나라 안에서 논의를 모은 후에 결답決答할 것이고 그 기한 같은 것은 이를지 늦을지 세월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한 일.
- 一. 그렇다면 친히 동래부사를 만나 사절이 고민하는 실정과 결답의 대략적인 기한을 약속하고자 하여 훈도에게 동반하여 길을 열어주도록 요청했는데 승낙하므로, 차사와 관사 등이 동래에 들어가 면알面謁을 구했지만 허락하지

¹ 법도가 될 만한 정당한 말.

않음. 군관을 통해 답하기를, “나라 안에서 논의를 수렴한 후에 결답할 것이다. 오직 공손히 조만간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조만간이란 기한을 물으니 10년에서 7년이라 말함. 그래서 그 말한 바를 저들에게 필기하도록 하고 헛되이 귀관歸館한 일.

- 一. 그 후 논란論難하는 글을 작성하여 던져 보여주었는데 한 명의 접수자도 없었음.
- 一. “위의 상태에서는 가령 10년을 기약해도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이렇게 된 바에는 대승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하고 차사 등이 물러난 일.
- 一. 그렇지만 위의 화관和館(왜관)은 가키즈嘉吉(1441~1444) 이래 우리 인민이 왕래하고 거주하여 우리의 국권도 행사되어 온 곳으로 하루아침에 버려버림은 좋지 않으므로 추후 사절을 보내 답판하기까지는 아래의 조항대로 조치하는 것이 지금의 편의에 합당함.
- 一. 초량草梁의 관사館司 및 대관소代官所는 종전대로 그대로 둘 것.
- 一. 쓸모없는 사관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정리하여 귀국시킬 것.
- 一. 상인의 거류는 마음대로 할 것.
- 一. 감합인은 옛 인장을 사용할 것.
- 一. 세견선은 보내지 않을 것.
- 一. 지체된 세견 물품 중에서 소宗 씨의 부채에 해당하는 것은 감정하여 값을 것.
- 一. 쓰시마[對州]에 머무르고 있는 표류민들은 모두 돌려보낼 것.
- 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각별한 관원을 초량까지 파견하여 온당히 처분할 것.

메이지 5년(1872) 임신 8월 10일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 副島種臣

정원正院 귀중貴中

02 정원(正院)에 조선행 공금 5천 엔을 내려줄 것을 상신하는 글 및 결재 [2통]

임신(壬申)(1872년) 8월 14일 제출

정원 귀중

외무성

이번에 외무성 관원을 조선국에 파견하므로 준비금으로 금 5천 엔을 내려주십시오. 귀조(歸朝)한 다음 정산하여 결산 장부를 대장성에 전할 것이니 오는 19일까지 건네도록 대장성에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14일

이번에 외무성 관원을 조선국에 파견하므로 준비금으로 금 5천 엔을 내려주십시오. 귀조(歸朝)한 다음 정산하여 결산 장부를 대장성에 전할 것이니 오는 19일까지 건네도록 대장성에 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14일

외무성

정원 귀중

품의한 대로, 수취하는 방법은 대장성에 신청할 것.

正院
之印

8월 17일

03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도한(渡韓)하여 처분하는 일에 대해 유의할 건건을 품의하는 글

이번에 제가 조선국 출장을 명받았습니다. 따라서 제반 사항은 목적서(目的書)에 맞게 오로지 지금의 편의를 위주로 온당하게 처분할 것이지만, 아울러 명심을 위해 아래의 건건을 품의합니다.

一. 차사가 중도에 귀국한 것이라서 논란을 주장하는 일이 있으면, “접수 기한도 정하지 않아 완만(緩慢)의 죄를 두려워하여 일단 귀조한 것이므로 동인(同人) 또는 타인을 반드시 다시 보내겠다”라고만 대답하도록 할 것.

이어서 반드시 각별한 사절이 건너갈 것이다. 더구나 최초의 논의는 전혀 변한 것이 없으므로, 그때는 양국 인민의 안전과 번영의 기초를 확립하도록 서로 편리하게 주선하길 바란다는 뜻과 지금 세계의 기운이 진보하는 양상 등을 시기를 봐서 훈도나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할 것임.

시의(時宜)에 따라 대관소(代官所)는 삼대관(三代官)에게 맡기고 일대관은 철수시키는 것이 안팎으로 참으로 적절하다고 확인이 될 때는 그렇게 조치하는 것도 가능함.

만약 관사 또는 왜관 전체의 철수를 조선에서 강하게 바라는 모습이 있더라도, 본국의 명이 없으면 일보도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온건하게 논변(論辨)하고, 더욱 온화하게 해서 절대로 동요하지 않는다.

一.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는 앞의 건들을 명심시키는 외, 자신이 관사와 대관(代官)의 하료(下僚)의 모습으로 두 관리의 사이를 조화시키고, 감찰의 마음가짐으로 그 심복이 되어 대관과 한인² 사이에 존재하는 사교(私交)의 심천(深淺)·후박(厚薄), 그 정상(情狀) 등을 하나하나 탐지해서 억단(臆斷)을 섞지 않고 실태를 검사한

² 원본은 ‘간인(幹人)’으로 되어 있으나 한인(韓人)의 오키로 보인다.

그대로 보고하고, 만약 별도의 소견이 있으면 본건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로 밀봉해서 제출하라고 극비로 말해줄 것임.

- 一. 전건前件을 관사와 오쿠 요시노리에게 지령한 것과 관련하여, 그들의 신상에 만일 뜻밖의 일이 있으면 가족을 (국가에서) 버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아울러 그들의 내밀한 생각도 있으면 듣고 보고할 것임.
- 一. 대관에는, 그들의 소행에 대해 이전부터 들으신 것도 있지만, 무릇 조사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으니 기왕의 일을 고려하지 않고 장래를 위해 오로지 유념하면서 진력하도록, 이것 역시 내밀히 말할 것임.
- 一. 사무역이라 부르는 소 씨의 ‘모노폴리(독점)’ 무역은 우리 나가사키 당관唐館 무역과 본래 같은 맥락의 것이므로, 약간 방법을 달리하면 계속 거행할 수 있는 무해無害한 방법도 있을 것임. 그러나 당장은 이 외에, 해적선의 밀무역³은 기실 공공연한 통상의 무역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오히려 이 부분을 성대히 하도록 도와 점점 세력을 키울 작정이라는 것을 명심토록 해줄 것임.
- 一. 관사館司에게는 별지 취지의 각서로 하달해줄 작정임.

임신壬申(1872년) 8월 15일

하나부사 요시모토

³ 원문은 ‘バイン拔荷’인데, 조선에 도착한 일본 상선이 짐을 왜관에 다 부리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서 왜관 밖에서 무역하는 소위 잠상 행위를 말한다(김민, 「1872~1876년 과도기의 조일무역연구」, 『日本歴史研究』 55, 2021, 52쪽).

관사에게 명심하도록 해둔 건건

구달하는 각

- 이번에 묘의廟議의 취지도 있어 그대를 뽑아 다시 관사로 명하고, 각각 역원도 붙여 당관當館에 두니 한층 면려勉勵하여 굳게 참고 견디면서 근무할 것으로 생각함.
- 한인을 접우接遇하는⁴ 절차 등은 무릇 옛 방식으로 처리해두고, 만일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논담論談 등이 있을 때는 이즈하라嚴原 출장소 쪽과 협의하여 지시를 받고 처리할 것.
- 지금까지 들여보내 온 음식류가 지체하더라도 절대로 재촉하지 말 것. 그렇지만 간절한 뜻으로 보내온 부분은 그 뜻에 맡겨둘 것.
- 세건선은 중지된 것으로 이해할 것.
- 세건 무역에서 지체된 물품으로 소 씨의 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번에 청산하여 지급할 것.
- 감합인勘合印은 우선 옛 인장을 따르고 돌아오는 배의 취허吹嘘도 마찬가지로 처리해둘 것.
- 피아 표류민은 편의의 조치로 받거나 넘길 것.
- 재관在館 상인의 거류는 그들 마음대로 하게 하고, 다만 정사正邪를 감정하여 왕래 증표를 건네는 걸 엄중히 할 것.
- 피아 상인 서로 간의 무역은 가능하면 지장이 없도록 도와준다는 것으로 명심할 것.
- 재관의 인원 상하 모두 불량한 일이 없도록 단속하고, 만일 그릇된 행동을

⁴ 손님을 맞아들여 접대하다.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취지를 조사해서 보고할 것.

- 一. 양국 인민의 교통은 오로지 예양禮讓을 생각해서 조홀粗忽한 거동이 없어야 하므로 반드시 단속하고, 만일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가 있으면 시의에 따라 재빠르게 귀국시킬 것.
- 一. 잡인雜人이나 뱃사공 등에게 부역 등을 나누어 부과하여 관내의 옥우屋宇와 도로 등은 항상 청소할 것.
- 一. 관리들의 저택 영선營繕⁵은 될 수 있으면 비용을 줄임은 물론이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것은 상민商民이라도 원하면 빌려주어도 무방함.
- 一. 피아가 교섭한 일은 물론 조선의 사정은 품문이라 하더라도 상세히 때때로 보고할 것.
- 一. 회계에 관한 것은 많고 적음에 불구하고 모두 검인檢印한 후 처리할 것.
- 一. 매월 출납기록은 증서를 첨부하여 편의에 따라 매번 이즈하라 출장소까지 제출할 것.

이상.

04 해군성에서 정원의 사령서를 첨부하여 군함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내한來翰

병丙 제1,130호

별지 사본대로 정원正院에서 하달하였으므로 유념하시라고 회람합니다.

신申(1872년) 8월 17일

해군성

⁵ 건축물 따위를 새로 짓거나 수리함.

첨부 정원에서 해군성에 내린 명령서

이번 조선국에 군함을 파견하니 제반 사항은 외무성과 협의하여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처리해야 함.

신(1872년) 8월 17일

정원

해군성

05 하나부사(花房) 대승 외 4인이 도한을 배명(拜命)한 사령안(辭令案)

외무 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

공무로 조선국에 파견함.

임(1872년) 8월 18일

태정관

외무 소기(少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공무로 하나부사 외무 대승을 조선국에 파견하므로 수행을 명함.

임(1872년) 8월 18일

태정관

외무 소기 히로쓰 히로노부(廣津弘信)

같은 문언(文言)

임(1872년) 8월 18일

태정관

단, 히로노부가 쓰시마[對州] 이즈하라巖原에 체재하므로 대리는 모리야마 시게루

외무 권대록權大錄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공무로 하나부사 외무 대승을 조선국에 파견하므로 수행을 명함.

임신壬申(1872년) 8월 18일

정원正院

외무 소록少錄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조선국 초량 재근在勤을 명함.

임신壬申(1872년) 8월 18일

정원

06 조선사건 처분에 대해 외무경에게 내린 칙선勅宣 사본

사본

칙지

외무경 정사위正四位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 一. 초량 관사館司와 대관소代官所는 종전대로 세워 둘 것.
- 一. 쓸모없는 사관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정리하여 귀국시킬 것.
- 一. 상인의 거류는 마음대로 할 것.
- 一. 감합인勘合印은 옛 인장으로 할 것.
- 一. 세견선은 보내지 않을 것.
- 一. 세견 무역의 지체 물품 중 소宗 씨의 부채가 된 부분은 감정해서 지급할 것.
- 一. 쓰시마[對州]에 머무르고 있는 표류민들은 돌려보낼 것.

一. 위와 같이 조선국 출장 외무 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에게 하달할 것.

메이지 5년(1872) 임신 8월 18일

봉칙奉勅 태정대신太政大臣 종일위從一位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화압花押

07 외무경이 조선사건 처분의 건건에 대해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實에게 위임하는 글

7호레인七號レ印

외무 대승 종오위從五位 하나부사 요시모토

- 一. 초랑 관사館司와 대관소代官所는 종전대로 세워 둘 것.
- 一. 쓸모없는 사관士官과 잡인 등은 모두 정리하여 귀국시킬 것.
- 一. 상인의 거류는 마음대로 할 것.
- 一. 감합인勘合印은 옛 인장으로 할 것.
- 一. 세견선은 보내지 않을 것.
- 一. 세견 무역의 지체 물품 중 소宗 씨의 부채가 된 부분은 감정해서 지급할 것.
- 一. 쓰시마[對州]에 머무르고 있는 표류민들은 돌려보낼 것.

위와 같이 처리할 것.

메이지 5년(1872) 임신 8월 18일

외무경 정사위正四位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인印

이때 하나부사는 4등관 월봉 250엔, 모리야마는 7등 100엔, 사이토 권대록은 9등 월 50엔, 오쿠 소록은 12등 25엔이다.

08 외무경이 쓰시마[對州] 한어학소韓語學所 교원의 입비入費 지급을 상신하는 글

조선 어학은 전 이즈하라번嚴原藩에서 종래 보살펴 왔는데, 이제 폐절되었으므로 지난날 이래 주장한 대로 일개 년에 약 300엔 정도를 목적으로 해서 이즈하라에 조선 어학소를 설치해 두고자 합니다. 이것의 교수 방법은 지금까지 외무성 11등 출사出仕 히로세 나오유키廣瀬直行를 이번에 관직을 허가하고 14등 관급官給을 하사 해서 교도敎導를 명하고, 조교로는 등외等外의 자 1인을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의 필요한 비용은 이번에 가지고 건너가는公款 중에서 일시적으로 지급해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품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18일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인印

정원 귀중

품의한 대로.

正院
之印

임신壬申(1872년) 8월 25일

09 대장성에 하나부사花房 대승 외 3인의 월급 3개월분을 앞당겨 수취하는 건을 조회하는 글

8월 18일 통달함

대장성 귀중

외무성

4등 외무 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7등 외무 소기少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9등 외무 권대록權大錄 사이토 사카에齋藤榮

12등 외무 소록少錄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위는 조선국에 출장하므로 월급 이번 9월분부터 11월분까지 3개월분을 지금 앞당겨 수취하고자 합니다. 출발이 임박하여 모레 20일에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협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일

월급 지출

금 750냥兩	하나부사 외무 대승
금 300냥	모리야마 외무 소기
금 150냥	사이토 외무 권대록
금 75냥	오쿠 외무 소록
≡ 금 1,275냥	

10 대장성에 하나부사花房 대승 및 기타의 조선행 여비 등의 수취에 대해 조회하는 글

8월 18일 통달함

대장성 귀중

외무성

이번에 조선국 및 쓰시마[對州]에 파견하는 하나부사 외무 대승 이하 수행관원 여비 수당은 별지와 같습니다. 이 중 모리야마[森山] 소기[少記]는 오는 22일 오사카를 향해 출발하고 그 나머지는 관선[官船]을 타고 다음 달 2일 출범해서 오사카·나가사키·쓰시마[對州]로 건너가 그곳에서 공무를 마치고 조선국으로 도항합니다. 그러므로 각각 여장[旅裝]을 꾸릴 시간도 필요하므로 모레 20일 중으로 건넬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협의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18일

첨부 조선 및 쓰시마[對州]행 수당 조서調書

조선 및 쓰시마행 수당 지출

4등 하나부사 외무 대승

금 653엔

이 중 650엔 가지급假支給

내역

금 315엔 준비금

금 224엔 관선을 타고 도항하는 수당

단, 1일 금 4엔 90전, 도쿄에서 쓰시마까지 왕복 일수 대략 40일 예상

금 54엔 항해 중 경비

단, 경비는 상등 1인 1일에 1엔 35전, 항해 일수 대략 40일 예상

금 60엔 해외행海外行 수당

단, 쓰시마에서 조선 왕복 및 조선 체재 일수 합하여 대략 20일 예상, 1일 금 3엔씩

7등 모리야마 외무 소기

금 511엔 9전

이 중 510엔 가지급

내역

금 180엔 준비금

금 119엔 34전 및 여행 일당日當

단, 1일 9엔 18전, 도쿄에서 오사카까지 130리 1일 10리씩 일수 13일분

금 129엔 50전 관선을 타고 도항하는 수당

단, 1일 3엔 70전, 오사카에서 쓰시마 및 귀로까지 합하여 일수 35일분

금 47엔 25전 항해 중 경비

단, 경비는 상등 1인 1일에 1엔 35전, 항해 일수 35일분

금 35엔 해외행 수당

단, 1일 금 1엔 75전, 쓰시마에서 조선까지 왕복 및 조선 체류 일수 합하여 대략 20일
예상

9등 사이토齋藤 외무 권대록權大錄

금 292엔 40전

이 중 291엔 가지급假支給

내역

금 120엔 준비금

금 110엔 관선을 타고 도항하는 수당

단, 1일 금 2엔 75전, 도쿄에서 쓰시마까지 왕복 일수 대략 40일분

금 36엔 항해 중 경비

단, 선중船中 경비는 중등 1일 1인에 90전, 일수 40일분

금 26엔 40전 해외행 수당

단, 해외행 일당 금 1엔 32전, 쓰시마에서 조선까지 왕복 및 조선 체재 일수 합하여
20일분

12등 오쿠奥 외무 소록少錄

금 291엔 40전

이 중 290엔 가지급假支給

내역

금 75엔 준비금

금 40엔 관선을 타고 도항하는 수당

단, 1일 금 2엔, 도쿄에서 쓰시마까지 항해 일수 20일분

금 18엔 항해 중 경비

단, 항해 중 경비는 중등 1인 1일에 90전, 항해 일수 20일분

금 158엔 40전 해외행 수당

단, 해외행 일당 88전, 조선국 도착부터 체류 일수 180일분

↗

합계 금 1,747엔 89전

이 중 1,741엔 가지급

위와 같습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 11** 이토伊東 해군 소좌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각覺

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사관·수부에 이르기까지 일절 상륙하지 않을 터이고, 또 만일 토인土人들의 조포粗暴한 소행이 있더라도 군함은 결코 이에 응하지 않고, 더욱 온화하게 진퇴進退할 것을 도타케 히데유키遠武秀行⁶가 협의해 둘 것.

8월 19일

함장 이토伊東, 伊東祐亨 해군 소좌

⁶ 당시 가스가함(春日艦)에 탑승한 해군성 7등 출사.

12 선장 나카이 하쿠아이(中井博愛)가 군함의 부산포 정박 중 장교에서 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상륙하지 않도록 하는 따위를 단속한 증서

각覺

- 一. 운송선에 탑승한 자는 부산 정박 중 일절 상륙하지 않도록 유코마루(有功丸) 선장이 얘기해둘 것.

8월 20일

선장 나카이 하쿠아이

13 오사카부(大坂府)에서 조선에 가지고 갈 물품 조달 건에 대해 보낸 서한

임신(壬申)(1872년) 8월 24일 도래

이번 한국에 건넨 물품은 당부(當府)(오사카부)의 이즈미야 신에몬(泉屋新右衛門)에게 명하여 이달 그믐날까지라고 운운한 협의를 전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의 신에몬은 지금 다른 곳으로 가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인(同人)의 대리인들에게 문의했는데, 종전에 쓰시мага(對州家)에 납품했지만, 조선으로 가는 물품의 취급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부터 취급해 온 다른 사람이 있는지 문의했는데, 나가호리(長堀) 1초메(丁目) 이즈미야 이쿠에몬(幾右衛門)이란 자가 이래로 쓰시мага에서 한국에 건네는 물품을 취급했다고 해서 조속히 문의했는데, 말씀하신 물품은 모두 준비할 수 있고, 그중 칠기(漆器) 종류만 종전에 취급한 것은 상급품이 없고 게다가 크기도 정해야 해서 그때마다 주문하는데 날짜가 4, 50일이나 걸린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해서는 이달 중에 전부 갖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즈미야 이쿠에몬이 감정하도록 해서 크기와 형태가 비슷한 물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마련하여 마키에(蒔繪)나 또는 색칠하여 마감

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달 중에는 모든 물품을 포장해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겸하여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 8월 20일

오사카부^{大阪府} 匁

외무성 귀중

14 사관^{史官}에 쓰시마^{對州} 관할^{管轄}의 교체에 대해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조회하는 글

사관 귀중

하나부사 외무 대승

쓰시마^{對州}는 지금까지 사가현^{佐賀縣} 관할^{管轄}이었는데, 지금부터 나가사키현^{長崎縣}으로 관할 교체를 분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위와 같이 통달하신 것이라면 유념을 위해 통달하신 일자라도 번거롭지만, 알려주십시오. 이를 의뢰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2일

15 해군성에서 가스가함^{春日艦}의 출범을 통지하는 내한^{來翰}

병^丙 제1,168호

조선행 가스가함은 오는 28일 출범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오늘 오전 5시에 힌카

⁷ 마키에는 칠기 표면에 옷으로 문양이나 글씨 등을 그린 후 금은 가루를 그릇 표면에 뿌리는 일본의 전통공예 기법. 또는 그 기법을 사용해 만든 칠기.

이品海(시나가와) 출범, 그런 다음 그믐날 정오 전후에 오사카에 착함할 예정입니다.
이를 유념을 위해 미리 안내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2일

해군성

하나부사花房 외무 대승 님

모리야마 시게루森茂 님

16 이와하시 데쓰스케岩橋轡에게 동銅 수취의 건을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촉구하는 글

조선국에 가지고 건너갈 동銅 중에서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건네주시
겠다고 일찍이 모리야마森山 소기少記에게 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수취 기한을 누차
협의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선행 가스가함春日艦은
오는 28일 아침 5시에 힌카이品海를 출범, 그믐날 전후로 오사카에 착함할 예정이
라고 해군성에서 전해왔습니다. 따라서 고용한 유코마루有功丸도 마찬가지로 출범
을 준비하지 않으면 지장이 있으므로, 앞서 서술한 동은 언제쯤 건네실 수 있는지
상황을 알고자 합니다. 또 위 군함과 같은 날에 유코마루가 출범하는 것이 지장이
없는지, 그 배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래저래 날짜도 임박하고 있으므로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바로 즉답하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2일

하나부사 외무 대승

이와하시 데쓰스케⁸ 님

임신 8월 22일 오쿠奧 소록少錄이 지참하여 대장성에 전하고 협의했는데,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⁸ 당시 대장성 6등 출사.

(도쿄 니혼바시) 고아미초小網町 오카다 헤이조岡田平藏⁹가 동을 건네고, 그 나머지에 대한 답장은 내일 23일 전하겠다고 데쓰스케가 얘기함.

**17 사관史官에서 쓰시마[對州] 관할의 교체에 대해 나가사키長崎·사가佐賀 양현兩縣에의
사령안辭令案을 첨부해서 보낸 서한**

쓰시마[對州] 관할 교체 건에 대해 문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즉, 별지 사본
대로 이달 17일에 통달하였으므로 사본을 회람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3일
하나부사花房 외무 대승 님

사관

사가현佐賀縣

그 현에서 관할하는 쓰시마노쿠니對馬國 일대를 전의詮議를 통해 이번에 나가사
키현 관할管轄로 명하였으니 동현同縣에 인도할 것.

임신壬申(1872년) 8월 17일

태정관

나가사키현

사가현에서 관할하는 쓰시마노쿠니對馬國 일대를 전의詮議를 통해 이번에 그 현에
관할을 명하니 동현同縣으로부터 토지를 수취할 것.

임신壬申(1872년) 8월 17일

태정관

⁹ 조슈(長州) 출신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복심으로 알려진 오사카의 상인.

18 해군성에서 강화도의 측량도를 미국 군함으로부터 차용借用할 것에 대해 보낸 서한

병丙 제1,182호

외무성 귀중

해군성

미국과 프랑스가 조선국을 공격한 장소인 강화도의 측량도는 해군성에서 필요한데, 미국 군함 모노카시호가 소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매우 급히 빌려서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8월 23일

19 도타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미국 군함으로부터 빌린 조선 수도 근해 측량도를 건네기 위해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한

도타케 히데유키 님

하나부사 외무 대승

조선국 서울 근해의 측량도를 미국 군함 등으로부터 빌리는 것을 저번에 상하이에 말을 전해두었는데 이번에 3매를 보내왔습니다. 또 요코하마에 정박한 미국 군함으로부터도 2매를 빌렸으니, 도합 5매를 그대로 전합니다. 빠르게 베끼시고 원도(原圖)는 외무성에 반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4일

20 나가사키현長崎縣에 조선 관계 사무는 쓰시마[對州] 재근在勤 외무성 관원에 협의할 것을 통달하는 글

나가사키현

외무성

쓰시마노쿠니對馬國 일대는 그 현에서 관할管轄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므로 종전 조선국과 관계한 사무는 모두 외무성에서 관장하고, 조선 및 쓰시마 이즈하라嚴原에 관원을 두고 사무를 취급하도록 할 터이니, 당장 표류민 취급은 물론 조선국과 관계된 사건에 대해 이즈하라에 출장한 외무성 관원이 직접 협의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 현에서 당면한 일은 위 관원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이를 통달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4일

21 사관史官에서 『관원전서官員全書』를 회부回付하는 내한來翰

관성官省·부현府縣¹⁰ 『관원전서』,¹¹ 이번에 나온 것을 정리해서 회부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5일

사관

하나부사花房 외무 대승 님

¹⁰ 관성은 대정관과 중앙의 각 성, 부현은 폐번치현으로 통합된 75개 부현.

¹¹ 1872년 어용어서물소(御用御書物所)에서 관판(官版)으로 발행한 당시 일본 관리의 명단을 수록한 것으로 관등, 출신지, 임관 일자를 기재하였다.

22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가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을 하나부사花房 대승과 동행하여 도한하는 것에 대해 보낸 서한

기타무라北村¹² 육군 중좌, 가와무라河村¹³ 육군 소좌, 벳푸別府¹⁴ 육군 대위는 이번에 하나부사 외무 대승을 조선국에 파견하므로 동행을 명하였으니 유념하시라고 이를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하나부사 대승의 군함 승선은 내일 28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위 3명이 동승 해야 하나 지금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도저히 그렇게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승이 오사카에 도착한 뒤 며칠 머무르고 나가사키 재류는 며칠 정도입니까? 아무튼 두 곳 중에서 따라잡아 동행하도록 할 것이므로, 위 두 곳 재류의 기한 등을 자세히 알고자 합니다. 이를 매우 급히 교섭합니다.

신申, 壬申(1872년) 8월 27일

야마가타山縣, 山縣有朋 육군 대보

외무성 귀중

¹² 기타무라 시게요리(北村重頼, 1845~1878). 1871년 폐번치현으로 여친병(御親兵)이 설치되자 육군 소좌에 임명, 이듬해 중좌로 승진했다. 벳푸 신스케(別府晋介)와 함께 조선을 시찰했지만, 1873년 10월 이른바 정한론 정변을 계기로 근위대를 탈영한다. 11월에 동지와 함께 해군의사(海軍義社)를 결성했으나 곧 타니 다테키(谷干城)의 중개로 육군에 복직했다. 1877년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이 발발했을 때 고향 고치(高知)의 민심이 동요하자 이것의 진무(鎮撫)에 힘쓰고, 이듬해 3월에 사망했다.

¹³ 가와무라 요요(河村洋与). 1871년 육군 소좌로 임관, 12월 일본 육군 부사관 양성기관인 교도대(教導隊)가 교도단(教導團)으로 개칭되었을 때 초대 단장이 되었다. 1874년 2월 5일 중좌, 10월 17일 오사카 진대(鎮臺) 보병 제8연대에서 해임되었다.

¹⁴ 벳푸 신스케(別府晋介, 1847~1877). 정한론과 관련하여 사이고 다카모리가 만주 조선 정찰을 명했을 때, 기타무라 가와무라와 함께 외무 대승 하나부사의 수행원 형태로 부산에 가서 한복과 한국 모자를 착용하고 변장하여 2개월 가까이 조선 내지를 정찰했다. 귀국하여 키리노 도시아키(桐野利秋)를 방문했을 때 문밖에서 “계림 팔도를 유린함에 우리 2, 3개 중대면 충분하다”라고 외쳤다고 한다. 이후 소좌로 승진하지만, 정한론 정변으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하야하자 소좌직을 버리고 가고시마로 돌아왔다. 1877년 세이난 전쟁 때 군사를 모아 정부군에 대항했으나, 가고시마의 시로 야마(城山)가 함락된 9월 24일 총상을 입은 사이고 다카모리가 할복할 때 사이고의 목을 치고 이어서 그도 자결했다.

23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의 동행 도한渡韓에 대해 야마가타
山縣 육군 대보大輔에게 보낸 서한

야마가타 육군 대보 님

하나부사 외무 대승

기타무라 육군 중좌 외 2인의 동행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운운하면서 문의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오늘 가스가함春日艦에 승선, 내일 28일 아침 5시에 발선發船
할 계획입니다. 단, 효고兵庫에서 3, 4일 배가 머무를 예정이므로 다음 달 초하루
요코하마横浜 출발의 미국 우편선으로 고베神戸로 넘어오면 시간에 딸 수 있을 것
로 생각합니다. 위의 취지를 가스가함에 승선한 해군성의 자에게도 얘기해서 기다
리도록 했으니 힘껏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이를 회답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7일

24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로부터 하나부사花房 대승의 나가사키 체류 및 나가사키에
들르는지를 문의하는 내한來韓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을 하나부사 대승과 동행하도록 명하였으므로
교섭했는데, 효고兵庫 체류는 회답 서면으로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사키 체류는
전혀 회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가스가함은 나가사키 항에 입항하지 않는지, 자연히
입항하면 그곳에서의 정박은 대체로 며칠 정도인지 지금 일단 매우 급히 알려주
시길 바랍니다. 이를 거듭 문의합니다.

신申, 壬申(1872년) 8월 27일

야마가타 육군 대보

외무성 귀중

추신. 유코마루^{有功丸}에는 쓰시마^{對馬}로 출장하는 군대를 나가사키에서 승선시키므로 나가사키 향으로 돌아옵니다. 가스가함^{春日艦}은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를 교섭합니다.

25 육군성에서 가스가함^{春日艦}이 도한^{渡韓}하는 항로의 순서를 문의하기 위해 보낸 서한

두 번째의 회답은 잘 알았습니다. 가스가함은 효고^{兵庫} 항에서 바로 쓰시마^{對州}로 향해해서 그곳에서 유코마루^{有功丸}와 만나게 되는지 지금 일단 문의하니, 파악해서 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8일

육군성

○부전^{〔下ケ札〕}¹⁵

가스가함과 유코마루는 쓰시마^{對州}에서 만나는지 문의하신 취지인데, 위는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회답으로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8일

외무성

¹⁵ 사게후다(下ケ札)는 부전지의 일종으로 대체로 문서의 아래에 첨부하여 본문을 보충하거나 평의할 때 사용한다. 이 부전은 육군성의 문의에 대한 외무성의 답변에 해당한다.

26 가스가함春日艦은 바로 쓰시마[對州]로 가고 유코마루有功丸는 나가사키에 들른다고
야마가타山縣 육군 대보大輔에게 보낸 서한

야마가타 육군 대보 님

외무성

기타무라北村 육군 중좌 외 2인이 하나부사花房 대승과 동행하기로 명한 것과 관련하여, 효고兵庫 항 체류는 알겠는데, 나가사키 항 체류는 어떠한지 아시고자 하였습니다. 위 가스가함은 나가사키 항에는 들르지 않고 바로 쓰시마로 출발하므로 체류하지 않습니다. 유코마루는 전하신 대로 쓰시마[對州]로 출장하는 군대를 나가사키에서 승선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회답으로 알려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27일

27 피아 표민의 송환과 기타 건건에 대해 최재수崔在守가 내밀히 얘기한 것을 우라세
사이스케浦瀬最助가 듣고 적은 기록

소통사小通事 최재수가 내밀한 자리에서 대화한 내밀한 내용을 적은 요령¹⁶

- 一. 쌍방 표류민의 쇄환刷還은 종전의 규정 이외에 일시적으로 신례新例를 설치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구애拘碍되는 점이 있다. 직무에 편리한 방법이긴 하지만, 결코 이것만 신례로 거행할 수 없다. 그렇지만 비견鄙見으로 순편順便의 방법을 시험 삼아 말하면, 아직 관수館守가 존재하는 동안은 우리 표류민을 임관任官에 보내면, 곧 수취했다는 증서를 임관이 제출한다. 관수를 철제撤除¹⁷

¹⁶ 가장 긴요하고 으뜸이 되는 골자나 줄거리.

¹⁷ 거두어 제거함.

한 때에 이르러서는 내지內地 중 어디라도 보낼 수 있다. 또 귀방貴邦의 표류민도 역시 관수가 존재할 때는 임관이 관수에게 보내고, 관수가 철회한 때에 이르러서는 귀방 중 가까운 해안의 지방에 송환하면 마땅하지 않겠냐고 생각함.

- 一. 관사館司가 재관在館 인원을 정리해서 철수하는 때에 이르면, 인교隣交를 맺을 당초에 소宗 씨가 간절히 말한 근본을 헤아려 (철수하는) 그 까닭을 내세울 수 있는 서신을 관사로부터 수취하고, 그런 다음 소 씨가 세운 옥우屋宇 등은 철거하고 관지館地(왜관 부지)는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단지 아무 까닭도 없이 관사가 철수하거나 혹은 도중에 귀국하는 따위는 하지 말 것.
- 一. 관사는 관중館中の 사족과 상인을 총리總理하는 장관이므로, 관사가 철수할 때는 사족과 상인 모두를 정리해서 귀국함은 물론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응접해야 할 대상이 없으니 헛되이 동래·부산 및 임관·소통사 그 외 허다한 접대관을 헛되이 갖출 이유가 없다. 관지는 원래의 초량읍草梁邑에 귀속될 거라고 생각함.
- 一. 이번에 차사差使가 휴대하신 바의 서한 사본과 해의서解疑書·구진서口陳書를 (조선) 조정에 내밀히 아뢰어 (차사가 요청한) 사정을 관철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대대로 귀국과 교류한 규칙을 완전히 변혁하지 않으면 교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선왕先王의 국전國典은 항규恒規라서 지금 이 시대에 이르러 갑자기 변개變改할 수 없는 관건이므로, 나라 안의 의견을 묻고 논의를 다 하여 조만간 결답하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동래에서 친솔親率 군관을 통해 알렸음에도, 결답의 날까지 기다린다거나 기다리지 않겠다는 회답도 없이 차사가 귀국하게 된 것이므로, 지금은 특별한 국론이란 것도 없음.
- 一. 관지를 인도引渡하고 인원을 철수한 후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사절에게 서한을 지참시켜 쓰시마對州에 보낼 것이다. 그 서한의 의미는, 수백 년 대도貸渡¹⁸

해두신 초량의 땅을 관사가 운운한 사정을 서면으로 요청한 다음 지면地面을 반환하여 수취했다. 또 귀방이 제도를 일실했다고 운운한 보고에 따라 우리 역시 각각 응할 방법을 나라 안의 의견을 묻고 논의를 다 하여 조만간 결답할 날이 있으니 그동안 기다려달라고 회답했는데, 앞의 조항에서 운운한 취지로 철수하게 된 것이니 행여 우리가 부조리하다고 하지 말라는 등의 취지로 글을 실어 보내는 일도 있을 것이다. 다만 대마도주[州守]가 없으므로 누구도 받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때는 쓰시마[對州] 지방 어디에서든 대나무 조각에 끼워 세워서 버리고 돌아오면 그만이다.

- 一. 관사를 둔 것은 양간兩間¹⁹의 사민土民이 간사하게 범법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에도, 이번에 관사가 앞장서 월경한 것은 매우 적절치 못하므로, 갑자기 부사와 훈도가 복직한다면 반드시 논란이 생길 걸로 생각한다. 따라서 정식定式的 접대 물품을 들여보내는 것도 중지함.

위와 같이²⁰ 동래부 요로要路에 있는 자들이 내밀히 평하고 있다고 비밀로 얘기함.

- 一. 그리고 동인同人(최재수)과 한담 중에 내가 나라 안에서 의견을 묻고 논의를 다 하더라도 나라의 크기가 있으니 대략 연월을 기약할 수 있을 터인데 왜 기한을 확정할 회답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원래 대략의 목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하므로, 그러면 그 대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물었더니, 반드시 국론을 결정할 기한을 정하려면 우선 임시로 할 (교제의) 적주敵主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 국론을 다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된다. 즉 소 씨라면 세견선을 비롯해 양간兩間의 온갖 격례格例를 옛 방식으로 시행한 다음, 그

¹⁸ 나중에 반환하기로 약속하고 물건을 빌려주는 일.

¹⁹ 원서의 '兩官'은 '兩間'의 오키로 보인다.

²⁰ 원서는 '右使'로 되어 있으나 의미가 통하지 않으며, '右樣'의 오키로 보인다.

가인家人 사가라相良, 相良正樹가 귀현歸縣한 후 “충분히 생각하니 그 결답이 조만간이라 하는 것은 기한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아직 복명할 수 없다. 부디 3년을 기한으로 결답에 이르기를 진력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훈도 앞으로 서한을 보내면, 국론을 결정한 다음 성부成否는 헤아리기 어렵지만, 우선 3년을 기한으로 반드시 결정에 이른다는 회답을 훈도가 제출하도록 진력하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음.

위의 것을 토론하였지만, 쓸모가 없는 것이라서 생략함. 오직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8월

우라세 유타카浦瀬裕

28 덴포잔天保山 앞바다에서 조선행 짐을 선적함에 따라 단속을 위해 등외等外 관리 차용借用을 와타나베渡邊 권지사權知事에게 하나부사花房 대승 등이 의뢰하는 글

20일 도착

와타나베渡邊²¹ 권지사 님 하나부사 외무 대승·모리야마 외무 소기

지난날 이래 의뢰한 조선국에 건넬 물품을 모레 3일 이른 아침에 덴포잔 앞바다에서 선적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동류銅類와 그 밖의 것을 더 실어 보내려 하는데, (저희가) 여행지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어려우니, (오사카)부에서 화물 선적 단속을 위해 등외의 자 7인 정도를 모아 차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를 의뢰합니다. 자세한 것은 마에다前田 전사典事²²에게 얘기해 두었습니다. 이를 협의합니다.

²¹ 와타나베 노보리(渡邊昇, 1838~1913).

임신^{壬申}(1872년) 9월 초하루

29 사가현^{佐賀縣} 이즈하라^{嚴原} 출장소에서 한국 표민의 송환은 스미히사마루^{住壽丸}로 정했다고 보낸 서한

표민을 태울 배는 아래의 선장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회보^{回報}합니다.

600석을 실을 수 있는 크기 스미히사마루^{住壽丸}
선장 핫토리 세이키치^{服部清吉}

임신^{壬申}(1872년) 9월 13일

이즈하라^{嚴原} 출장

佐賀縣
出張所印

외무성 출사^{出使} 귀중

30 후카미 관사와 하나부사의 회견 내용

임신 9월 15일 밤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를 호출하여 7월 이래 히로쓰^{廣津} 소기에게 올린 글의 내용을 묻고 로쿠로가 대답한 내용의 대략을 베낀 글

一. 7월 상순 무렵 우라세 요시히로^{浦瀬好裕}가 관사 저택에 가서 (말하기를), 5월

²² 전사(典事, 덴지)는 부·현(府縣)에 설치된 지방의 관리로 8등급의 판임관.

26일 훈도가 입관했을 때 지금 좀 더 응접하고 답관을 거둬하면 서계書契 봉출
捧出의 가부를 확답할 기한을 정할 심산이었는데, 차사差使와 관사館司 모두
출관입부出館入府²³를 답관하였기 때문에 교섭이 결렬된 것은 전적으로 차사
와 관사의 실책이라는 취지로 최재수崔在守가 나카야마 기헤에中山喜兵衛에게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졸자(후카미)는 “그때 출관한 정실은 족하足下(우라세)도 동석하여 해명하고,
이에 어쩔 수 없이 나서게 된 것은 이미 숙지한 바이니 다시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 기헤에喜兵衛에게 말한 내용이 어떤 뜻에서 나온 것인지 더욱 자세히 얘기
해서 알아보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다음 날 아침 우라세가 다시 와서 “어제의 일에
대해 상황에 따라서는 확답 기한을 약속하려는 노력이 없다고도 생각하지 않으
므로 저 요시히로가 직접 재수를 만나 내밀히 대답해보면 어떻겠습니까?”라고
얘기하므로, “봄 이후 관원이 주장한 취지는 물론 그대가 체인體認하고 있어 저들을
설득하려 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얘기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우라세가 최재수와 내밀히 대화한 다음, 우라세가 관사에게 말하기를,
“3개년이 지나 해년亥年(을해년)(1875년)에 이르러 확답해주길 바란다는 의뢰 서면을
차사가 귀군貴君(관사)에게 주어 건네고, 또 연조선年條船 기타 표민 송환의 절차 등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구규舊規를 준수한다면, 반드시 해년亥年에 이르러 확답에 이르
도록 충실히 담당하고 주선해서 성공을 기하겠다”라고【성공이란 확답에 이르기까지의 일
이다. (서계 수리의) 가부는 아니다】운운(이는 우라세가 도쿄에서도 자세히 주장했으므로 생략)하므로, 졸자
는 “이 건은 제도개혁을 통지한 서계안書契案을 건넨 것이고 또 체재體裁에 있어
그렇게 될 도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세한 사정을 이즈하라嚴原 출장 관원
에게 얘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대답해둬.

²³ 왜관을 난출하여 동래부에 가는 것을 말함.

一. 그 후 7월 14, 5일부터 동인(同人)(우라세)의 이즈하라 귀향이 임박하던 중에 이즈하라로부터 사가현 출장소(佐賀縣出張所)의 통달서가 도래하여, 이곳 대관소(代官所)의 모든 이를 빨리 철수시켜 귀현(歸縣)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취지를 엄달(嚴達)해두었지만, 7월 말에 이르러 계속 영주(永住)할 작정인 것 같았습니다. 위는 우라세·나카야마·최재수가 담합한 것이 성취된 게 아닌가 하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一. 우라세가 재판 중에 최재수가 “관사는 입부 이래 외향(조선)에서 관사를 인정하지 않고, 또 관사는 직임을 거슬러 차사를 진정(鎮靜)·미봉(彌縫)할 수 없었을 뿐더러 도리어 함께 출관을 운운하기에 이르러, 외향에서 크게 의론도 있으므로 지금 무엇보다 빨리 귀현(歸縣)하는 쪽이 사정상 좋을 것”이라고 말한 취지를 우라세가 얘기했습니다. 그 후 전어관(傳語官)²⁴들에게도 최재수와 기타 소통사(小通事)들이 당(當) 관사는 외향에서 관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얘기한 일도 있습니다. 8월 28일 신별차(新別差) 대유(大有) 현(玄) 첨지(僉知)²⁵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입관하여 명신청(明信廳)²⁶에 왔을 때 선례대로 관사에 알리고 절차를 마련하도록 전어관이 얘기했는데, 해당 관사는 입부 후 조정의 명에 따라 관사로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는 다음 위치인 일대관에게 양국의 경중(輕重) 대소사를 담판할 생각이므로 관사에게는 성명을 알리지도 않는다고 말하여 전어관들도 분격했다. 이 일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청해야 하고, 논담하는 차에 끝까지 추궁하지 않으면 안 되고 무엇보다 내버려 둘 수 없는 일이지만, 이미 머지않아 도쿄의 소식이 도달하기를 밤낮으로 갈망하는 때에 만일 이 일 때문에 곤란한 쟁단(爭端)을 생기게 해서는 이것 또한 두렵기 그지 없으므로, 이를 갈고 참으면서 우선은 그대로 내버려두도록 얘기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와 나가야 주스케(長屋忠助) 양인이 참을

²⁴ 왜관의 일본인 통역.

²⁵ 대유는 현풍서(玄豊瑞)의 자. 현풍서는 1825년 생으로 1858년 역과에 합격했다.

²⁶ 왜관 대청의 이름.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일대관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를 향해 외항(조선)에서 관사를 제외하고 일대관에게 담판하겠다는 것을, 일대관으로서 방관하면서 달게 여길 심산이냐고 다그친 다음 관사 저택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이즈·하루타·나가야가 평의하여, 가이즈가 별차를 초대면(初對面)하는 의식으로 9월 7일 면회하는 자리에서 얘기하는 기회에 관사 운운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별차가) 승낙하고 돌아간 다음 서면을 제출함.

위 별차의 서면은 별철(別綴)에 있어 생략함.

31 해군성에서 조선해 측량도를 돌려보낸다는 내한來翰

병(丙) 제1,385호

조선국지도(朝鮮國之圖) 7매

위는 가스가함(春日艦) 출범 전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도타케 히데유키(遠武秀行)에게 보냈는데, 당 성(海軍성)에서 모사(模寫)를 끝냈으므로 돌려보내니 수령(受領)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5일

해군성

외무성 귀중

서입(書入) 위 지도는 서적과(書籍掛)에 인도할 것.

32 조선 관계 서적 목록

- 『고이지(考異志)』²⁷ 3책
- 『지진록(知津錄)』²⁸ 4책

위는 도료에 비치한 것.

- 『조선속고(朝鮮俗考)』²⁹ 1책
- 『조선통교시지서(朝鮮通交始之書)』³⁰ 1책
- 『경국대전(經國大典)』 3책
- 『조선관원고(朝鮮官員考)』 1책
- 『고사촬요(考事撮要)』 1책
- 『해동기(海東記)』³¹ 3책, 이 중 2책은 식례장식(式例帳)³²으로 되어 있음
- 『조선각도각읍각산도리(朝鮮各道各邑各山道里)』 1책
- 『조선군현지수병석고(朝鮮郡縣之數并石高)』 1책
- 『조선칭척·연공·인수등각서(朝鮮稱尺年貢人數等覺書)』 1책
- 『이관기사(移館紀事)』 3책
- 『죽도기사(竹島紀事)』³³ 조선 비치

²⁷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海槎錄)』에는 「조선국연혁고이(朝鮮國沿革考異)」와 「풍속고이(風俗考異)」라는 두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두 글은 일본 승려 소친(宗陳)의 요청으로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수록된 조선의 연혁과 풍속에 대해 변증한 글이다.

²⁸ 1796년 쓰시마의 진문역(眞文役)인 사사키 게이키치(佐々木恵吉)가 편찬한 『교린지진록(交隣知津錄)』.

²⁹ 1720년 저술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조선 풍속고(朝鮮風俗考)』로 보이거나 불분명.

³⁰ 조선과 통교한 시말을 다룬 아메노모리 호슈의 저작.

³¹ 세종 25년(1443) 2월, 변효문(卞孝文)이 일본에 통신사로 갈 때 서장관(書狀官)으로 따라갔던 신숙주(申叔舟)가 지은 일본에 대한 기록으로 해행총재 1책에 수록되었음. 원명은 『해동제국기(海東諸國記)』임.

³² 『해동제국기』의 「조방응접기(朝聘應接紀)」인 것으로 보인다.

³³ 1726년 쓰시마의 고시쓰네 에몬(越常右衛門)이 숙종 대의 다케시마(竹島, 현재의 울릉도) 쟁계(爭界) 사건의 전말을 편찬한 책.

一. 『통교대기通交大紀』³⁴ 조선 비치

一. 『적류공跡留控』³⁵ 10책

33 소宗 씨 대관소代官所 인영印影³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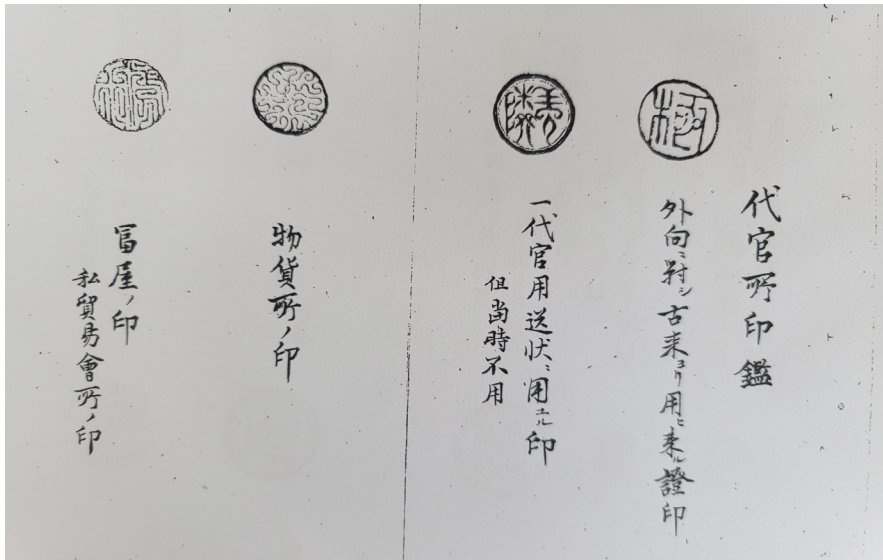


그림 1 대관소 인감(오른쪽부터)

- ▶ 외향(조선)에 대해 고래부터 사용해 온 증인.('極' 자가 새겨져 있다.)
- ▶ 일대관용 송장에 사용한 인. 단, 당시 불용.('交隣' 글자가 새겨져 있다.)
- ▶ 물화소(物貨所) 인. (물화소는 1870년 1월에 무역방, 출납방, 생산방을 통합한 기구)
- ▶ 부옥(富屋) 인, 사무역 회소(私貿易會所) 인. (회소는 관리의 통제를 받는 무역 기관)

³⁴ 『조선통교대기』, 1725년 쓰시마의 유학자 마쓰우라 마사타다(松浦允任, 1678~1728)가 편찬한 책으로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1부터 권8까지는 1368~1716년의 고려-조선과 일본 간에 교환한 문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편자의 견해를 첨부하였다. 권9 및 권10에는 1590년 일본에 파견된 통신부사 김성일(金誠一)의 『해사록(海槎錄)』이 수록되어 있다.

³⁵ 왜관에서 조선 측과 교환한 문서를 모아 놓은 것으로, 히카에(掟)는 비망록이란 의미.

³⁶ 아래 그림 1)의 인감 그림은 본 영인본에 누락(漏落)되어 있어 일본 외무성 외교사료관 소장의 『조선사무서』(JACAR Ref.B03030170200 9/56)를 통해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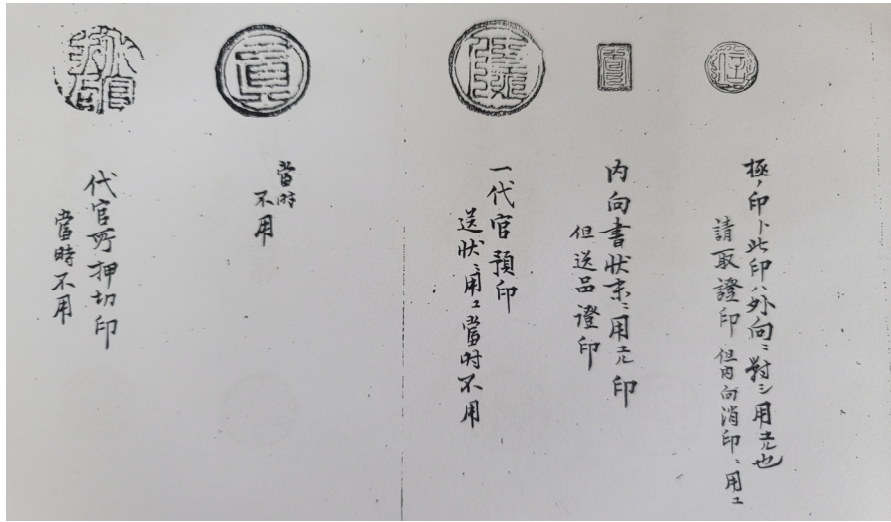


그림 2 대관소 인감(오른쪽부터)

- ▶ 극(極)의 인장(극인은 품질을 보증하고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찍는 인장)과 이 인장은 외향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수취 증인(證印). 단, 내향(쓰시마번) 소인(消印)에 사용.
- ▶ 내향 서장 끝에 사용하는 인. 단, 송품(送品) 증인.
- ▶ 일대관 예인(預印). 송장에 사용, 당시 불용.
- ▶ 당시 불용.
- ▶ 대관소 압절인(押切印. 두 장의 문서에 걸쳐서 찍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도장으로 간인, 할인, 계인이라고도 한다), 당시 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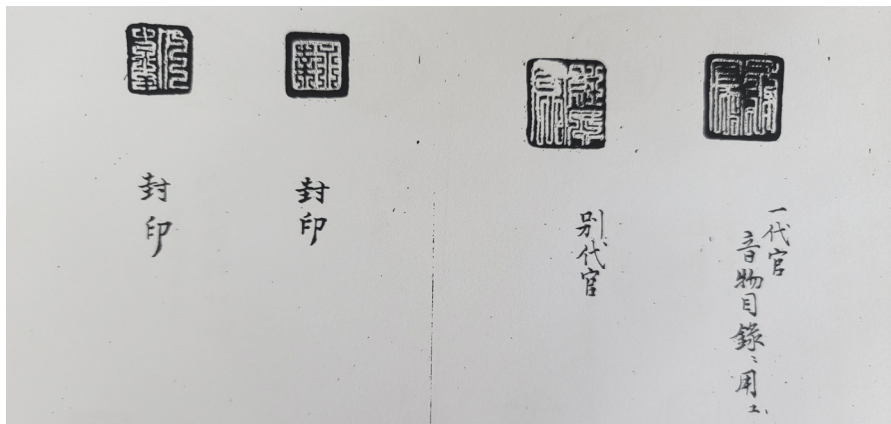


그림 3 대관소 인감(오른쪽부터)

- ▶ 일대관 선물 목록에 사용, 별대관, 봉인, 봉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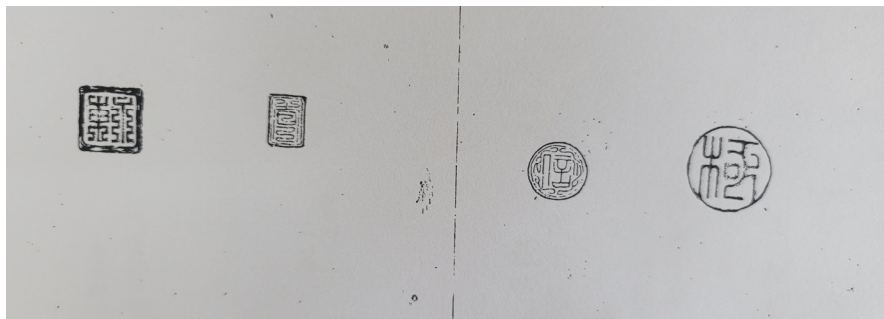


그림 4 앞의 극인, 수취 증인, 송품 증인, 봉인을 다시 찍은 것.

34 후카미 로쿠로 深見六郎 외 4인의 배명 拜命 사령서와 수령서 [5통]

각통各通임

후카미 로쿠로

관사館司에 임명함.

단, 9등 관급官給을 하사함.

히로세 나오키 廣瀬直行

일대관 겸무를 맡을 것.

스미나가 유스케 住永友輔

이대관 겸 대통사를 명함.

단, 14등 관급을 하사함.

쓰카다 기사부로 束田喜三郎

통사 겸 서기를 명함.

단, 15등 관급을 하사함.

스미나가 계조 住永啓三

통사 겸 서기를 명함.

단, 15등 관급을 하사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6일

외무성

나가사키현 전 이즈하라 사족, 본래 고향[本國]과 태어난 고향[生國] 모두 쓰시마
[對州], 다이라平 성씨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 (인), 임신년 현재 29세
초량 관사로 임명하고 9등 관록을 하사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6일 배명拜命

나가사키현 전 이즈하라 상인, 본래 고향[本國]과 태어난 고향[生國] 모두 쓰시마
[對州], 다이라平 성씨 스미나가 나옴치住永直道 (인), 임신년 현재 50세
대통사 겸 삼대관三代官으로 임명하고 14등 관록을 하사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6일 배명拜命

나가사키현 전 이즈하라 상인, 본래 고향[本國]과 태어난 고향[生國] 모두 쓰시마
[對州], 다이라平 성씨 쓰카다 이라東田伊良 (인), 임신년 현재 31세
통사 겸 서기로 임명하고 15등 관록을 하사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6일 배명拜命

나가사키현 전 이즈하라 상인, 본래 고향[本國]과 태어난 고향[生國] 모두 쓰시마
[對州], 다이라平 성씨 스미나가 신타住永辰妥 (인), 임신년 현재 29세

통사 겸 서기로 임명하고 15등 관록을 하사함.

임신_{壬申}(1872년) 9월 16일 배명_{拜命}

35 가이즈 시게타로_{海津茂太郎} 외 2인의 귀국을 명하는 사령안_{辭令案}을 첨부해서 후카미
로쿠로_{深見六郎}에게 통달하는 글

가이즈 시게타로

우에노 게이스케_{上野敬助}

나카야마 기헤에_{中山喜兵衛}

조사할 사항이 있으므로 조속히 귀국할 것.

임신_{壬申}(1872년) 9월 16일

외무성 출사_{出使}

후카미 로쿠로

가이즈 시게타로 외 2인에게 별지대로 언도_{言渡}하니 조속히 귀국하도록 조치
할 것.

임신_{壬申}(1872년) 9월 16일

외무성 출사_{出使}

36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외 3인을 등용했다고 알리는 글

후카미 로쿠로

관사를 명함. 단, 9등 관급^{官給} 하사함.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

이대관 겸 대통사를 명함. 단, 14등 관급 하사함.

쓰카다 기사부로^{東田喜三郎}

통사 겸 서기를 명함. 단, 15등 관급 하사함.

위와 같이 어제 16일 통달했으므로 이를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7일

하나부사^{花房} 외무 대승

사가현 출장소^{佐賀縣出張所}

37 9월 17일 하나부사^{花房} 대승이 보낸 서신

임신^{壬申}(1872년) 9월 18일 발송

날로 가을 추위가 더해지는데 각위^{各位}께서 평안·진중^{珍重}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가스가함^{春日艦}은 지난 10일, 유코마루^{有功丸}는 동 12일 군대를 태우고 쓰시마^{對州}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무역서^{貿易署}를 조사하고 공·사무역에 관계된 무역서의
현유품^{現有品} 등은 귀국하는 길에 조치할 생각으로 우선 예치해 두었습니다.

一. 도서인^{圖書印}과 서류 등은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위 인장은 전 교린괘^{交隣掛}의
자에게 우선 맡겨둬.

- 一. 일행 관원은 지난 15일 미명에 쓰시마[對州]를 출범, 동일 오후 제4자字 무렵에 가스가·유코 두 함 모두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요즈음 외항(조선)의 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별로 변한 건 없습니다. 화륜선의 도한渡韓에 대해 크게 동요할 정도의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한인 소통사小通事와 수영水營의 자들이 군함 배견拜見을 원하여 흔쾌히 허락함.
- 一. 표류민 13명은 이즈하라嚴原에서 화선和船³⁷에 태워 증기선으로 예인해서 건너왔습니다. 일대관이 저 나라 임관任官과 협의하여 절차를 생략하고 임관으로부터 수취서를 받아 오늘 밤 인도를 마침.
- 一. 대관소代官所가 담당하는 일을 규명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물품의 조사를 끝내고, 부채 상환 방법에 대해 임관과 협의 중에 있음.
- 一. 대관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명은 올해 5월 중 차사差使 등이 동래부에 들어가 왜관을 비운 도중에 부사 면회에 대해 저들이 내의內意를 물어왔을 때, 혼자만의 졸렬한 대답을 한 경위를 조사한 끝에 모두 귀현歸縣을 명하고 내일 아침 배에 태워 이즈하라에서 친척과 정町에서 말아 근신하게 하도록 사가현 출장소와 협의해 두었습니다. 기타 쓸모없는 사족과 병졸 모두의 귀국을 명하고 머지않아 퇴거시킬 것임.
- 一. 이즈하라에서 평의한 사정도 있어 히로세 나오키廣瀬直行的 도한渡韓을 명함.
- 一. 일대관은 임시로 히로세 나오키에게 겸무兼務를 명하여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고 기타 별지와 같이 언도言渡함.
- 一. 위 대관소 무역의 조사와 관련하여 소宗 종사위從四位로부터 어떤 건의가 있더라도 (저, 하나부사의) 귀조歸朝까지는 지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一. 두 함艦이 한국에 도착한 이후 관문館門은 평소대로 열려 있고 소통사는 끊임 없이 출입하고 있지만, 장사꾼과 품팔이 등은 일절 입관하지 않아 소위 철시

³⁷ 와센. 일본의 재래식 목조선.

撤市 상태입니다.

위의 취지로 대략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7일

하나부사 외무 대승

대·소승大少丞 귀중

추신. 별지 소 씨에게 보내는 서한 1통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38 대관소代官所 취급 조목

대관소에서 맡아 다루는 부문

- 一. 건물의 건축과 수리
- 一. 창고의 수리 복구
- 一. 관내에 비치한 여러 도구
- 一. 현유現有 물품 조사 이변에 한함
- 一. 사무역 미결제 액수 조사 이변에 한함
- 一. 여러 서물書物
- 一. 관내 비용의 액수를 정함
- 一. 임시 비용 출납
- 一. 일상 물품의 납입과 지불
- 一. 비선飛船 비용
- 一. 대선大船 비용
- 一. 화물 보관료 액수

- 一. 표류민을 받고 보내는 것과 그 비용
- 一. 쌀과 신탄薪炭 등 운수
- 一. 관원의 월급과 수당을 조사해서 건네는 일
- 一. 조선 접대 비용

39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외 2인을 친척과 정町에서 맞아 근신시키도록 하라고 통달하는 글

조선국 화관和館(왜관)에 근무하고 있는 구 이즈하라번巖原藩 사족 가이즈 시게타로, 동同 상인 우에노 게이스케上野敬助·나카야마 기헤에中山喜兵衛는 조사할 사항이 있어 이번에 귀국을 언도言渡하고 돌려보내니, 이즈하라에 도착하면 추후 담판하실 때까지 친척과 정에서 맞아 근신시키도록 조치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를 통달합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18일

한지韓地의 하나부사 외무 대승

사가현 출장소

40 오쿠 요시노리奥義制에게 감찰을 명하는 사령서

학사學士 겸 감찰監察을 맡을 것.

임신壬申(1872년) 9월 18일

외무성 출사出使

41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에게 이대관二代官을 맡을 것을 명하는 사령서와 수령서〔2통〕

하루타 조주로

이대관을 맡을 것.

9월 20일

외무성 출사出使

나가사키현 전 이즈하라巖原 사족, 본래 고향[本國]과 태어난 고향[生國] 모두 쓰시마[對州], 다이라平 성씨 하루타 미치타카春田道尊 (인), 임신년 현재 32세
이대관을 맡을 것을 명함.

임신壬申(1872년) 9월 19일 14등 관록官祿 하사를 배명拜命

42 조선에 왕래하는 선박의 감합인勘合印과 편선便船 왕래 증명서를 건네는 절차서

당장 도한渡韓을 출원하는 자는 이 절차로 취급할 것.

다만 포고는 잠시 보류해야 함. 그 시기는 이즈하라에서 전할 것임.

조선국을 왕래하는 선박의 감합인과 편선의 왕래 증명서를 건네는 절차
갈 때

一. 각 선박에 감합인을 건넬 것

이것은 상업용으로 도한渡韓하고자 한다고 선주가 지방관에게 원서를 제출하고 검인檢印을 받은 다음, 한 척당 총적재량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서 외무성 출장소에 출원한다. 감합인과 선주·수부水夫의 왕래 증명서를 수취하여 각각 휴대할 것.

단, 한국에 도착한 다음 위 감합인 및 수출 화물 적재 목록, 왕래 증명서 모두를 관사에게 제출할 것.

一. 왕래 증명서

이것은 편선으로 도항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관에게 원서를 제출하고 검인을 받은 다음, 휴대한 상품의 목록을 첨부해서 외무성 출장소에 출원하고 왕래 증명서를 받을 것.

단, 왕래 증명서는 각 사람의 숫자대로 소지할 것.

증명서 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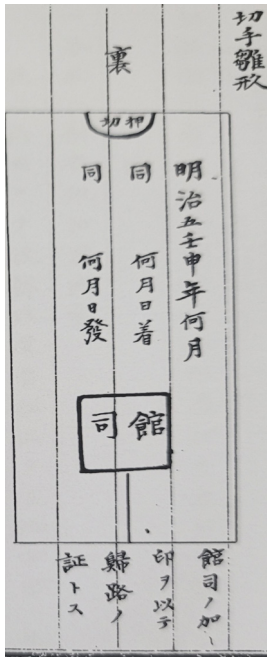


그림 5 증명서 양식(안)

- ▶ 메이지 5 임신년 몇 월
- ▶ 메이지 5 임신년 몇 월 며칠 도착
- ▶ 메이지 5 임신년 몇 월 며칠 출발
- ▶ 관사 인
- ▶ 관사의 인장을 귀로의 증명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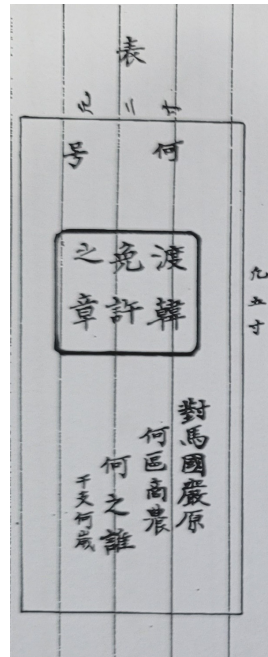


그림 6 증명서 양식(겉)

- ▶ 가로 약 6cm, 세로 약 15cm
- ▶ 몇 호
- ▶ 도한면허지장(渡韓免許之章)
- ▶ 쓰시마노쿠니(對馬國) 이즈하라
- ▶ 무슨 구 상인·농민
- ▶ 누구
- ▶ 간지 몇 살

돌아올 때

一. 귀로歸路에 감합인을 건넬 것

이것은 상선이 귀범歸帆하고자 한다고 선주가 수입품 적재 목록을 첨부해서 관사에게 출원하고, 관사가 감합인과 가장 최근에 맡겨둔 왕래 증명서에 검인을 가하여 함께 건넬 것.

단, 귀주歸州한 다음 감합인과 수입품 적재 목록, 왕래 증명서를 함께 외무성 출장소에 제출할 것.

一. 편선으로 귀국할 경우

이것은 몇 호 선편으로 귀국하고자 한다고 휴대한 수입품 목록을 첨부하여 관사에게 출원하고, 관사가 가장 최근에 맡겨둔 왕래 증명서에 검인을 가하여 건넬 것.

단, 귀주한 다음 물품 목록과 왕래 증명서 모두를 외무성 출장소에 제출할 것.

아울러 선주와 상인은 귀국할 때마다 지방관에게 신고할 것.

43 선주와 편선便船의 조선 왕래 수칙

이 부분은 이즈하라에서 포고를 완료한 다음 관내館內에도 게시할 예정

선주와 편선을 이용하는 자의 조선 왕래 수칙

一. 선주는 감합인勘合印을 청하여 받을 것.

위 선주는 조선에 도항하고자 하면 지방관에게 원서를 제출하고, 지방관은 여기에 검인檢印해서 건네야 한다. 선주는 그 적재액을 조사하여 위의 원서에 첨부하고 이즈하라에 있는 외무성 출장소에 제출하여 감합인과 선주·수부水夫에 이르기까지 왕래 증명서를 청하여 받아야 한다. 조선에 도착한 다음은

위 감합인, 수출 목록, 왕래 증명서 모두를 관사에 제출해야 한다. 귀국할 때도 역시 앞과 같이 수입 적재액을 조사해서 관사館司에게 출원하여 감합인과 가장 최근에 제출해둔 왕래 증명서에 검인을 가하여 관사로부터 받아야 한다. 귀주歸州한 다음은 위 감합인, 화물 적재 목록, 왕래 증명서 모두를 외무성 출장소에 제출하고 귀국한 것을 지방관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一. 편선으로 왕래할 경우

상품을 휴대하고 편선을 요청해 도항하려는 자는 무슨 배에 편승해서 도항하고자 한다고 지방관에게 출원하여 검인을 받고, 그 휴대하는 바의 물품 목록을 첨부해서 외무성 출장소에 출원하고 왕래 증명서를 청해 받아야 한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은 위 증명서에 휴대품 목록을 첨부해서 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귀주할 때도 역시 앞과 같이 휴대해서 돌아오는 물품 목록을 첨부하여 어느 배에 편승해서 귀주한다고 신청하고, 가장 최근에 제출해둔 왕래 증명서에 검인을 가하고 관사로부터 청하여 얻어야 한다. 귀주한 다음은 마찬가지로 목록과 왕래 증명서 모두를 외무성 출장소에 제출하고 귀국했음을 지방관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위 선주는 반드시 감합인을 휴대하고 편선인便船人은 반드시 왕래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배하여 감합인이 없는 배와 증명서가 없는 자는 그 선적 화물과 휴대품 모두를 압수하고 또한 처분할 것이다.

44 관사^{館司}·일대관^{一代官}·감찰^{監察}의 내밀^{內密} 수칙

청산을 완료한 후에 시기를 봐서 내달^{內達}할 예정으로 모리야마^{森山}가 맡아두었다.

관사·일대관·감찰의 내밀 수칙

- 一. 이후 만약에 몇 10일 몇 개월에 이르러 저들로부터 자연히 물품을 소망하는 뜻이 있든가, 혹은 주문하려는 것이 있을 때는 대관소에서 “지금 세견선 중지 중이라 무역을 취급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유무^{有無}를 통하게 하는 건 둘 사이의 긴요한 일이기 때문에, 재관^{在館} 상민 중에 물품을 소지한 자도 있어 그 자들에게 명령해 둘 터이니 그자들과 담합^{談合}하라”라고 얘기하고, 창고에 저축한 물품 중에서 상민에게 빌려주거나 혹은 교역을 취급하도록 해서 모두 상인의 일이라는 것을 조리^{條理}로 삼아, 우리 물품의 원가와 신고 온 운임과 잡비 등에 비추어 저들 물품의 인수 가격과 내지로 운수^{運輸}하는 여러 비용 등을 계산해서 수지가 맞지 않는 일이 없도록 계산을 정밀하게 해서 교역하도록 한다. 만약 저들이 대가의 물품을 후일에 들여보내겠다고 약정하고 우리 물품만 건넬 때는 후일에 확증할 수 있는 서면을 받아두어 만일 어긋나거나 지체하는 일이 있으면 대관소에 출원하고, 대관소는 공공연히 양역^{兩譯}(^{훈도}와 ^{별차})과 교섭할 수 있도록 미리 그 절차를 마련해 둘 것.
- 一. 양국 물품과 정미^{精米}·한전^{韓錢} 등을 재관 상민이 빌리기를 원하면, 마땅한 보증인을 세워 빌려주고 이즈하라^{巖原}에서 금찰^{金札}³⁸로 외무성 출장 관원에게 상납할 기한을 확실히 계약해 둘 것.
단, 이것은 위체^{爲替}³⁹ 방법이 확립된 후에는 행할 수 없다.
- 一.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자연히 상인들을 도와주면 무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는 그 상세한 전망서^{展望書}를 작성해서 이즈하라 출장소에 제출할 것.

³⁸ 금화 대용의 지폐.

³⁹ 멀리 있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에 어음, 수표, 증서 따위를 보내어 결제하는 방식.

45 9월 25일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등이 쓰시마^[對州] 외무성 출장소에 보낸 서신

임신^{壬申}(1872년) 10월 4일 스미히사마루^{住壽丸} 편으로 이즈하라^{巖原}에 도달

어제는 쾌청하여 속히 이즈하라에 안착하신 것을 경하드립니다.

一. 외향(조선)엔 특별히 변한 것은 없습니다.

一. 어제는 역소^{役所}를 이전하려 했는데, 대선 스미히사마루에 짐을 실을 사람이 없어 연기했습니다. 다만 일대관가^{一代官家}는 지금처럼 그대로 두는 것이 외향에 대해 뭔가 편리하다고 의정^{議定}하게 되어 히로세 나오키^{廣瀬直行}를 어제 그곳으로 옮기도록 하고, 오른쪽에 지장관가^{知掌館家}라고 부르는 곳에 역소를 옮길 예정으로 오늘 각각 청소할 것을 명했습니다.

一. 한민^{韓民}의 입관은 오늘 아침부터 그쪽에서 통달이 있었고 예례의 조시^{朝市}에 참여한 자 몇몇이 입관했습니다.

단, 그들의 얘기에 오늘 아침에 입관이 허용되어 어물과 채소 등을 살 수 없었고 내일부터 전례대로 가지고 온다고 알고 있음.

一. 지체된 물품을 보내는 데 사용할 포장 상자에 대해 힘껏 엄명을 내렸지만, 다음 달 13일에나 가능하다고 별지대로 수령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보다 빨리 보내라고 명하려면 그곳에서 대공^{大工}⁴⁰을 파견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주의를 기울여 재촉할 것임.

一. 구진서^{口陳書}를 재촉하는 건은 내일 26일부터 착수할 것입니다. 작금^{昨今}은 군함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⁴¹ 내일쯤 교섭하면 좋겠다고 의정했습니다.

一. 잡역부 만지로^{萬次郎}가 신청한, 군함이 떠난 날 짐을 실은 인부의 품삯은 별지대로 5냥 2주^朱⁴²를 오쿠 요시노리^{奥義制}가 대신 지급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40 주로 목조 건조물을 건축하거나 수리하는 직인.

41 조선 측에서 금지한 화륜선이 입항하여 교섭할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의미.

42 주(朱, 슈)는 화폐 단위로 냥의 1/16.

이곳의 공금에 포함해야 합니까? 별도로 보내주십니까? 이곳의 공금으로 한다면 별지 증서는 반송해 주시길 바랍니다.

一. 오늘은 동래에서 교련敎鍊이 있었다고 합니다. 단, 봄가을로 늘 있다고 합니다.

一. 대선大船은 형편에 따라 오늘 밤 출발할 터라서 별지 송장 2통과 같이 실어 보냅니다.

단, 백미와 대두의 무게를 적은 장부를 올립니다.

서면에 쓰인 이외의 것은 비선飛船 편으로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와 같습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 (인)

오쿠 요시노리 (인)

히로세 나오유키 (인)

후카미 로쿠로 (인)

외무성 출장소 귀중

추신. 내일은 휴가이지만 (역소의) 이전을 처리합니다.

46 9월 25일 야나기하라柳原 대승 등이 하나부사花房 대승에게 보낸 서신

편지로 말씀드립니다.

성상께서는 더욱 안태安泰하십니다. 나라는 안온安穩하고 본 성(외무성)의 경卿 각하도 더욱 건강하게 복무하시니 안심하십시오. 다음으로 귀 가정도 더욱 안강安康하시어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원경遠境에서 맡은 일을 수고롭게 애쓰심에 따라

비관^{卑官}들 일동은 별 탈 없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다지 중요한 일은 아님니다만 안심하십시오.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별도로 봉한 편지 중에 있는 신보^{新報}와 기타에 기초하여 별지대로 정원^{正院}에 건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봉한 (외무)경 각하의 공식 서간⁴³을 보내니, 보고의 진위를 충분히 살피시어 음양으로 취지를 돈독히 상량^{商量}한 다음 기타의 사정에 따라 관찰하도록 진력하십시오. 단, 이번 건은 정부에서 (조선과) 공식적 통교를 열 취지로 그 성부^{成否}는 공공연한 것이 되니 이를 명심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종래 사무역의 상황에 응하여 쓰시마^{對州}·나가사키 기타에서 이 기회를 타서 미곡을 운수^{運輸}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사사로운 통교를 성대하게 하는 기초가 되어 장래의 방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과 성부 모두 주의하시어 천착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알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평안하고 건강하게 진력하심을 기원합니다. 근언^{謹言}.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와타나베 고키^{渡邊洪基}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하나부사 외무 대승 님

추신. 『근세사략^{近世史略}』⁴⁴ 1부를 야나기하라가 헌정합니다.

⁴³ 외무경의 편지는 다음에 나오는 (47)번 문건을 말한다.

⁴⁴ 쇼잔 야시(榎山野史)가 1872년에 발간한 책으로 페리가 내향한 1853년부터 1869년의 하코다테(箱館) 전쟁까지의 일을 서술한 일본 역사서. 이 책은 1873년 에네스트 사토우(Ernest Satow)에 의해 *A HISTORY OF JAPAN FROM THE FIRST VISIT OF COMMODORE PERRY IN 1853 TO THE CAPTURE OF HAKODATE BY THE MIKADO'S FORCES IN 1869*이란 제목으로 영역되었다.

47 외무경이 조선국의 주급^{周急}⁴⁵을 하나부사^{花房} 대승에게 명하는 글

서간으로 알립니다. 족하^{足下}가 건승^{健勝}하면서 날마다 공경하고 조심하며 그 임무를 할 걸로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말할 것은, 최근 갑자기 조선국의 기근이 특히 심하여 아사자가 생겼다는 소식을 얻었습니다. 친밀한 정실^{情實}에 있어 통곡과 비탄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황조^{皇朝}는 하늘이 베푼 은혜가 특히 깊어 오곡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조정에 속히 고하고 대장성에 상의하여 조선 조정이 우리의 호의를 받으면 허다한 양식이라 해도 그 바람에 응하여 충분히 저가로 이를 운수하고, 이를 판매하거나 혹은 빌려 주어 편의^{便宜}로 일시적 궁핍을 보충하는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본디 사리^{射利}⁴⁶를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실로 인근^{隣近}의 사이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유무^{有無}를 서로 도와주는 후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족하가 다행히 조선의 경계에 있어 능히 그 뜻을 체인하고 간절히 당로^{當路}⁴⁷의 관리와 도모하여 속히 회보를 보내시오. 만사가 확실히 정돈되었습니다. 오직 그 보고를 기다려 조만간 바로 시작할 뿐. 불선^{不宣}.

메이지 5년(1872) 임신 9월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인)
외무 대승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님

48 사가현^{佐賀縣} 출장소에서 쓰시마^{對州} 관할의 교체를 외무성 출사^{出使}에게 알리는 글

이번에 쓰시마노쿠니^{對馬國} 일원을 나가사키현 관할^{管轄}로 명하였으므로 동현^{同縣}에 인도합니다. 이를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45 아주 다급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하여 줌.

46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노림.

47 중요한 지위나 직분에 있음.

임신壬申(1872년) 9월 25일

사가현 이즈하라巖原 출장소

佐賀縣
出張所印

외무성 출사 귀중

49 쓰시마[對州] 구 관원 후루카와 겐타古川源太 등이 대관방代官方 명칭 폐지를 신고하는 글

대관방 명칭 폐지 신고서

조선국과의 교제와 관련된 감합勘合 인기印記, 초량草梁 관소 등은 지금에 이르러 안팎의 명분과 실제가 어긋나지만, 공적인 협상을 지휘하신 사정에 따라 소가宗家에서 그대로 취급했습니다. 그중에 대관소代官所는 저번에 철수할 것을 통지하시어 이미 이번 미년末年(1871년)부터 세건선 공무역을 폐지하였지만, 그 이전 오년조午年條⁴⁸ 송사를 당년當年에 특별히 파견하여 저 나라 응접의 형편에 따라 지금까지 대관방의 명칭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금일의 진행 상황에서는 아무튼 부적절한 것이므로 이제 대관방의 명칭을 폐지합니다. 단, 저번 도쿄에서 소宗 종사위從四位가 주장한 대로 둘 사이 수년 동안 금전의 수지와 대차에 대한 조사를 마치기까지는 관계자 두세 명을 남겨 출납 정산을 속히 조사하여 마치도록 아울러 엄히 전해두었으니 그렇게 아십시오. 이를 알려드립니다. 이상.

임신壬申(1872년) 9월 구 관원 중 사가라 단조相良丹藏·후루카와 겐타古川源太

⁴⁸ 경오년(庚午年, 1870)을 말함.

50 비선飛船의 순회順廻 절차를 정한 규칙

비선 순회 절차 규칙[飛船巡廻手續定書]

- 一. 와니鰐·사스나佐須奈·도요豊 삼포三浦의 비선에 일일이 번호를 붙이고, 그 안에서 순번을 정해 2척은 조선에 정박하고 1척은 양국 사이를 왕래하여 무릇 1개월에 두 번씩은 반드시 운항해야 한다. 그 수순手順은 예컨대 몇 번까지 있는 배 중에서 1번·2번·3번의 배는 조선에서 우선 1번이 이즈하라嚴原로 돌아와 공무를 받아 이즈하라를 출발, 삼포 중에서 순번에 해당하는 포구에 이르러 그 받은 공무를 4번 선에 인계한다. 공무를 인계했다면 우선 1번 선은 자신의 원래 마을로 돌아온다. 4번 선은 그 공무를 띠고 바로 조선으로 출발하고 조선에 도착한 다음에는 먼저 정박한 2번 선을 이즈하라로 돌아가게 해서 이즈하라에서 공무를 받고 삼포 중의 순번 선과 교대하는 것은 앞서 서술한 4번 선의 수순과 같다. 위의 방식으로 해서 순서가 어지럽거나 시일이 연기되지 않도록 운항할 것.
- 단, 운항 순번장順番帳을 만들어 운항 근무자의 이름 및 출발과 입항 모두 일한日限을 일일이 기록해서 순번에 해당하는 자에게 차례차례 인계할 것.

비선 수부水夫 수당의 목표

- 一. 조선에서 출발出帆한 당일에 이즈하라에 도착하는 자는 1인에 대해 별도로 백미 1두 5승을 상으로 줌.
- 一. 마찬가지로 2일째 도착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1두를 상으로 줌.
- 一. 마찬가지로 3일째 도착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5승을 상으로 줌.
- 단, 4일째부터는 상급賞給을 주지 않을 것.
- 一. 조선 도착 당일부터 1인에 대해 백미 2승 5홉씩
- 一. 항해 중일 때와 이즈하라 체재 중 마찬가지로 1승 5홉씩

- 一. 이즈하라에서 삼포로 운항하여 순번에 인계하는 동안은 마찬가지로 1승씩
- 一. 이즈하라에서 출발하여 순번의 포구로 운항해서 당일에 공무를 인도^{引渡}한 자에게는 1인에 대해 별도로 백미 5승을 상으로 줌.
- 一. 마찬가지로 2일째 포구로 운항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3승을 상으로 줌.
단, 3일째부터는 상으로 쌀을 주지 않음.
- 一. 순번으로 정해진 포구에서 공무를 넘겨받고 당일로 조선에 도착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1두를 상으로 줌.
- 一. 포구에서 공무를 넘겨받고 2일째 조선에 도착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5승을 상으로 줌.
- 一. 마찬가지로 3일째 조선에 도착한 자에게는 마찬가지로 5승을 상으로 줌.
단, 4일째부터는 상으로 쌀을 주지 않음.

위의 공무를 넘겨받고 3일 안에 출범하는 자는 넘겨받은 날부터 1인에 1승씩 쌀을 지급한다. 출범한 날부터 조선에 도착하기까지 1인에 1승 5홉을 지급한다. 단, 조선에서도 출범을 명한 날부터 1인에 대해 1승 5홉을 지급한다.

- 一. 양국을 왕래하는 동안 쓰시마^{對州} 지방의 나루와 포구에 정박 중은 마찬가지로 5홉씩
단, 각 마을에 정박하는 자는 쌀을 지급하지 않음.
- 一. 항해 양식은 왕복에 1척에 대해 별도로 1석씩 줄 것.
- 一. 매우 급한 공무로 귀범^{歸帆}을 명했는데 만일 풍파 때문에 와니·사스나 그 외 쓰시마^{對州} 지방의 포구로 피하여 이즈하라로 항해하기 어려울 때는 배 안에 있는 두 사람이 공무 서신을 지참하고 그곳에서 바로 육로로 가서 이즈하라에 알려야 한다. 단, 육로로 가는 왕복 경비는 1일 2승 5홉씩 주고 아울러 진력하는 정도에 따라 그때마다 별도로 다소의 상미^{賞米}⁴⁹를 줄 것.

단, 주야로 계속 항해할 때는 낮에 2승 5흡, 밤에는 5승씩 지급할 것.

- 一. 만약 거짓으로 풍파를 핑계 대거나 고장을 주장하여 시일을 끌면서 급미 給米⁵⁰를 탐하는 자는 반드시 규명해서 30일을 넘지 않는 징역을 명한다.
- 一. 급미는 가지고 있는 다소에 따라 혹은 1인에 대해 1승씩 식비를 주는 이외에 당시의 시세에 비추어 돈으로 대신 주는 것도 가능함.

임신壬申(1872년) 9월 21일

대관소

51 초량관草梁館 근무 의정議定

규정

- 一. 매일 아침 10시 관사와 함께 모두 출두하여 사무를 취급하고 본일本日의 사건은 될 수 있으면 그날에 마치도록 힘껏 담당할 것.
단, 2시에 퇴근할 것.
- 一. 출납 회계는 모두 검인한 후 시행할 것.
- 一. 창고의 단속 봉인封印은 대관과 감찰의 양인兩印을 찍을 것.
- 一. 배가 출입할 때마다 역원 중 2, 3인이 빈번소濱番所에 출장할 것.
- 一. 일기와 장부를 작성하여 출두한 인명과 매일 취급하는 사무를 빠짐없이 기재할 것.
단, 서기가 이것을 전적으로 맡아도 퇴근 전에 두루 살펴서 각자 빠진 부분을 보충할 것.

49 상으로 주는 쌀.

50 급료로 지급되는 쌀.

一. 관내館內 경계의 단속을 위해 관사 이하 감찰·대관 등이 협의하여 수시로 순시할 것.

단, 관저官邸 부근 야경夜警도 마찬가지임.

一. 매월 1·6⁵¹의 (휴일)과 기타 휴가는 공례公例에 따라 시행할 것.

단, 휴일이라 해도 출항과 입항의 경우, 기타 상인의 출원에 따라 수시로 출장하여 사무를 취급할 것.

분과

관사 1인

一. 교린의 중요한 접대와 내외 여러 업무를 총리總理할 것.

일대관·감찰

一. 관사를 도와 대소 사무를 맡고 무역·출납·취허吹嘘·인감 및 한인의 응접, 문서 왕복, 일과 기록 등을 처리할 것.

이대관·삼대관·서기

一. 관사·일대관·감찰 등의 지도를 받아 무역·출납·취허·인감 및 한인 통역과 기타 모든 서기書記의 일을 맡을 것.

금도禁徒⁵²

一. 감찰의 지도를 받아 관중館中의 단속을 전담하고 사정仕丁⁵³ 이하 사환과 공사인부, 상인 등까지 노역의 부과를 모두 관장할 것.

금졸禁卒⁵⁴ 겸 사정仕丁 3인

一. 공무소[御用所]에 상주 근무할 것.

⁵¹ 1과 6이 들어가는 날짜로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을 일컬음.

⁵² 일본의 이튼바 메쓰케(目付)로, 감찰·단속의 일을 맡은 자.

⁵³ 지초(じちょう). 잡역에 종사한 하인.

⁵⁴ 금졸은 원래 옥졸(獄卒)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하급 금도를 일컬음.

이 중 1인은 공무소 사무를 취급하고, 1인은 야간 순찰 근무를 하고, 1인은 수문守門에서 숙직하면서 경위警衛하고 다음 날 아침 관내 청소 인부를 분담 시킨 후 조시朝市의 단속을 담당하고, 이를 마치면 공무소에 출두한다.
단, 돌아가면서 근무하여 불공평이 없도록 처리할 것.

사환 2인

一. 공무소에 상주 근무할 것.

이 중 1인은 급사給仕,⁵⁵ 1인은 심부름꾼

대공大工 1인·건축 인부 3인

一. 영선營繕·토목에 사역使役할 것.

단, 시의를 봐가면서 청소를 명할 것.

수부 2인

一. 비선飛船 중에서 순번을 정해 해변 창고의 단속을 위해 야간 순찰을 명할 것.

단, 박모薄暮부터 공무소에 상근하는 금줄의 지시를 받을 것.

수부 10인(순번으로 야간 순찰을 하는 자를 제하고)

一. 사정仕丁의 지시를 받아 관내의 제초·청소 등 누구는 갑에서 을까지 장소를 맡고, 누구는 병에서 정까지 장소를 맡는다.

단, 사정 1인은 매일 관내 청소 장소를 둘러보고 불철저한 자는 반드시 바로 잡고 다시 청소를 명할 것.

상인 2인

一. 관내에 주거하는 상인 2인을 1조로 순서를 정해 야번夜番⁵⁶ 표찰을 차례차례 보내 해변 외 관내의 야간 순찰 근무를 할 것.

단, 순찰 방법은 금도·금줄의 지시에 따라 할 것.

⁵⁵ 관청이나 회사, 가게 등에서 잔심부름을 시키기 위해 부리는 사람.

⁵⁶ 밤에 화재나 도난 등의 예방을 위해 드는 번.

이달 17일부로 초량관草梁館에서 발신한 서면에서 말씀드린 후에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 사이 일대관 히로세 나오유키廣瀨直行가 구진서口陳書로 세견선 미수품未收品을 상환할 터이니 별차別差가 입관할 것을 통달했는데, 배통사陪通事 최재수崔在守라 하는 자를 시켜 화륜선으로 왕래한 사람들과는 관계하지 말라는 이전부터 관문關文의 취지도 있어 물품 출입은 화륜선 재관在館 동안에는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유키가 돈독히 타이른 끝에 최재수는 “하나하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의 별차는 신임이라서 모든 일에 어두운 사람이므로 아무리 주장하여도 실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훈도 안준경安俊卿의 복직은 이미 서울에서 명령이 내려졌을 터이라서 늦게 도착하더라도 벌써 가까운 시일의 복직은 틀림없을 걸로 보이니 지금 잠시 기다려주길 바랍니다”라고 간절히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발묘拔錨 후의 (조선 측의) 거동도 시험해 보고자 이달 말의 상황이 어떤지 조속히 보고하라 하고, 또 관내 단속을 내외 모두가 주의할 것을 명령해 두고 지난 24일 새벽 일단 부산포를 출발하여 이즈하라까지 물러갔습니다.

위의 월말 보고 후에 다시 한번 도한渡韓할지, 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종래대로 지시해두고 귀경해야 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위와 같은 형편이라서 가와 무라河村 병학권조兵學權助⁵⁷가 귀경하고자 시담示談하므로 허락했습니다. 동인同人이 귀경하면 또한 듣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一. 유코마루有功丸는 근일의 상황을 봐서 귀범歸帆을 명할 생각입니다.

위의 취지를 대략 말씀드립니다.

⁵⁷ 병학권조는 병학료(兵學寮)의 7등 관등.

신(1872년) 9월 27일

하나부사 대승

승·기(丞記) 귀중

53 9월 29일 이즈하라(嚴原) 외무성 출사(出使)가 초량관(草梁館) 관사(館司) 등에게 보낸 서신 [2통]

추랭(秋冷)⁵⁸의 시절에 각위(各位)께서 더욱 안태(安泰)하게 봉직(奉職)하심을 진중(珍重)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부산포를 발선(發船)하여 그날 사스나(佐須奈)에 들린 비선(飛船)에 취허(吹嘘) 2본(本)을 건네, 1척은 즉각 출선(出船)하고 1척은 하루 이틀 안에 출선하도록 엄달(嚴達)했습니다. 그런데 사스나촌의 자가 오늘 여관에 와서 주장하기를, 엇그제까지는 바람이 좋지 않아 아직 체류하고 있다는 취지를 말하므로 부랴 부랴 마침 이즈하라에 있는 히로시마(廣島) 어선 1척을 특별히 마련하여 비선 취허를 건네고, 오늘 밤에 출선하여 내일 초하루 오전에 반드시 한국에 도착하라고 명하였습니다. 배가 도착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바로 전하시고 귀선(歸船)을 명하십시오. 매일 손가락을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귀로(歸路)도 힘껏 서두르도록 엄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위 배의 도착 시간과 귀범 시간을 알려주십시오. 단, 특별히 마련한 배의 고임(雇賃)은 왕복에 금 20량(兩), 수로 안내를 하는 자의 고임 3량을 건네 두었으니, 별도로 그곳에서 지급하지 마십시오. 이를 말씀드립니다.

임신(壬申)(1872년) 9월 29일

이즈하라 외무성 출사

관사 외 양명(兩名) 앞

- 一. 새로운 별차가 처음 입관할 때 관사(館司)에게 신고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전어관(傳語官)이 그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본을 후카미(深見)

⁵⁸ 가을의 찬 기운.

님이 수취해야 했는데, 서로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배편에 반드시 사본을 전해야 합니다.

- 一. 히로시마 어선의 선장은 다다히라^{忠平}, 사공은 요네키치^{米吉}·히코지로^{彦次郎}, 수로 안내로 이즈하라에서 오쿠보 구메지^{大久保久米治} 등 합해서 4인이 승선.

지난 13일 그 관^館에 표류 명목으로 도착한 나가사토 도쿠에몬^{長里德右衛門}과 고용 선박 마타헤이^{又平}의 수부^{水夫} 도요키치^{豊吉}, 나무로무라^{南室村}⁵⁹의 헤이키치^{平吉}와 그 외 연루자 모두를 현출장소^{縣出張所}에서 규문^{糾問}⁶⁰하여 그 원인과 전말^{顛末}이 대체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때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가 함께 왜관에 있으면서 도쿠에몬^{德右衛門}을 문정^{問情}하고 귀범 등을 명했습니다. 지금 왜관에 있는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는 이곳에서 조사하기 어렵습니다. 그곳에서 동인이 알고 있는 사정을 하나하나 서면을 작성하도록 해서 이 배편으로 보내십시오. 무엇보다 도쿠에몬이 가지고 건너간 서면과 짐 및 귀범할 때 가지고 돌아온 서면과 짐, 그 외 동인이 내밀히 얘기한 것들에 이르기까지 알고 있는 사항들을 자세히 빠짐없이 서면으로 작성시켜 인감을 찍도록 유념하십시오. 이를 말씀드립니다.

신^申(1872년) 9월 29일

외무성 출사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님

히로세 나오키^{廣瀬直行} 님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님

⁵⁹ 현재의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이즈하라마치(厳原町)의 나무로(南室).

⁶⁰ 죄를 따져 물음.

54 9월 29일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 등이 이즈하라^{巖原} 외무성 출장소에 보낸 서신

풍년든 가을 날씨가 약간 추워지고 있는데 더욱 평안하심을 경하드립니다.

- 26일 11시에 출범한 대선^{大船}으로 보낸 공문은 벌써 받아보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 이후 변한 것은 없습니다.
- 오늘 최재수^{崔在守}에게 입관하라고 알리고 (최재수가) 출두하였으므로, 히로 세 나오유키^{廣瀬直行}와 쓰카다 이라^{東田伊良} 양인이 “지난날 대답한 취지로는 별차가 병영에 가서 그믐날 전후로 돌아올 수 있으므로 구진서 회답은 3, 4일 기다리겠다”라고 답판했는데, (최재수는) “아직 별차가 돌아오지 않았으니 돌아오면 급히 알려주겠다”라고 말함.
- 위 답판 자리에서 저번부터 근신하고 있는 부사와 훈도 안준경^{安俊卿}의 복직을 물었는데, 양인 모두 그 부분은 아직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오늘 상인 미쓰이 젠에몬^{三井善右衛門}과 다카기 마사타로^{高木政太郎}가 주석 천 근, 약탕관 100개, 술 데우는 냄비 100개의 불하^{拂下}⁶¹를 출원하므로 입찰을 명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원래 가격으로 사고자 한다고 하고, 한 사람은 주석 천 근에 대해 2관^貫 500문^文의 고가로 사겠다고 했지만, 평의하여 원래 가격으로 절반씩 양인에게 불하했습니다. 즉 세 가지 물품 가격으로 한전^{韓錢} 338관문^{貫文}을 상납하도록 해서 받아두었습니다. 추후 정산 장부에 상세히 기록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 군함 편으로 떠나실 때 약정하길 비선^{飛船} 2척을 빨리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아직 1척도 나무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까닭으로 어긋났습니까? 그런데 초하루 무렵에는 공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배편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1척의 비선^{飛船}이라도 내일 초하루 아침 일찍 보내겠습니다. 엄명으

61 국가 또는 공공 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팔아넘기는 일.

로써 속히 다른 배들이 규칙대로 나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1척의 배라서 결코 보낼 이유가 없지만, 외항(조선)의 동정이 달라진 것도 없고 또 당부하신 말씀도 있고, 군함으로 정박하신 사정도 고려하여 배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약정하신 대로 2척은 정박하게 하고 3척이 되었을 때 바로 출범할 수 있도록 할 터이니 그렇게 아십시오.

- 一. 선장 기쿠타로 菊太郎가 선구 船具 손상을 고칠 물품을 원하므로 검사한 다음 (필요한 물품을) 사들여서 (그에게) 건넸습니다. 총액은 5량으로 한전 韓錢 11문입니다. 자세한 것은 증서 證書로 남겨두었습니다.
- 一. 지난날 출범한 비선 飛船 수부 水夫 1인이 병이 들어 대신 정박하고 있던 비선에서 차출했는데, 앞서 서술한 대리 선박도 아직 오지 않아 내일 아침 출범에 지장이 생겨 별도로 1인을 고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급료를 주장하여 관사 館司의 사환 1인이 귀현 歸縣을 출원하므로 다행히 위의 자를 수부의 보조로 삼고 금 2엔의 수당을 주어 보냅니다.
- 一. 비선 수부의 급미 給米는 지난 21일 선장에게 말을 전한 대로, 그날부터 규칙대로 이즈하라 嚴原 도착까지 대체적 견적으로 백미 1석 3두 5승 외 왕복 수당 1석 중 편도분 5두를 합해 백미 1석 8두 5승을 금일 건넸습니다.
- 一. 어제 재류 상인들을 역소 役所에 호출하여 야간 순찰을 명하고 어젯밤부터 규칙대로 시행했습니다. 단 2인 1조로 순찰해야 하나 실지 實地에서 평의하여 동·서관 東西館 양쪽으로 나누어 2개 조가 순찰하도록 했습니다.
단, 순찰할 수 있는 상인은 45명이 있습니다.

서외 書外로 말씀드릴 건은 없습니다. 요즈음 모쪼록 가호가 있으시길 오로지 바랍니다.

임신 壬申(1872년) 9월 29일 밤에 적음.

하루타 미치타카 春田道尊 (인)

오쿠 요시노리 奥義制 (인)

히로세 나오후키 廣瀬直行 (인)

후카미 마사카게 深見正景 (인)

이즈하라 외무성 출장소 귀중

추신. 비선은 부디 조속히 운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와니鰐·사스나 佐須奈에 번소 番所가 있을 때도 뭔가 종종 와언 訛言이 생겨 출범이 지연되었다고 하니, 이 부분을 충분히 주의하시어 엄중히 하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첨부 배통사 최재수 등의 대화서

오늘 낮 11시가 지나 배소통사 陪小通事 최재수 崔在守 이하 4명이 입관하여 공무소[御用所]에 출두하여 말하기를, “어젯밤에 별차가 동래부로 돌아온다는 전갈이 와서 재수가 동래부로 올라갔는데, 별차는 여독 旅毒으로 침상에 누워있어 오늘(왜관으로) 내려갈 형편이 아니므로 저희에게 구두로 전하게 했습니다. (별차는) ‘지난날에 보낸 구진서 口陳書와 그 후 계속 재촉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래부사가 재임 再任하게 되고, 또 훈도는 어젯밤에 영문 營門(대구의 경상감영)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오늘 중에 행장을 꾸려 내일 새벽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동인 同人(훈도)에게도 집안의 서신이 도달했는데 지금까지처럼 훈도의 재임 再任을 명했다고 확실히 말해왔습니다. 이번에 대구에 올라가 공무를 맡도록 승인 받으면, (하나부사 등이) 가지고 건너오신 물건을 (조선 측에) 내어 보내는 사정 등을 대체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미리 물품을 받기 때문에, 결코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부사와 훈도가 재임 再任하였으므로 만사가

확정되면 급속히 회답을 말씀드릴 형편에 이를 것입니다. 혼도의 대구 왕복도 겨우 5, 7일 동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동인이 동래부로 돌아오면 면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자小子는 병상에 있어 우선 이런 취지로 대답을 말씀드립니다’라고 별차가 말한 것입니다”라고 배통사들이 구두로 진술했습니다.

55 아라카와 긴스케荒川金助를 한어학소韓語學所 교원으로 명하는 사령서

(임신 10월 초하루에 전함)

아라카와 긴스케

조선어학朝鮮語學 교수로 명함.

단, 월급 10엔을 내림.

임신壬申(1872년) 9월

외무성

· 찾아보기

ㄱ

가가와 다다다케香川忠武	57, 67
가고시마鹿児島	48, 49, 59, 60, 61, 62, 63, 98, 196
가나구스쿠金城	51
가마다 이치베鎌田市兵衛	49
가사加佐	89, 90
가와모토 마사타로川本政太郎	148
가와모토 준사쿠川本準作	148
가와무라河村	88, 103, 104, 196, 232
가와카미 이소지川上磯治	141
가이에 준타로貝江淳太郎	150
가이즈 시게타로海津茂太郎	26, 39, 108, 113, 206, 212, 214, 216, 234
가자야마 요시카즈梶山嘉一	148
가카츠嘉吉	21, 176
간자키 도쿠지로神崎徳次郎	120
간자키무라神崎村	89, 90
강원도	128
강화도	194
경기도(경기)	128
경상감영	237

경상도	122
고바야시 고아이小林好愛	98
고베神戸	37, 98, 116, 197
고스케 나오타쓰小管直達	98
고토 다쓰미厚東樹臣	25, 34, 35
고토 쇼이치로古藤昇一郎	149
곤도 히로시今藤宏	48
공대관公代官	162
구니요시國吉	51
구라타 후미하루倉田文治	149
구로이와 기요미黒岩清美	149
구로키 신베黒木新兵衛	49
구와 우마타로久和馬太郎	150
기노완宜野灣	81
기노한宜野灣	50
기도 슈조幾度省三	150
기사부로喜三郎	42, 69, 116, 210, 213
기시아바喜舍場	51
기안喜屋式	50
기요崎陽	56
기쿠타로菊太郎	236
기타무라北村	102, 196, 197, 199

김녕金寧 63

L

나가노 가쿠이치永野恪一 63

나가무라 후사지로長村房次郎 149

나카미 덴자부로永見傳三郎 141

나카사키崎 23, 29, 36, 38, 46, 54, 55,
56, 59, 60, 62, 63, 64, 68, 73, 84, 86, 96,
102, 120, 141, 153, 154, 163, 171, 179,
186, 191, 193, 195, 196, 197, 198, 199,
211, 217, 224, 225, 234

나카야 주스케長屋忠助 205

나카오 히라요시永尾平吉 57

나카모토仲本 51

나카무라 몬스케中村門助 150

나카무라 쇼지로中村庄次郎 148

나카미네仲嶺 50

나카소네仲家根 52

나카야마仲山 51, 104, 115, 205

나카야마 기헤에中山喜兵衛 39, 40, 204, 212,
216

나카이 하쿠아이中井博愛 25, 190

나카조네仲家根 51

나칸다카레仲村渠 51

C

다나카 미쓰요시田中光儀 90

다니 덴조谷傳藏 149

다다히라忠平 234

다도쓰多度津 109

다이라노 아손平朝臣 174

다카기 마사타로高木政太郎 235

다카세 이치로高瀬一郎 150

다카토미高遠見 127

다케다 구니타로武田邦太郎 150

다케다 진타로武田甚太郎 150

다케시타 마고사쿠竹下孫作 49

다케우치 세조竹内精三 84, 85, 87, 97, 98

다케이치武市 153

단고노쿠니丹後國 89, 90

당상관堂上官 45

대구 117, 125, 237, 238

대차사大差使 174, 175

대통사大通詞 40, 62, 64, 66, 67, 69, 210,
211, 213

덴포잔天保山 109, 202

도간전都幹傳 162

도미타 이소노스케富田磯之助 73

도바노우라戸場浦 98, 116

도요무라豐村 51

도요오카豐岡 89, 90, 92

도요우라豐浦 103

도이야問屋 109, 111

도쿄 38, 39, 41, 47, 98, 104, 113, 116,
140, 141, 153, 164, 171, 187, 188, 193,
204, 205, 207, 226

도타케 히데유키遠武秀行 189, 194, 206
 동래東萊 24, 39, 118, 122, 131, 151, 161,
 175, 200, 223
 동래부 18, 19, 20, 21, 24, 25, 30, 31, 41,
 151, 156, 157, 158, 161, 201, 204, 214,
 237, 238
 동래부사 19, 31, 174, 175, 237

ㄹ

러시아 72, 73, 104, 113, 115, 122, 123,
 152, 153
 런던 115
 류큐琉球 47, 48, 49, 50, 51, 72, 74, 76, 77,
 78, 81, 98, 103

ㄴ

마쓰시마松島 51
 마에다 나오키前田直勝 111, 112
 마에다 다베에前田太兵衛 99, 100
 마에카와 다헤前川太兵衛 38, 39
 마와리우라廻浦 129
 마카베眞壁 51
 마타사부로又三郎 91, 149
 마타요시又吉 51
 만주 153, 196
 모리아마森山 36, 40, 41, 46, 48, 69, 70, 72,
 73, 98, 100, 104, 105, 110, 113, 133, 170,

184, 186, 187, 192, 202, 221
 모리아마 시게루森山茂 30, 31, 32, 109, 113,
 115, 116, 117, 120, 121, 127, 151, 154,
 156, 163, 164, 182, 183, 185, 192
 무로즈미야室積屋 109, 110, 111
 무역국貿易局 64, 65
 무역서貿易署 56, 62, 66, 107, 133, 137,
 139, 140, 171, 213
 미국 18, 47, 73, 82, 103, 115, 153, 194, 197
 미기마쓰 고스케右松吾助 48
 미나미 나카자에몬南仲左衛門 49
 미쓰이 전에몬三井善右衛門 122, 235
 미야구스쿠宮城 51, 52
 미야모토宮本 49, 71, 73
 미우라 부에몬三浦武右衛門 141
 미타지리三田尻 45

ㄷ

바칸馬関 45, 46
 반 이쿠타로番幾太郎 150
 배소통사陪小通事 237
 배통사陪通事 28, 88, 162, 232, 237, 238
 벳푸別府 196
 별차別差 28, 29, 30, 31, 42, 44, 45, 88,
 118, 126, 157, 159, 162, 175, 205, 206,
 221, 232, 233, 235, 237, 238
 병학권조兵學權助 88, 103, 104, 232
 복주福州 47

부산 16, 25, 45, 118, 122, 127, 131, 151,
175, 190, 196, 200

부산첨사 31, 131, 160

부산포 25, 28, 88, 103, 189, 190, 232, 233

비세(備瀬) 51

빈고노쿠니(備後國) 101



사가(佐賀) 26, 54, 55, 57, 62, 63, 64, 67, 68,
108, 191, 193, 203, 205, 213, 214, 216,
225, 226

사가라(相良, 相良正樹) 39, 40, 44, 202

사가라 단조(相良丹藏) 39, 226

사고노우라(佐渡浦) 120

사스나(守奈, 佐須奈) 154, 227, 228, 233, 237

사쓰마(薩摩) 50, 77, 78

사이토 사카에(齊藤榮) 109, 110, 111, 116,
183, 185

사카이항(酒井湊) 92

사카키(彭城) 153

사카키 주헤이(彭城中平) 153

사쿠라다(櫻田) 115

사쿠베(作兵衛) 89, 90, 92, 103

사토무라 도다유리(藤太夫) 49

사할린 152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 184

삼대관(三代官) 27, 157, 178, 211, 230

상하이 영사관 73, 99

서기관(書記官) 113, 115

서울 117, 194, 232

소 시게마사(宗重正) 18, 19, 22, 24, 166

소에다 세쓰(副田節) 73, 105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82, 83, 96, 153,
170, 176, 183, 184, 185, 225

소통사(小通事) 25, 40, 42, 43, 107, 108, 199,
200, 205, 214

쇼유코(向有恒) 76, 77

쇼이신(向維新) 76, 77

쇼켄(尙健) 76, 77

쇼키치(庄吉) 89, 90, 92

쇼타이 74, 75, 76, 77, 78, 81, 98

수영(水營) 25, 45, 107, 214

스미나가 게조(住永啓三) 69, 116

스미나가 신타(住永辰妥) 156, 157, 159, 211

스미나가 유스케(住永友輔) 40, 69, 116, 210, 213

스오나다(周防灘) 109

시나가와(品川) 36, 47, 71, 192

시마노쿠니(志摩國) 116

시마부쿠(島袋) 51

시모노세키 109

시슈(志州) 116

시하라 요에몬(椎原與右衛門) 48

식부관원(式部官員) 76

식부두(式部頭) 74, 75, 76

식부료(式部寮) 104, 105, 106, 112, 114

신바시역 47

쓰시마(對州)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0, 31, 118, 152, 155, 157, 158, 162, 170, 171, 175, 176, 183, 184, 185, 186, 187, 188, 190, 191, 193, 195, 198, 199, 200, 201, 207, 208, 209, 211, 213, 214, 217, 222, 224, 225, 226, 228, 234	
쓰시마가對州家	190
쓰시마노카미對馬守	174
쓰시마노쿠니對馬國	193, 195, 218, 225
쓰쓰고豆酸郷	57
쓰쓰무라豆酸村	57, 58, 61
쓰에 나ოს케津江直助	149
쓰지무라辻郷	91
쓰카다 기사부로東田喜三郎	69, 116, 210, 213
쓰카다 이라東田伊良	156, 157, 159, 211, 235



아가리에東江	51
아라카와 긴스케荒川金助	40, 153, 163, 238
아비류 요시카치阿比留嘉吉	150
아비류 유사쿠阿比留祐作	149
아사야마 겐조淺山顯藏	149
아타고시타愛宕下	47
안준경安俊卿	28, 88, 232, 235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	86, 224
야노 지로矢野次郎	115
야마가타山縣, 山縣有朋	196, 197, 199
야마다 엔타로山田延太郎	150

야마사토山里	50
야마자키 기요시山崎潔	98
야스다安田	50
야카비屋嘉比	51
양산	156
에치젠야 지헤越前屋 治兵衛	140
영국	114, 115, 164
영문營門	237
영사	47, 71, 166
예조참판	174
엔타이燕台	84
오가와 세이치로小川精一郎	49
오나가翁長	50
오노 우츠타大野右仲	90
오다 기치로小田吉郎	59, 60
오다 한지小田判治	41, 44
오사카大坂	25, 34, 36, 38, 45, 52, 70, 82, 98, 102, 109, 110, 111, 171, 186, 187, 188, 190, 191, 192, 193, 196, 202
오야토마리親泊	51
오와리아 젠로쿠尾張屋善六	140
오이시 게조大石圭三	150
오이시 마타사부로大石又三郎	149
오카다 헤이조岡田平藏	193
오쿠 기세이奥義制	30, 117, 118, 119, 121, 126, 127, 133
오쿠 요시노리奥義制	26, 151, 155, 178, 179, 183, 185, 216, 222, 223, 234, 237
오쿠루마요세御車寄	74

오쿠보 구메지 大久保久米治	234	우에무라 히코시로 上村彦四郎	49
오키노쿠니 隠岐國	91, 92	우에야나기 上柳	50
와니 鰐	227, 228, 237	우에즈 上江洲	50
와니우라 鰐浦	118, 154	워싱턴	115
와타나베 노보리 渡邊昇	202	이 마고타로 井孫太郎	150
와타나베 에구치 渡邊榮口	141	이노 쓰네스케 井野常助	59
와타나베 히로모토 渡邊洪基	86	이노우에 가오루 井上馨	56, 57, 67, 94, 193
와관, 화관 和館	19, 20, 21, 22, 23, 27, 28, 30, 31, 38, 40, 41, 56, 100, 101, 155, 157, 162, 175, 176, 178, 179, 200, 204, 205, 208, 214, 216, 234, 237	이노우에 고타로 井上光太郎	150
요나미네 與那嶺	51	이다 유즈루 井田譲	47
요네키치 米吉	234	이사관 理事官	47, 71
요부코우라 呼子浦	45, 46	이세 伊勢	98
요세다 與世田	50	이시카와 石川	97
요시마쓰 도요사쿠 吉松豊作	149	이에 伊江	50, 80
요시오카 고키	63	이와하시 데쓰스케 岩橋徹輔	192
요시조에 기하치로 吉副喜八郎	149	이즈미야 신에몬 和泉屋新右衛門	190
요코하마 横濱	36, 47, 71, 72, 85, 113, 115, 194, 197	이즈미야 이쿠에몬 幾右衛門	190
우고카노무라 右五ヶ邨	92	이즈하라 巖原	18, 25, 28, 38, 52, 54, 55, 56, 57, 58, 63, 65, 67, 88, 100, 103, 108, 109, 110, 113, 129, 133, 141, 152, 153, 154, 155, 163, 171, 180, 181, 183, 185, 195, 203, 204, 205, 211, 214, 216, 217, 219, 221, 222, 226, 227, 228, 232, 233, 234, 235, 236, 237
우라세 사이스케 浦瀬最助	24, 40, 199	이지치 伊知地	74, 98
우라세 요시히로 浦瀬好裕	203	이지치 소노조 伊地知壮之允	49, 50
우라세 유타카 浦瀬裕	202	이케노우에 池上	153
우라세 주타로 浦瀬忠太郎	149	이케다 유에몬 池田勇右衛門	49
우메노 슈키치 梅野習吉	150	이탈리아	71, 115
우변 右邊	42	이토 하치베 伊藤八兵衛	141
우에노 가게노리 上野景範	47		
우에노 게이스케 上野敬助	212, 216		

이하伊波 50
 일대관一代官 26, 27, 28, 42, 43, 44, 69, 88,
 108, 131, 132, 157, 159, 162, 178, 205,
 206, 208, 209, 210, 214, 221, 222, 230,
 232
 일본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7, 28, 29, 30, 31, 37, 47, 53, 59, 65, 72,
 73, 74, 108, 109, 116, 118, 151, 152, 153,
 154, 157, 159, 179, 191, 195, 196, 207,
 208, 214, 224, 230
 임관任官 28, 42, 43, 108, 199, 200, 214

大

전라도(전라) 63, 128
 전어관傳語官 205, 233
 제주濟州 63
 조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8, 29, 30, 31, 32, 34, 35, 36, 37, 38,
 42, 46, 47, 48, 52, 63, 64, 67, 71, 82, 83,
 84, 85, 87, 89, 90, 92, 93, 94, 96, 97, 98,
 100, 101, 103, 106, 107, 109, 112, 115,
 116, 119, 121, 122, 123, 125, 126, 129,
 151, 152, 153, 154, 156, 157, 163, 166,
 167, 170, 171, 172, 174, 177, 178, 179,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4, 195, 196, 200,
 202, 205, 206, 207, 208, 214, 216, 217,
 219, 222, 224, 225, 226, 227, 228, 232,
 236, 237, 238
 조선인 20, 24, 25, 39, 41, 42, 43, 57, 63,

64, 115, 123

조세료租稅寮 25, 34, 52, 70
 조슈長州 45, 193
 좌근위소장左近衛少將 174, 175
 지나支那 82, 84
 지넨知念 52
 진복훈陳福勳 47, 71
 진제이鎭西 153

大

차사差使 19, 21, 22, 38, 108, 156, 161,
 175, 176, 178, 200, 204, 205, 214
 참사參事 48, 54, 56, 57, 66, 67, 90
 참의관參議官 74, 75, 81
 청국 47, 71, 72, 153, 163, 166
 초량(초량읍) 16, 18, 19, 20, 21, 23, 24, 26,
 27, 28, 30, 68, 126, 133, 176, 183, 200,
 201, 226
 초량 관사 25, 183, 184, 211
 초량공관草梁公館 166, 167, 170, 172
 초량관 28, 29, 30, 31, 32, 55, 63, 68, 85, 88,
 100, 103, 117, 121, 155, 229, 232, 233
 총영사 104, 115
 최재수崔在守 24, 28, 30, 31, 40, 88, 122,
 129, 151,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99, 201, 204, 205, 232, 235, 237
 충청도(충청) 128
 친왕親王 73, 104, 113, 115

ㄱ

키라후토柯太, 樺太 152

ㄴ

타이슈對州 28, 37, 38, 40, 45, 46, 54, 85, 86, 88, 100, 102, 107, 109, 110, 111, 115

태정관 164, 165, 182, 193, 195

통사通詞 19, 26, 28, 40, 41, 42, 43, 44, 54, 55, 57, 64, 65, 66, 67, 68, 69, 158, 210, 211, 212, 213

특명전권공사 115

ㄷ

평안도(平安) 128

표류민 19, 21, 24, 28, 42,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1, 108, 113, 143, 175, 176, 180, 183, 184, 195, 199, 200, 214, 216

표민가漂民家 61, 62

프랑스 82, 194

ㄹ

하나구스쿠花城 51

하나부사 요시모토 22, 23, 24, 82, 83, 105, 178, 179, 182, 184, 185, 225

하루타 미치타카春田道尊 217, 236

하루타 조주로春田長十郎 26, 132, 205, 217, 223, 234

한어학소韓語學所 142, 185, 238

함경도 122, 123, 127, 128

हत토리 세이키치服部清吉 203

해군성 19, 20, 24, 101, 102, 103, 181, 182, 189, 191, 192, 194, 197, 206

호리에堀江 50, 98

호키노쿠니伯耆國 91, 92

효고兵庫 36, 45, 109, 110, 197, 198, 199

후루카와 겐타古川源太 226

후지이 리스케藤井利助 149

후지카와 산케藤川三溪 115

후카미 로쿠로深見六郎 21, 26, 37, 38, 40, 42, 45, 64, 68, 70, 99, 113, 116, 117, 203, 210, 212, 213, 222, 223, 234

후카미 마사카게深見正景 211, 235, 237

후쿠야마 고헤이福山五兵衛 61

훈도 28, 30, 31, 32, 88, 117, 118, 119, 130, 151,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70, 175, 178, 201, 202, 204, 221, 232, 235, 237, 238

히가比嘉 50

히라타 오키시로平田奥四郎 150

히로세 나오키廣瀬直行 38, 40, 68, 88, 108, 122, 153, 156, 157, 159, 161, 162, 185, 210, 214, 222, 223, 232, 234, 235, 237

히로세 도요키치廣瀬豊吉 132

히로세 류자에몬平瀬龍左衛門 49

히로시마廣島 101, 118, 233

히로쓰 히로노부	37, 41, 45, 69, 99, 113,
	116, 165, 182
히카미氷上(군)	91
히코지로彦次	234